

始興市 地名由來



始興市地名由來

始興市地名由來



지명마다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

현재의 시흥시는 옛 시흥군의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져 1989년에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변화, 성장을 거쳐 인구 38만명이 넘는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 사업의 결과로 옛 자연마을의 상당수가 도시화되면서 사라졌고, 이에 따른 이주인구의 급증과 사회변동은 시흥의 뿌리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은 2003년 지명유래 조사사업을 통해 군자권과 수암권의 지명유래 조사보고서를 내었으며 2005년 소래권 조사를 거쳐 『시흥시 지명유래』를 발간하게 이르렀습니다. 지명유래 조사의 특성상 지역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 구전 내용을 듣고 확인하므로 많은 시간과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시흥은 옛 지명이 사라진 곳도 있으므로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옛 지명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1988년에 나온 『始興郡誌』 下권의 지명유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마을과 일반 지명을 표시하고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사실과 지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유래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듣는 구수한 옛날 얘기의 향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입을 통해 뜻도 모르고 불러대던 지명이 저마다 의미 있는 그럴만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쉽게 지명이 붙여지는 과정을 거치며 옛 이름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흥은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많은 도시로서 각종 도로명 부여 및 각급 학교와 아파트 단지의 명명 등 옛 지명을 정확히 알아야 할 사업들이 많으므로, 이 지명유래집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흥시 지명유래』 발간을 위해 애쓰신 조사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2월

시흥문화원장 박용민

目次

제 I 부 / 연혁

| | | |
|-----|--------|----|
| 제1장 | 시흥시 연혁 | 17 |
| 제2장 | 행정동 연혁 | 27 |

제 II 부 / 지명유래

| | | |
|-----|---------|----|
| 제1장 | 대야동 | 35 |
| | 제1절 대야동 | 36 |
| | 제2절 계수동 | 43 |
| 제2장 | 신천동 | 53 |
| | 제1절 신천동 | 54 |

| | | | | | |
|-----|---------|-----|------|----------|-----|
| 제3장 | 신현동 | 61 | 제7장 | 군자동 | 159 |
| | 제1절 방산동 | 62 | | 제1절 거모동 | 160 |
| | 제2절 포 동 | 72 | | 제2절 군자동 | 172 |
| | 제3절 미산동 | 78 | | 제3절 월곶동 | 179 |
| 제4장 | 은행동 | 85 | 제8장 | 정왕동 | 189 |
| | 제1절 은행동 | 86 | | 제1절 정왕동 | 190 |
| | 제2절 안현동 | 93 | | 제2절 죽울동 | 205 |
| 제5장 | 매화동 | 99 | 제9장 | 과림동 | 211 |
| | 제1절 매화동 | 100 | | 제1절 과림동 | 212 |
| | 제2절 도창동 | 105 | | 제2절 무지내동 | 223 |
| | 제3절 금이동 | 110 | 제10장 | 연성동 | 229 |
| 제6장 | 목감동 | 121 | | 제1절 화정동 | 230 |
| | 제1절 물왕동 | 122 | | 제2절 능곡동 | 236 |
| | 제2절 산현동 | 128 | | 제3절 하중동 | 242 |
| | 제3절 조남동 | 136 | | 제4절 하상동 | 250 |
| | 제4절 논곡동 | 147 | | 제5절 광석동 | 255 |
| | 제5절 목감동 | 152 | | 제6절 장현동 | 260 |
| | | | | 제7절 장곡동 | 2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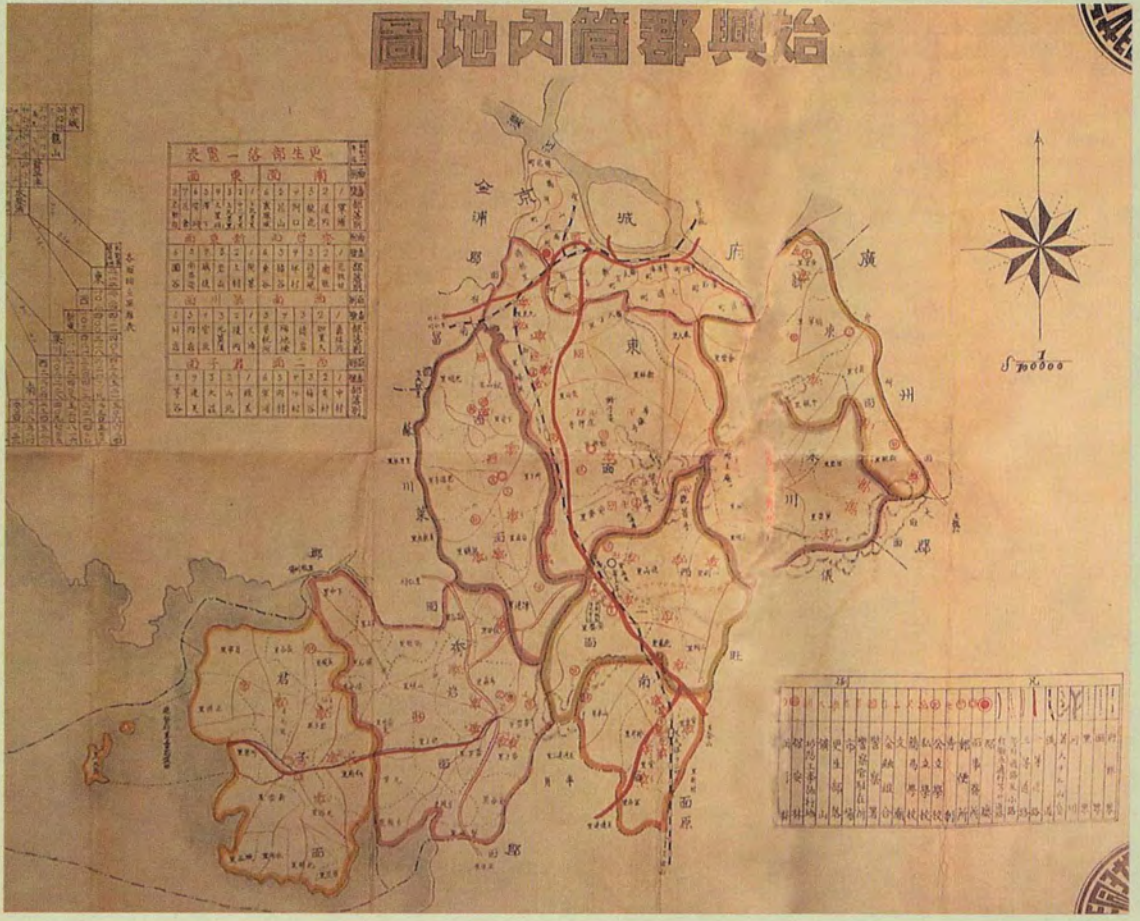
인천 「지도(地圖)」, 18세기 후반



安山 「지도(地圖)」, 18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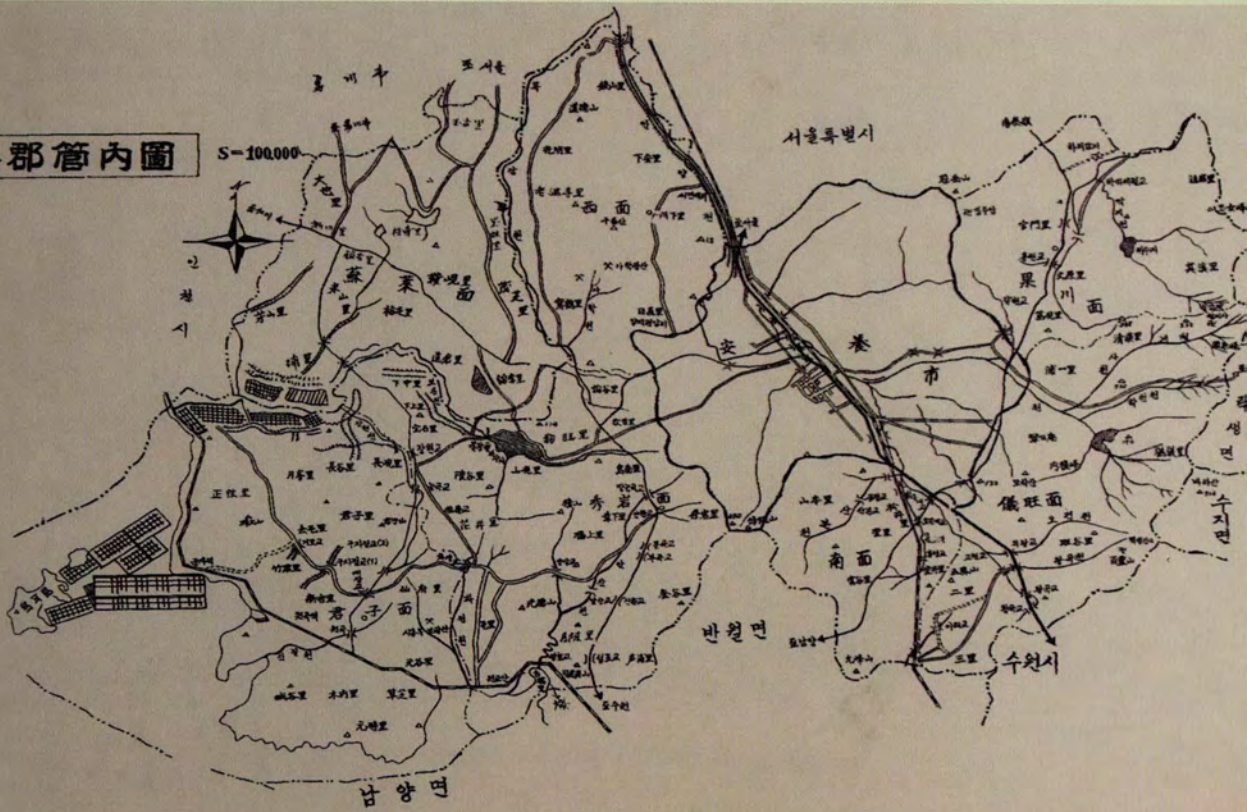


동여도 東輿圖, 〈第13關東畿內(部分)〉



시흥군 관내도 「시흥군세일람」(1936)

始興郡管內圖



시흥군 관내도 (1975)



시흥시 행정지도 (2002)



소래지구



수암지구



정왕지구

[일러두기]

1. 본서는 『시흥군지』의 「지명유래」를 기본 자료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2.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 군자·수암 지역 | 소래 지역 |
|-------|---|---|
| 조사 기간 | 2003년 7월~9월 | 2005년 11월~12월 |
| 조사원 | 김락기(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김영연(시흥시 향토사료실 전문위원) 심우일(교사) 김현진(인하대 사학과 대학원) | 최준(한양대 박물관) 이동아, 전영하, 김현정, 조한나, 양유진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박아영, 남영라, 김민정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

3. 현지조사는 법정동 단위로 진행되었으나, 서술은 행정동별로 구분하여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에 정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단, 정왕동은 2005년 12월 현재 정왕본동, 정왕 1·2·3·4동 등 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왕본동에 속한 죽울동과 정왕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동은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죽울동과 정왕동으로만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4. 지명은 맞춤법에 맞지 않더라도 사용되는 지명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문장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한글과 한자의 음이 다를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6.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명이 마을마다 다를 경우 모두 서술하였다.
7. 자연마을을 먼저 가나다순으로 서술하고, 나머지 지명은 그 다음에 역시 가나다순으로 서술하였다.
8. 연대는 왕조 연도를 먼저 표기하고 () 안에 서기 연도를 병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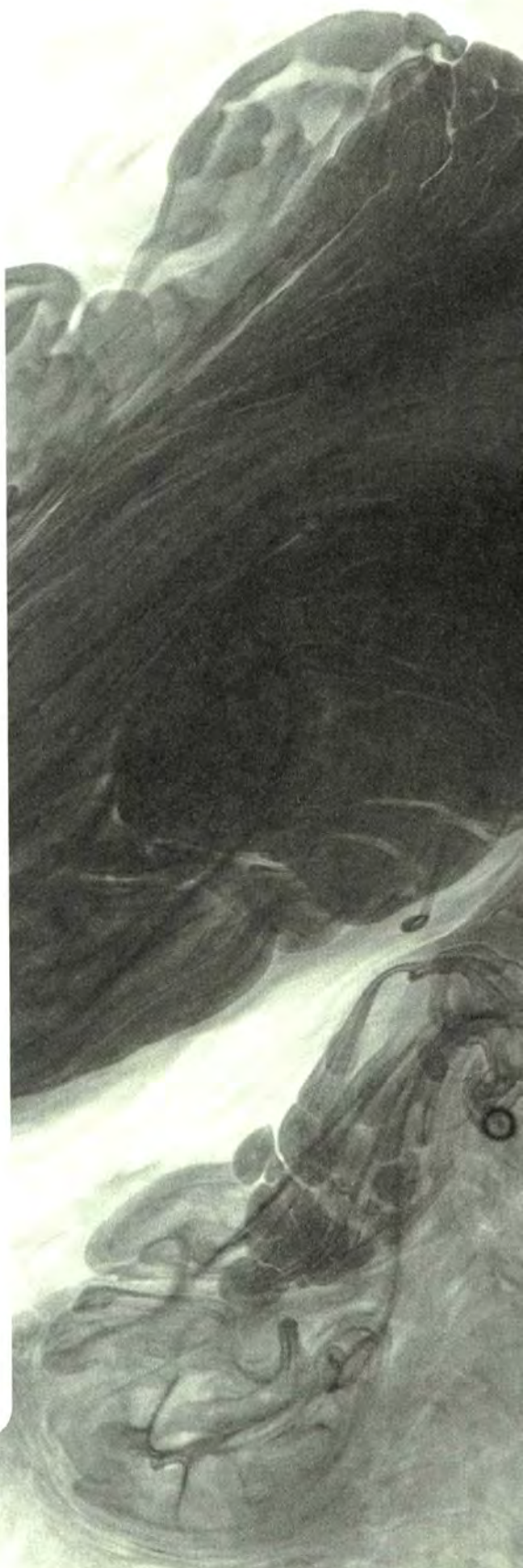
제 I 부 / 연혁

제1장 시흥시 연혁

| | |
|-----|------|
| 제1절 | 고 대 |
| 제2절 | 고려시대 |
| 제3절 | 조선시대 |
| 제4절 | 근·현대 |

제2장 행정동 연혁

| | |
|------|-----|
| 제1절 | 대야동 |
| 제2절 | 신천동 |
| 제3절 | 신현동 |
| 제4절 | 은행동 |
| 제5절 | 매화동 |
| 제6절 | 목감동 |
| 제7절 | 군자동 |
| 제8절 | 정왕동 |
| 제9절 | 과림동 |
| 제10절 | 연성동 |





제1장

시흥시 연혁

始興市

경기도의 중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시흥시는 동쪽으로 안양시, 남쪽으로 안산시, 북쪽으로 부천시, 북동쪽으로 광명시, 북서쪽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닿아 있다. 동경 126° 37' ~ 126° 54', 북위 37° 18' ~ 37° 28' 에 위치하며, 평지로 이루어진 완만한 구릉 지대가 발달한 지형이다. 42번 국도가 시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39번 국도가 남북을 관통하며, 제2경인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시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은 134.40km², 인구는 38만 7,239명이다.

시흥시는 행정 구역의 변동이 많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시의 연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역사를 모두 살펴야만 한다. 시흥시는 1989년 시흥군의 군자·수암·소래 지역이 합쳐져 시로 승격되었다. 소래 지역과 군자·수암 지역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왔다. 즉, 한말까지 소래는 인천, 군자와 수암은 안산에 속해 있었다. 일제시기 이후 부천군과 시흥군에 각각 편제되었던 소래와 군자·수암면은 1973년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비로소 단일한 행정 구역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시흥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2000년에 실시된 시흥시 전역에 대한 광역지표조사에서 구석기시대의 타제 석기로 추정되는 석기 여러 점이 수습되어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사회지구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왕동 오이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의 패총 33개소와 빗살무늬토기 등 각종 토기가 수습되어 신석기시대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대에 시흥시의 전신인 옛 시흥군의 소래읍·수암면·군자면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의 제20대 장수왕 63년(475)의 백제 공격에 따라 수암면·군자면은 현재의 안산시와 함께 장항구현(獐項口縣)으로, 소래읍은 현재 인천을 중심으로 설치한 매소홀현(買召忽縣)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553)이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한주(漢州)를 설치하자, 한주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제35대 경덕왕 16년(757)에 장항구현은 장구군(獐口郡)으로, 매소홀현은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하였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뚜렷하게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의 유적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매화동과 안현동을 비롯하여 16곳에 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오이도 유적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3개소와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또 군자봉 정상 부근에는 성곽(城郭)의 흔적으로 보이는 석렬(石列)과 함께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기도 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표식적인 유물인 인화문토기도 광석동, 논곡동, 능곡동, 산현동 등에서 보고되었다.



제2절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장구군은 태조 23년(940)에 안산현(安山縣)으로 개칭되었고, 현종 9년(1018)에는 수주(水州, 현재의 수원)에 배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으며, 정종 4년(1038)에는 문종이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어 안산군(安山郡)이 되었다.

소성현은 숙종 때에 모후(母后) 인예왕후(仁睿王后)의 출신지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인종 때에 이르러 모후 순덕왕후(順德王后)의 출신지라 하여 인주(仁州)로 되었다가 1390년(공양왕 2)에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 문화유적으로는 보물1324호 소래산 마애상과 사적 413호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가 있다. 소래산 마애상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또는 장군바위) 암벽에 선각되어 있다. 암벽의 풍화가 심하긴 하지만 그 형상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머리에 연화문(蓮花紋)의 화사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방산동 요지(窯址)는 수십 년 전부터 동네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991년 주민의 신고로 인해 같은 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에서 실사를 하였고, 이때의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고려 초기 청자요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학계에 알려졌다. 그 후 해강도자미술관에서 두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1997년에, 2차 조사는 1998년에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요업활동의 시기는 대략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유적의 존재는 고려 초기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호족세력이 상당히 번성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두 유적이 모두 당시 인주에 속해있던 점으로 미루어 인주이씨 가문이 유적과 관련된 호족세력으로 생각된다.

제3절 조선시대



조선 개국 후 태종 13년(1413)에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인주는 인천(仁川)으로 개칭되었고, 안산군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후기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인천부의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과 안산군의 군내면, 초산면, 잉화면,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이 현재 시흥시와 관련된 지역이다.

한편 세조 9년(1463)에 강희맹(姜希孟)이 중국 남경의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蓮子)를 가지고 귀국, 현재의 하중동 208번지에 소재한 관곡지(官谷池)에 심은 것이 유래가 되어 세조 12년(1466)부터 안산군의 별호(別號)를 '연성(蓮城)'이라 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문화유적으로 조선 전기의 문신인 강희맹 묘 및 신도비와 조선 중기 서평 부원군으로 봉해진 한준겸과 그의 후손들의 묘역이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광해군의 국구(國舅)인 류자신의 묘와 신도비, 효종의 국구(國舅)인 장유의 묘와 신도비 및 조선 전기의 명신인 하연의 묘, 관곡지 등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곡지



제4절 근 · 현대

조선 말기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도호부는 고종 32년(1895)에 인천부로 개편된 뒤 이듬 해 경기도 인천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자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단행된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옛 인천부의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은 소래면으로 합쳐져 부천군에 속하였으며, 옛 안산군의 군내면·초산면·잉화면은 '수암면'으로, 와리면·마유면·대월면은 군자면으로 바뀌어 시흥군에 배속되었고 안산군은 폐지되었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3년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가 개소되자 수암면·군자면의 13개리가 분리되어 반월출장소로 이속되었다.

1980년 12월 1일에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 소래읍 옥길리 일부는 광명시에, 계수리 일부는 부천시에 편입되었다. 1988년 12월 3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면서 1989년 1월 1일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서 '시흥시'를 설치하였다.

시 승격이후 1991년 1월 15일 중림·연성출장소가 개소된 뒤 이해 9월 1일에 중림출장소는 '중림동'으로, 연성출장소는 '연성동'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듬해 신관동이 '신현동'으로, 중림동이 '과림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어 1994년 7월 1일에 거모동이 '군자동'으로 개칭되었고, 이듬해 4월 20일에는 수암동·장하동·장상동과 화정동의 너빌·고주물 지역이 안산시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11월 15일에는 법정동인 무지동이 '무지내동'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시화지구 건설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1999년 9월 27일에는 정왕동이 정왕1동과 정왕2동으로 분동되고, 2002년 3월 2일에는 다시 정왕3동과 정왕4동으로 분동되었으며, 2003년 12월 23일에는 정왕1동이 정왕본동과 정왕1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시흥시는 14개 행정동에 30개 법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흥지역 행정구역 변경〉

| 2005년 현재 | | 일제시기 | 조선 말기 |
|--------------|--------------|--|--|
| 행정동 (14개) | 법정동 (30개) | | |
| 대야동 | 대야동 |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대야동 |
| | 계수동 |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수노골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구미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가일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건지물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고갱이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안골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뒷골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덕석골 | 인천부 황등천면 육리 수노골 인천부 황등천면 육리 구미 인천부 황등천면 육리 가일 인천부 황등천면 육리 건정리 인천부 황등천면 육리 고공리 인천부 황등천면 칠리 내곡 인천부 황등천면 칠리 후곡 인천부 황등천면 칠리 덕석리 |
| 신천동 | 신천동 |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새말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뱀내장터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신촌리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사천리 |
| 신현동 | 방산동 |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다니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산우물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방골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죽원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산정리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방곡리 |
| | 포 동 | 부천군 소래면 포리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포동·국동 |
| | 미산동 |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창동·고기리·이리 |
| 은행동 | 은행동 | 부천군 소래면 은행리 |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삼리 |
| | 안현동 |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 양지편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 가대말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 길마재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 장낙골 | 인천부 전반면 일리 양지리 인천부 전반면 일리 가대동 인천부 전반면 일리 송내동 인천부 전반면 이리 장낙동 |
| 매화동 | 매화동 |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매체기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셋터말 | 인천부 전반면 이리 매착리 인천부 전반면 이리 읍동(신기촌) |
| | 도창동 |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 도두머리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 강창리 | 인천부 전반면 삼리 도두리 인천부 전반면 삼리 강창리 |
| | 금이동 |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진말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거멸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도리재 | 인천부 전반면 사리 진촌 인천부 전반면 오리 검의리 인천부 전반면 육리 도이리 |

| | | | |
|------|------|---|--|
| 목감동 | 물왕동 |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월미 | 안산군 초산면 물왕리 안산군 초산면 상직리 |
| | 산현동 |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 · 궤곡리 |
| | 조남동 |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 안산군 초산면 조남리 · 제청리 |
| | 논곡동 |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 |
| | 목감동 |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 안산군 초산면 목감리 · 율포리 |
| 군자동 | 거모동 |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리 · 석곡리 |
| | 군자동 |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구준물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산뒤 | 안산군 마유면 구정리 안산군 마유면 산북리 |
| | 월곶동 |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월동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삼밭 등등 | 안산군 마유면 월동리 안산군 마유면 월서리 |
| *정왕동 | 정왕동 |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오이도 | 안산군 마유면 정왕동 사래이 등등 안산군 마유면 오이리 |
| | 죽율동 |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 안산군 마유면 죽율동 |
| 과림동 | 과림동 |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 두무절이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 모갈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 부라위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 중림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 솥두루지 | 인천부 황등천면 일리 두곡 인천부 황등천면 일리 목과동 인천부 황등천면 일리 불아위 인천부 황등천면 이리 중림 인천부 황등천면 삼리 탄평 |
| | 무지내동 |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능안말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중동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신흥동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은행동 | 인천부 전반면 칠리 능내동 인천부 전반면 칠리 중동 인천부 전반면 칠리 신흥동 인천부 전반면 칠리 은행동 |
| 연성동 | 화정동 |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 안산군 잉화면(인화면) 화정리 · 광곡리 |
| | 능곡동 |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 안산군 잉화면(인화면) 능곡리 · 북곡리 |
| | 하중동 |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 |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 |
| | 하상동 | 시흥군 수암면 하상리 요골 시흥군 수암면 하상리 하지골 | 안산군 초산면 중직리 안산군 초산면 하상리 |
| | 광석동 |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나분들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둔터골 | 안산군 초산면 광석리 안산군 초산면 하하리 |
| | 장현동 |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새재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뒤일 | 안산군 마유면 조현리 안산군 마유면 장상리 |
| | 장곡동 |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긴마루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섬말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매꼴 | 안산군 마유면 장하리 안산군 마유면 도촌리 안산군 마유면 응곡리 |

*정왕동은 정왕본 · 1 · 2 · 3 · 4동의 5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있으며, 정왕본동에는 법정동인 죽율동이 속해 있다.

1936년 4월 1일에 서울의 확장책에 따라 영등포·당산·양평리와 북면을 서울시에 넘겨 주었고, 1949년 8월 14일에 동면의 구로·대림·번대방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이어 1963년 1월 1일에 동면의 시흥·독산·가리봉·봉천·신림리와 신동면의 전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되었고, 화성군 일왕면(日旺面)의 9개리가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따라 반월출장소가 설치됨과 동시에 수암면의 고잔·부곡·월피·양상·성포·와리와 군자면의 원곡·선부·원시·신길·성곡·목내·초지리가 반월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1982년 6월 10일에 과천면이 과천출장소로 되었고, 1980년 12월 1일에 의왕면은 의왕읍으로, 소래면은 소래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15일에 소래읍 옥길리 일부는 광명시에, 계수리 일부는 부천시에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 군포읍이 군포시로, 의왕읍과 동부출장소가 의왕시로,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이 시흥시로 승격하였다. 시 승격 당시 시흥시는 대야·신천·신관·은행·매화·안산·목감·거모·정왕동 등 9개의 행정동에 33개 법정동으로 편제되었다.

시흥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많은 행정 구역 변동이 있었다. 우선 1991년 1월 15일에 중림·연성출장소가 개소된 뒤, 같은 해 9월 1일에 중림출장소는 중림동으로, 연성출장소는 연성동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1992년 1월 1일 신관동이 신현동으로, 중림동이 과림동으로 동명을 개칭하였고, 이어 1994년 7월 1일에 거모동이 군자동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4월 20일에 안산동의 수암동·장상동·장하동 전 지역과 화정동의 너빌·고주물 지역이 주민투표를 거쳐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1995년 11월 15일에는 무지동의 동명이 무지내동으로 개칭되었다. 시화지구 개발로 정왕동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1999년 9월 27일에는 정왕동이 정왕1동과 정왕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2002년 3월 2일에는 정왕1동과 정왕2동이 다시 정왕 1·2·3·4동으로 분동되었다. 2003년 12월 23일 정왕1동이 정왕본동과 정왕1동으로 분동되어 2005년 12월 현재 시흥시는 14개 행정동에 30개 법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흥시 성립 이후의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시 승격 이후 행정구역 변경〉

| 1988년 | | 1989년 | | 2005년 | |
|-------|-----|--------------|---------------|----------------|---------------|
| 읍·면 | 리 | 행정동 (8개동) | 법정동 (33개동) | 행정동 (14개동) | 법정동 (30개동) |
| 군자면 | 거모리 | 거모동 | 거모동 | 군자동 | 거모동 |
| | 군자리 | | 군자동 | | 군자동 |
| | 월곶리 | | 월곶동 | | 월곶동 |
| | 장곡리 | | 장곡동 | 연성동 | 장곡동 |
| | 장현리 | 장현동 | 장현동 | | |
| | 정왕리 | 정왕동 | 정왕동 | *정왕동 | 정왕동 |
| | 죽을리 | | 죽을동 | | 죽을동 |
| 소래읍 | 과림리 | 매화동 | 과림동 | 과림동 | 과림동 |
| | 무지리 | | 무지동 | | 무지내동 |
| | 도창리 | | 도창동 | 매화동 | 도창동 |
| | 금이리 | | 금이동 | | 금이동 |
| | 매화리 | 매화동 | 매화동 | | |
| | 계수리 | 대야동 | 계수동 | 대야동 | 계수동 |
| | 대야리 | | 대야동 | | 대야동 |
| | 신천리 | 신천동 | 신천동 | 신천동 | 신천동 |
| | 안현리 | 은행동 | 안현동 | 은행동 | 안현동 |
| | 은행리 | | 은행동 | | 은행동 |
| | 미산리 | 신관동 | 미산동 | 신현동 | 미산동 |
| | 방산리 | | 방산동 | | 방산동 |
| | 포 리 | | 포 동 | 포 동 | |
| 하중리 | 하중동 | | 연성동 | 하중동 | |
| 수암면 | 논곡리 | 목감동 | 논곡동 | 목감동 | 논곡동 |
| | 목감리 | | 목감동 | | 목감동 |
| | 물왕리 | | 물왕동 | | 물왕동 |
| | 산현리 | | 산현동 | | 산현동 |
| | 조남리 | | 조남동 | 조남동 | |
| | 광석리 | | 광석동 | 연성동 | 광석동 |
| | 능곡리 | 능곡동 | 능곡동 | | |
| | 하상리 | 하상동 | 하상동 | | |
| | 화정리 | 화정동 | 화정동 | | |
| | 수암리 | 안산동 | 수암동 | 안산시(화정동 일부 포함) | |
| | 장상리 | | 장상동 | | |
| | 장하리 | | 장하동 | | |

제2장

행정동 연혁

제1절 대야동(大也洞)

대야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과림동, 서쪽은 신천동, 남쪽은 은행동, 북쪽은 부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9.36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한다.

대야동은 1989년 시흥시가 출범하면서 계수동과 대야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개칭하였다. 동사무소는 대야동 491-3번지에 있다. '대야'라는 동명은 동의 서쪽으로 소래산이 있는데 이 산 아래 있는 큰 마을이라 하여 '대야동'이라 불리던 자연마을 이름에서 따왔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3만 7,859명으로 남자가 1만 9,334명, 여자가 1만 8,525명이며, 1만 3,254세대이다.

제2절 신천동(新川洞)

신천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며, 동쪽과 북쪽으로 대야동, 서쪽으로 인천시, 남쪽으로 은행동·신현동과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3.43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신천동은 시흥시 전체 인구의 11.5% 정도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며, 은행동·정왕동·연성동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주거·상업·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였다. 동사무소는 신천동 765-5번지에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인천부 신현면의 '신촌리'와 '사천리'가 합쳐져 이루어진 마을로, 이름에서 각 한 자씩을 따 '신천리'라고 한 데서 동명이 유래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4만 4,402명으로 남자가 2만 2,755명, 여자가 2만 1,647명이며 1만 6,122세대이다.

제3절 신현동(新峴洞)

신현동은 시흥시의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은행동과 매화동,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쪽으로 연성동과 군자동, 북쪽으로 신천동과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12.79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9.8%를 차지한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미산동·방산동·포동·하중동을 관할하는 '신관동'으로 개칭

하였다. 1991년 1월 15일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 제230호에 따라 하중동이 연성출장소로 분소하였다. 1992년 1월 1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82호에 따라 신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사무소는 포동 20-33번지에 있다.

신현동은 본래 인천부 신현면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관할동인 포동의 중심이 되는 새우개 마을이 신현면의 순한글 표현이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동명을 신현동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1만 2,916명으로 남자가 6,685명, 여자가 6,231명이며 4,684세대이다.

제4절 은행동(銀杏洞)

은행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동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의 과림동에서 시계 방향으로 매화동, 신현동, 신천동의 순으로 둘러싸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은 6.8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한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안현동과 은행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개칭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법정동 은행동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동사무소는 은행동 113-9번지에 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던 큰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리'라 불리던 마을 이름에서 동명이 유래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3만 2,966명으로 남자가 1만 6,638명, 여자가 1만 6,328명이며 1만 470세대이다.

제5절 매화동(梅花洞)

매화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북동쪽에 위치한다. 동쪽의 과림동에서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목감동, 연성동, 신현동, 은행동 순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체 면적은 11.18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한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과림동·금이동·도창동·매화동·무지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었으나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 제230호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중림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과림동과 무지동이 분리되어 나갔다. 동사무소는 매화동 77-1번지에 있다. 마을의 지형이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이라 하여 '매화동'이라 한다는 법정동 매화동의 지명에서 행정동명이 유래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1만 4,006명으로 남자가 7,135명, 여자가 6,871명이며 4,861세대이다.

제6절 목감동(牧甘洞)

목감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동쪽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 안양시, 남쪽으로 안산시, 서쪽으로 연성동, 북쪽으로 매화동과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17.58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13.1%를 차지한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논곡동·목감동·광석동·능곡동·조남동·산현동·물왕동·하상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개칭하였다.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 제230호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광석동·능곡동·하상동이 연성출장소로 분소하여 관할 법정동이 축소되었다. 동사무소는 조남동 171-3번지에 있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 '목암사(牧岩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경내의 단감나무가 유명하였다고 한다. 절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자 목암사의 '목'자와 단감나무의 '감'자를 따서 '목감'이라 했다는 데서 동명이 유래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1만 2,952명으로 남자가 6,615명, 여자가 6,337명이며 4,763세대이다.

제7절 군자동(君子洞)

군자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서남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연성동, 북서쪽으로 인천광역시, 서쪽으로 정왕동, 남쪽으로 안산시와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18.43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13.7%로 14개 행정동 가운데 가장 넓으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거모동·군자동·월곶동을 관할하는 행정동명은 거모동이였다. 군자동에 있는 군자봉에서 유래된 '군자'라는 지명이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이후 시흥시 출범 전까지 사용되어 왔으므로 동의 개칭 당시에 동명을 '군자동'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근 안산시에 이미 군자동이 있어 3개 법정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았던 거모동을 동명으로 정했다. 1994년 1월 1일자로 안산시 군자동이 원곡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374호에 따라 군자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사무소는 거모동 1660-2번지에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3만 8,594명으로 남자가 1만 9,931명, 여자가 1만 8,663명이며 1만 4,743세대이다.

제8절 정왕동(正往洞)

정왕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서남쪽에 위치한다. 동쪽과 북쪽은 군자동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정왕동과 죽율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개칭하였으나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5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었다. 1999년 9월 27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575호에 따라 정왕1동·2동으로 분동되었다. 2002년 3월 2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제694호에 따라 정왕1동·2동이 정왕1동·2동·3동·4동의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었고, 2003년 12월 23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제764호에 따라 정왕1동이 정왕본동과 정왕1동으로 분동되었다. 죽율동은 정왕본동에 속한다. 이 지역에 있던 정왕산은 조선시대에 봉화대가 있을 만큼 군사적 요지였으므로 여기를 왕래하는 사람은 모두 공직자란 의미에서 '정왕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산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자 '정왕리'라 하였다고 하는데 정왕동의 동명은 여기서 유래한다. 정왕산은 시화지구 건설 당시 토취장으로 사용되어 없어졌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왕동의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왕동 인구 현황〉

| | 인구수 | 남자 | 여자 | 세대수 | 면적 |
|------|--------|--------|--------|--------|------------------------------------|
| 정왕본동 | 21,656 | 12,680 | 8,976 | 12,747 | 6,56km ² (시흥시 전체의 9.6%) |
| 정왕1동 | 33,660 | 19,014 | 14,646 | 16,188 | 6,55km ² (시흥시 전체의 4.5%) |
| 정왕2동 | 37,968 | 19,443 | 18,525 | 12,669 | 6,94km ² (시흥시 전체의 4.2%) |
| 정왕3동 | 25,125 | 13,104 | 12,021 | 9,152 | 7,39km ² (시흥시 전체의 5.6%) |
| 정왕4동 | 26,061 | 13,151 | 12,910 | 8,065 | 4,59km ² (시흥시 전체의 3.5%) |

제9절 과림동(果林洞)

과림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은 7.7km²으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5.9%를 차지하며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동쪽은 목감천을 경계로 광명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은 매화동, 서쪽은 은행동, 북서쪽은 대야동과 접해 있다.

과림동의 관할 구역인 법정동 과림동과 무지내동은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매화동 관할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 제230호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중림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과림동과 무지내동이 매화동에서 분리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82호에 따라 중림출장소가 중림동으로 승격하였다. 1992년 1월 1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91호에 따라 중림동의 명칭이 과림동으로 변경되었다. 동사무소는 과림동 490-11번지에 있다.

과림동의 첫 동명인 '중림'은 출장소가 설치될 당시 출장소 건물이 중림마을에 위치하여 붙여진 것이었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91호에 의거하여 '과림'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2,574명으로 남자가 1,462명, 여자가 1,112명이며, 1,191세대이다.

제10절 연성동(蓮城洞)

연성동은 시흥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매화동, 동쪽으로 목감동, 남쪽으로 안산시, 남서쪽으로 군자동, 북쪽으로 신현동과 경계를 이루며 둘러싸여 있다. 면적은 16.1 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12.2%를 차지하며 14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다.

1989년 시흥시 출범 당시 연성동은 개칭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1월 15일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 제230호에 따라 연성출장소를 설치하면서 목감동 관할의 광석동·능곡동·하상동과 안산동 관할의 화정동, 신관동 관할의 하중동, 거모동 관할의 장곡동·장현동이 분소하였다. 1991년 9월 1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82호에 따라 연성출장소는 연성동으로 승격하였다. 동사무소는 장현동 272-9번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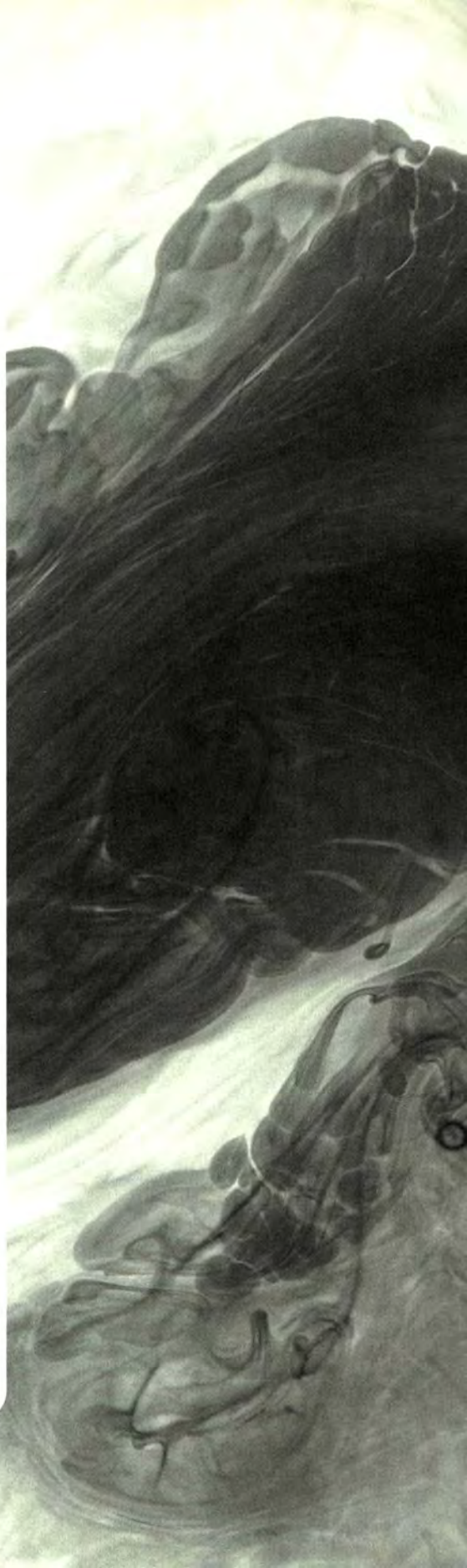
'연성'이라는 동명은 관할 법정동인 하중동의 관곡지(官谷池)와 관련된 지명이다. 조선 전기에 강희맹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가져온 연꽃 씨를 관곡지에 재배하여 전파하였다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안산군의 별호가 '연성'이 되었다고 한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동명을 '연성'으로 지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4만 6,500명으로 남자가 2만 3,154명, 여자가 2만 3,154명이며 1만 4,693세대이다.



시흥시 위성지도

제 II 부 / 지명유래

- 제1장 대야동
- 제2장 신천동
- 제3장 신현동
- 제4장 은행동
- 제5장 매화동
- 제6장 목감동
- 제7장 군자동
- 제8장 정왕동
- 제9장 과림동
- 제10장 연성동



大也洞

제1장 대야동

제1절 대야동

제2절 계수동



제1절 대야동(大也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대야동이였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서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동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시흥군에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대야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대야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대야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대야동의 전체 인구는 3만 6,818명으로, 남자 1만 8,764명, 여자 1만 8,054명이며 1만 2,828세대이다.

대야동 서편에 소래산이 있는데, 이 산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 하여 '대야리'라 칭하였으며, '대골'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과거 대야동에는 방아다리·아랫대야리·여우고개·웃대야리·쟁골·하우고개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一里(추정) | 大也洞 | 大也里 | 大也洞 |

● 방아다리[方牙橋·春橋]

웃대야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말엽에 물방아가 있었다고 전한다. 경주 이씨 세거지이다. 마을 앞을 지나는 길에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갈라진 모양이 디딜방아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방아다리의 방아는 당나귀가 끌어서 사용하는 물방아였다. 물방아가 있을 때만 해도 방아다리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방아가 없어지면서 느티나무도 같이 사라졌다.

● 아랫대야리[下大也里]

대야동을 '웃대야리'와 '아랫대야리'로 나누는데, 자동차학원을 경계로 위쪽은 웃대야리, 아래는 아랫대야리라고 한다. 아랫대야리는 신천동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대야초등학교·전력공사·시장이 있는 지역이다.

경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도 경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웃대야리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아랫대골'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상여도가가 있어 초상이 나면 웃대골·아랫대골·방아다리·쟁골에서 지금의 한국가스공사 밑에 있던 상여도가에서 상여를 가져다가 상을 치렀다. 지금은 상여를 쓰는 일이 없어서 상여도가는 사라지고 없다.

● 여우고개[狐峴]

시흥시와 부천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험하고 나무가 많고 후미져서 여우가 많이 나타나는 고개였는데, 개발이 되면서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자 고개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여우고개에는 "여우에 홀려 밤새 헤매고 다녔다" 또는 "여우가 지나가는 사람을 놀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인근의 하우고개에 비해 험하지 않아 하우고개를 이용하던 웃대골 사람들도 마차나 손수레 등을 이용할 때에는 여우고개로 다녔다고 한다.

● 주축마을

웃대야리의 맞은편 마을로 여우고개 아래에 위치한다. 5·16쿠데타 후, 주체 세력 중 일부가 예편할 때 정부에서 주택·우사·땅을 주어 10가구를 이곳에 정착시켰다. 당시에 그들이 소를 길렀기 때문에 '주축마을'·'주축부락'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대부분 다시 외지로 이주했다고 한다.

● 웃대야리[上大也里]

소래자동차학원 위쪽으로 부천과 경계를 이루며 쟁골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대야동의 위쪽이라 하여 '웃대야리'라 부르고 있는데, '웃대골'이라 칭하기도 한다. 경주 이씨와 김해 김씨의 세거지로 현재는 김해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상여도가 있던 자리



옷대야리



하우고개로 가는 갈림길



옷대야리 맞은편 안산

● 쟁골

아랫대야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언양 김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 말엽 이곳에 재궁이 있어 '재궁골' 또는 '제안골' 이라고도 했는데, 점차 이름이 변하였다. 옛날에 농악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서너 명 살아서 '쟁골' 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 하우고개

부천시 심곡1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하우고개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인천시 가좌동에 살던 황종희가 1937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우고개는 높고 험해서 이 고개를 넘자면 숨이 차서 '하우~하우'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로 옷대야리 거주자들이 소금·김치·나무를 서울·부천 등지로 팔러 나가기 위해 왕래하던 길이었는데, 좁은 고개길을 일제강점기 말엽에 넓혔으며 1988년에 포장하였다.

● 안산

옷대야리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이 산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가 옷대야리에서 보이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나무를 해도 그 바위 근처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위의 이름은 모르지만, 안산에 있는 바위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

● 견낭골

농박골 앞(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고염나무와 감나무가 많았으며 현재는 향나무가 많다.

● 구래우물

아랫대야리에 있던 우물이다. 아랫대야리의 대동우물이었으나 1980년대 초 소래읍 구획정리 때 없어졌다.

● 구름산

대야동과 부천시 및 인천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소래 지역에 비가 오려면 먼저 이 산에 구름이 낀다고 한다.

● 구름산골

구름산 아래로 캠프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좁고 짧다.

● 너물목

아랫대야리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여우가 울면 대야동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속설이 있다.

● 농바위

농박골 안에 있는, 장롱처럼 생긴 바위이다.

● 농박골

하우고개와 옷대야리 중간으로, 유격장이 있는 곳이다. 이 골짜기에 농바위가 있다.

● 농박골우물

제덕골우물에서 북쪽으로 약 130m 지점에 있는 우물이다. 조선 말엽에 대야동 주민들이 물당을 짓고 물장사를 했다고 한다.

● 대야교

대야대교에서 하우고개로 진입하는 곳에 있다. 길이 7.1m, 폭 4.6m의 다리이며 1985년 6월 25일에 준공되었다. 대야교가 생기기 전에는 하우고개에서 대야교 지점까지 길이 S자로 생겨서 사고가 잦았다.

● 대야대교

옷대야리와 여우고개 및 하우고개의 3각 교차 지점에 있는 다리이다. 길이 12.4m, 교폭 10.8m로 1980년대 초에 준공되었다.

● 도당골

방아다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서 대야리 주민들이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도당제를 지냈는데 마을의 소가 원인 모르게 죽자 중단되었다고 한다.

● 동이점골

견낭골 옆(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 말엽에 동이를 굽던 곳이라고 한다.

● 떼기고개

방아다리와 부천시 소사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이곳은 후미진 곳이어서 도깨비가 많았다고 한다.

● 벽장골

벽장(壁穢)처럼 생긴 골짜기로 탑상골 아래에 있다. 호랑이가 많았다 하여 '호랑이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 병풍바위 · 장군바위

소래산 정상과 내원사 사이에 있다. 절터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바위로 가로 45m, 세로 15m의 거석(巨石)이다. 바위가 크므로 일명 '탱크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이 바위에 가로 4.3m, 세로 13.7m의 크기로 여래입상이 음각되어 있는데,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최대의 마애불이다.

● 서낭당터

예비군 훈련장 중앙이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가 1960년대에 없어졌다고 한다.

● 선바위

선박골에 있는, 서 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이다. 옷대야리에서 도둑질을 할 때 이 바위에서 망을 봤다고 한다.

● 선박골

하우고개와 여우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바위가 서 있어 '선바위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선박골'이 되었다. 골짜기가 작다.

● 소내골

병풍 바위 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작으며 바위가 많다.

● 소래산

'소래'란 지명의 유래는 소라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냇가에 숲이 있어 '솔내[松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지형과 관련하여 좁다는 의미의 '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등 여러 설들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 7년(660)에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군사를 친히 이끌고 백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중국 산둥성의 내주(萊州)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 산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소정방의 '소(蘇)'자와 내주의 '내(萊)'자를 합쳐 '소래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래산 산신령은 여신령이라 영험하다고 해서 무당들이 와서 소래산 신령에게 제를 지내기도 한다. 소래산 때문에 신이 내린 사람이 많이 있지만 현재 토박이 중에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소래산 때문에 외부에서 무당들이 많이 들어와 제를 지낸다고 한다. 소래산 신령이 여신령이라 남자들이 오래 못살고 초상이 나도 꼭 쌍초상이 나며 여기에 빈 몸으로라도 들어온 사람은 잘살지만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못살게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소래산무당골

소래산 중턱의 장군바위 근처에 있는 곳터이다. 이곳은 시흥 지역은 물론 부천이나 광명

등지의 많은 무속인들이 찾고 있다. 2005년 11월 14일, 시흥시 무속인·법사·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소래산 신령에게 시흥의 번영과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자신의 소원도 함께 비는 산신제를 올렸다.

원래 산신제는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는 정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요즘은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산신제를 지내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차를 사게 되면 막걸리·팥·소금·냉수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 소래산약수

소래산 중턱에서 나는 약수이다. 이 약수터에 절이 있었는데 1950년대에 폐사되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앓은뱅이가 이 약수를 마시고 일어섰다고도 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약수는 마르지 않으며, 이곳 우물 세 개를 치우고 나면 여지없이 비가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소래산마애상

경기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또는 장군바위) 암벽에 선각(線刻)되어 있다. 구전에 따르면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이곳 소래산에 왔다가 자신이 천하제일의 장군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바로 마애석불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때 영국 군인들이 옷대야리 방앗간에서 대포를 쏘았으나 바위 양편만 손상되었을 뿐 불상은 아무 피해도 없어 영험한 바위라 하여 일 년 내내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높이 14m, 보관 높이 1.8m, 발길이 1.24m, 발톱길이 15cm, 귀 1.27m, 눈 크기 50cm, 입 크기 43cm, 머리 높이 3.5m, 어깨 너비 3.75m의 거불(巨佛)로 우리나라 석불 조각에 있어서 최대에 속한다.

시흥군지편찬위원회가 1988년 7월 1~31일에 명지대학교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탁본을 하였고, 소래읍민들의 협찬으로 1988년 9월 14일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때 소래읍 신천리 노변에 전시하였다.

● 소래산 우사단지(雨祀壇止)

우사단은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을 지칭한다. 우사단이 소래산에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인천부의 주산(主山, 鎭山)이었기 때문이다. 우사단지는 대야동사지와 대야1동 노인회관 사이에 있는 약수터에서 남쪽으로 약 40m 지점에 있다. 대야동 주민들은 이 일대를 '제터골[祭址谷]'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에 따르면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대야동 주민들이 한재(旱災)가 있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신사터**

모래골고개 정상으로 대한주유소 길 건너 모래산 중턱에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하던 곳이다. 광복이 되자 주민들이 신사는 물론 비석 등도 파괴하였다.

● **우물고개**

동이점골과 동방교 사이에 있다. 고개 중턱에 우물이 있다.

● **웃골**

방아다리과 쟁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평창 이씨 선대의 묘가 있다. 쟁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웃골'이라 칭한다.

● **원수골우물**

병풍바위 밑(동쪽)에 있는 우물로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앓은뱅이가 이 물을 마시려다가 떨어져 죽어 원한을 가진 우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잔소란봉**

아랫대야리 앞(동쪽)에 있는 산으로 잔 소나무가 많아 '잔소란봉'이라 부른다. 이곳에 경주 이씨 선대의 묘가 있는데, 상여가 지나가면 풍수상 좋지 못하다 하여 산 사이에 있는 고갯길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 **절터**

병풍바위에서 동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백제 때 창건한 사찰이 있었으나 물이 모자라 폐사되었다고 한다.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과 1988년 명지대박물관팀에 의해 기초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백제 와당 등이 출토되었다.

● **절터우물**

절터 밑에 있는 우물로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 **재턱골우물**

웃대야리와 절터 우물 사이에 있다. 대야동 주민들이 제사에 사용하던 우물이라고 한다.

● **탐상골**

병풍바위 아래(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에 탐이 있었으므로 그 인근을 '탐상골'이라 부른다.

● **호랑이굴**

소래산 병풍바위 북쪽에 있는 굴로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제2절 계수동(桂壽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황등천면의 오리·육리·칠리였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계수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계수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대야동에 속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1,041명으로 남자 570명, 여자 471명이고 426세대이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의 인천부 황등천면에 속한 5리 계일(桂日), 6리 수로곡(壽老谷)·구미(九美)·가일(佳日)·건지정(乾井里, 건주물)·고공리(古孔里), 7리 내곡(內谷, 안골)·후곡(後谷, 뒷골)·덕석곡(德石谷, 덕석골) 등이 계수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계수동은 이 가운데 계일의 '계'와 수로곡의 '수'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1912년 | 1989년 |
|----------|-------|-------|
| 五里·六里·七里 | 桂壽里 | 桂壽洞 |

● 가골[佳谷]

대야동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여우고개 정상 부근 주유소 우측의 음식점들이 많은 곳으로, 수로골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본래 덕수 이씨의 선산지로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 늑대 · 여우 등이 많아 인근의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오지였다고 한다. 가골에 마을이 형성이 된 때는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 용진 · 벽성 등지의 난민들이 정착한 이후이다.

● 가일(佳日)

사시사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자리잡은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가일' 이라 부르고 있다. 경주 이씨와 전주 이씨가 오래 살아온 마을로 동쪽을 '큰가일', 서쪽을 '작은가일' 이라 부른다.

● 건지물[乾支井]



건지물 입구

고갱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고갱이는 마을의 초입에 해당된다. 이곳은 창원 황씨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황촌말' 이라 부를 만큼 창원 황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는 창원 황씨 외에도 전주 이씨와 김해 김씨 등이 세거해 왔다. 땅이 건조하고 물이 귀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 마을 뒷산에 쥐뿔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를 묶어두던 나무였다고 한다.

쥐뿔나무가 크고 구멍이 있어서 도깨비가 논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왔는데 약 20년 전에 고사했다.

● 계일(桂一)

부천시 계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청주 한씨, 함평 이씨, 창원 황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청주 한씨와 함평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음 두 설이 있다. 이 마을 출신 중에 진사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겸손해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를 중국 진나라의 치선(郗詵)이 현량제일(賢良第一)로 천거되자 겨우 계림(桂林)에서 한 가지를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 '계림일지(桂林一枝)' 에 비견된다고 하여 '계일' 이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조선시대 청주 한씨 문중에 높은 관직을 지낸 한언이라는 인물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자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밋자리를 주라는 명을 내리고, 그를 제일 가는 신하라 하였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계일' 로 했는데 점차 음이 '계일' 로 변하였다고도 한다.

본래 계일은 '웃계일' 과 '아랫계일' 의 두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아랫계일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서로 혼동이 되자, 광복 후 계수초등학교 교사들이 편의상 서쪽을 '구석계일'이라 부르고, 동쪽은 '아랫계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웃계일은 부천시 계수동이다.

● 고갱이[高孔里·高桂里]

조선시대에는 '고공리'라 불리던 마을이다. 조선 중엽에 이순이라는 인물이 처음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건지물에 속했는데 마을이 분리되면서 건지물은 '건지동', 고갱이는 '고강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건지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갱이

● 구미동(九美洞)

조선시대에 서해의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이 물가이기 때문에 '구미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마을이다. 덕수 이씨 족보 등에는 '귀임리' 또는 '구음리'라 되어 있다.

수노골 동쪽과 고갱이 서쪽에 있으며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 위치한 마을이다. 구미고개 아래에 위치하며 박씨가 처음 세거한 마을이라 하여 '박촌'이라 부르고 있다. 구미동은 덕수 이씨와 경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덕수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구미동

● 덕석골[德石谷]

계수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풍수로 보면 과림동 길마봉에서 길마를 벗기고 삼시들(부천시, 신천동, 계수동 안골을 잇는 삼각 교차점)에 있는 쇠옹덩이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이 마을에서 덕석을 벗기는 형국이라고 한다. 마을에 큰 돌이 있어 '덕석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덕석골

● 뒷골[後谷]

계수초등학교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골 뒤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임씨가 처음 세거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후곡'이라 하였다.

● 수노골[壽老谷]

구미동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서쪽을 '웃말'이라 부르고, 동남쪽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인근에서는 제일 먼저 형성된 마을이며 물이 좋아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수노골



안골



안골 고인돌

경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도 경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수노골 북쪽 신오도로 옆에 있는 마을은 일제 때 이규석이 수노골에서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를 하면서 포도를 재배하였는데 그 후부터 '과수원'이라 부르고 있다.

● 안골[内洞·内谷]

마을이 산을 끼고 오목하게 들어앉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내동', '내곡동'이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안골'이라 불린다. 인근 과림동에 중림역이 생기면서 마을이 번성하였는데, 조선 중엽에 중림역에서 활쏘기 대회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구경을 간 사이에 민가가 화염에 휩싸여 그 후에 다시 재건된 마을이라고 전한다.

● 삼신우물[三神井]

안골 능밑 북쪽에 있던 우물로 부녀자들이 아이를 얻고자 삼신할머니에게 빌던 곳이다.

● 황금동(黃金洞)

계수동 575번지 일대로 산이었던 곳을 건지물 출신 황기연이 1963년에 개척한 마을이다. 가골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황금동이란 마을 명칭은 황기연의 '황'자와 그의 부인 김씨의 성(姓)을 딴 것으로, 황금마을을 이룩하겠다는 뜻이다.

● 계수저수지

구미동 서남쪽으로 수노골의 동남쪽에 위치한 저수지이다. 몽리 면적 225.6ha에 계획 저수지량은 22만 7,000t이며, 제방은 길이 165m, 높이 6.9m, 폭 3.6m이다. 저수지의 정식 명칭은 '소래저수지'이다.

● 계일고개

가골과 구석계일 사이에 있는 고개로, 비포장 소로이다.

● 가일고개

진지물과 작은가일 사이에 있는 고개로 가일에서는 '건지물고개'라 부른다. 비포장의 좁은 길이다.

● 가일논

큰가일 앞(남쪽)에 있는 논으로 샘물이 잘 나와 아무리 가물어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옥답이다.

● 건응정들

계수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들로 농지가 건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경사나골

가일 긴골에서 동북쪽으로 산등성이를 넘어 경사진 곳에 위치한 산골이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위치한 마을이 안골이다.

● 공동묘지고개

작은가일과 구미동 사이를 왕래하는 비포장 소로를 말한다.

● 과녁밭

안골 마누들 서남간으로 조선시대에 안골 주민들이 활쏘기 연습할 때 목표로 쓰는 과녁이 있었다 하여 '과녁밭'이라 부르고 있다. 신안 주씨 선대의 묘가 있다.

● 광산

가골 서쪽에 위치한 산등성이로, 1950년대 이곳에서 채광(철광)을 했었다.

● 구래논

가일에 있는 논으로 타작모퉁이 남쪽에 있다. 수답으로 토질이 좋아 수확량이 많다.

● 구미고개

삼시고개 서쪽으로 고갱이와 구미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1987년에 포장되었다.

● 구석골

안골 동쪽의 구석진 골짜기로 진주 류씨 후손 중에 적성현령을 지낸 류응상(柳應詳)의 묘와 향나무가 있는 곳이다.

● 긴골

큰가일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일에서 제일 긴 산골이다.

● 넘말고개

구석계일과 웃계일 아랫말(현 부천시 계수동)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이다. 웃계일과 연계되는 큰 길이 생기면서 이용되지 않는다.

● **노적봉**

구석계일 남쪽에 있는 낮은 산으로 노적가리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능밀**

안골 남쪽에 위치하며 조선시대에 이곳에 능을 쓰러다가 주산(主山)이 약해서 쓰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안골 주민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 하여 일명 '니나니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 **도당골**

삼시고개와 구미고개 사이 신오도로에서 북쪽으로 수녀원이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는 논과 밭으로 변모되었다.

● **돌바위**

구미동 서쪽 개울에 있는 바위로, 이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피부병에 특효가 있는 약수라고 한다.

● **동그란산**

고갱이와 삼시고개 사이에 있는 야산으로, 산의 모습이 동그랗게 생겼다.

● **뒷골**

동그란산 북쪽의 고갱이 뒤에 있는 산골로, 1900년대까지 마을이 있었다가 폐동되었다.

● **디디물작**

구미동 박촌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야산을 가리킨다.

● **때기고개**

가골과 부천시 소사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비포장 소로이다.

● **마누들**

안골 원산들 서쪽에 있으며 논 주변 약 2,000여 평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 **만명산**

덕석골 뒤(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일명 '마명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 **매잘골**

가일 경사나골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의 서식처였다 하여 '매잘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 골짜기를 넘으면 과림동 중림이다.

● **모래자리는**

가일 장승거리 남쪽 개울가에 있는 논이다. 옛날에 갯벌이었던 곳이 논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봉재산

안골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화새가 울어 '봉재산' 이라 부르고 있다. 정월 대보름에 이 산에 올라 달을 쳐다보고 벼단을 태우고 있다가 '다림절 다림절(달님 절이요, 달님 절이요)' 하면서 절을 했다.

● 산소밀에

계수저수지 서쪽에 경주 이씨 선대의 묘 3기가 있는 곳을 말한다.

● 삼시고개

신천동과 서울 오류동을 연계하는 산업도로에 있는 고개이다. 계수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하며 고개가 초입과 덕석골 사이에 있다. 이 고개에는 도둑이 들끓어 삼십 명 이상이 모여서 떼를 지어야 넘을 수 있는 고개였다고 한다. 원래 '삼십고개' 였으나 점차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1987년에 경사도를 낮추고 포장하였다.

● 삼시들

계수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다. 부천시·신천동·안골을 잇는 삼각 교차 지점 주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삼신우물

안골 능밑 북쪽에 있던 우물로 예전에 안골 부녀자들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께 빌었다고 한다. '만나무까지' 라 부르기도 한다.

● 삼태골

상아산 서북쪽에 위치한다.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긴 골짜기로서 현재 농경지와 일부는 산골로 남아 있다.

● 상아산

구석계일 서쪽으로 노적봉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상아처럼 뾰족한 산이다.

● 새갓

안골 서쪽 마을의 동쪽을 말한다. '새(띠나 역새 같은 풀의 총칭)' 라는 풀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새갓' 이라 부른다고 한다.

● 성서방뒀골

옛 계수1리 마을회관 뒤(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창녕 성씨가 살았다고 한다.

● 성들고개

과림저수지 남쪽으로 안골 뒤 북쪽에 있다. 조선시대 어느 전란 때 군인들이 성을 쌓은 곳이라고 한다.

● 세길마루

안골 마누들과 원산들 동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앞의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며 현재는 밭으로 변모되었다.

● 소웅덩이

덕석골 삼시들 안에 있는 우물이다. 풍수로 보아 과림동 길마봉에서 소의 길마를 벗기고, 이 웅덩이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는 형국이라고 한다.

● 수노골고개

수노골과 구미 사이의 신오도로에 있는 고개이다. 1988년에 고개를 깎고 포장하였다.

● 안골고개

건지물과 안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안골에서는 '건지물고개'라 부른다. .

● 안방죽새방죽

계수초등학교 남쪽을 말하는데, 과림저수지가 설치되면서 수몰되었다.

● 안이봉들

구미동 서쪽에 있는 들로, 현재 대부분 논이고 일부는 밭으로 되어 있다.

● 앞논

수노골 앞(남쪽)에 있는 논이다. 천수답으로 수노골과 은행동 웃터골 사이에 있다.

● 앞자리논

건지물 서쪽으로 건지물과 적살둑 사이에 있는 논이다. 가물어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수답이다.

● 열마지기논

구미동 안이봉들 서쪽에 있는 논으로 10마지기 정도의 넓이라고 한다.

● 염줄골

아랫계일과 덕석골 사이 골짜기로 일명 '염주리'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일부만 골짜기로 남아 있다.

● 영당골

가골에서 동남쪽으로, 전나무골에서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개간되어 밭으로 되어 있다.

● 영당골고개

산업도로에 있는 고개로 가골 영당골과 아랫대야리를 왕래할 때 이용하는 길이다. 1984년에 고개를 깎고 1988년에 포장하였다.

● 영당골논

가골 영당골 안에 있는 논으로 천수답이다.

● 옷나무덤불

고갱이와 건지물 사이의 건지물 초입에 1960년대까지 옷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는 밭으로 바뀌었다.

● 원산들

안골 앞(동쪽)에 있는 들로, 여기의 논을 팔아서 고을 원님 자리를 샀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며 옥답이다.

● 장승거리

작은가일 남쪽 약 250m 지점으로 수리조합에서 다리를 놓았는데, 이 부근에 장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장승은 일제강점기 중엽 자취를 감추었다.

● 장승거리논

가일 장승거리 앞(남쪽)에 있는 수답이다.

● 장터고개①

수노골과 신천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계수동 사람들이 뱀내장 보러 다니던 고개인데 1988년에 포장하였다.

● 장터고개②

구석계일과 황금동 사이에 위치한 고개로, 상아산과 노적봉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개는 제일 사람들이 뱀내장 보러 다닐 때 이용했는데, 현재는 비포장 농로이다.

● 적살둑

건지물 앞(서쪽)에 있는 둑으로, 삼시고개와 구미고개 사이 논 가운데에 있다.

● 전나무골

구미동 서북쪽으로 영당골 동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예전에 큰 전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골짜기와 논으로 되어 있다.

● 중림고개

안골에서 중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질빵나무모퉁이

작은가일 서쪽 산모퉁이로 작은가일의 초입이다. 이곳에 큰 질빵나무가 1970년대까지 있었다.

● **큰가일고개**

큰가일과 작은가일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동쪽을 '큰가일' 이라 부르고 서쪽을 '작은가일' 이라 부른다. 1988년에 포장되었다.

● **타작모퉁이**

큰가일 고개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 끝 부근을 가리킨다. 예전에 사람들이 추수할 때 타작을 하던 곳이라 하여 불리던 이름이다.

● **함박고개**

웃계일과 부천시 범박동의 함박을 왕래하는 길로, 함박에서는 '계일고개' 라 부르고 있다. 1987년에 포장되었다.

● **할미골**

가일 길골 남쪽에 있다. 옛날에 이 골짜기에 어떤 할머니가 살았다는 전설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으스스한 곳으로 골짜기가 넓다.

● **향나무**

안골 동쪽으로 구석골 유응상의 묘 앞에 있다. 본래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임진왜란 때 죽었다고 전해온다. 일제 때 인근에 사는 김 모씨가 현재의 향나무 가지를 꺾어서 팔다가 패가했다고 한다.

● **황새고개**

구석계일과 웃계일 잇말 사이의 좁은 길을 말한다. 이곳은 황새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新川洞

제2장 신천동

제1절 신천동



제1절 신천동(新川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신촌리(新村里)와 사천리(蛇川里)였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신천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신천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4만 4,402명으로 남자가 2만 2,755명, 여자가 2만 1,647명이며 1만 6,122세대이다.

『조선지리지』 인천부 신현면의 신촌(스말), 사천장(蛇川場, 빙니장)이 신천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신천'은 신촌리의 '신'자와 사천리의 '천'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新村里·蛇川里 | 新村里 | 新川洞 |

● 계란마을

시흥시에서 인천 방향의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로 명진 마을의 동쪽이다. 예전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 1376~1458)의 묘 앞(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종 원년(1453)에 하연의 묘를 쓰기 위하여 지관이 현재 하연의 묘가 명당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란을 갖다 놓았더니 다음날 새벽에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 이곳이 명당임을 확인하고 그의 묘를 썼다고 한다. 그 후 하연의 후손인 진주 하씨가 묘 아래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자 '계란마을'이라 했다는 것이다. 하연의 아들 효자 하우명(河友明)의 묘가 그의 묘 부근에 있었는데, 그 묘 뒤(북쪽)에 절과 마을이 있어 '절안골'이라 부르다가 점차 음이 변하여 '계란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꽃동네[花洞]

신천연합병원 뒤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본래 농경지였는데, 1977년 서울의 성산대교를 가설할 때 양평지구 철거민 49세대가 보상비로 이곳 농경지를 일괄 매입하여 단독주택 49채를 신축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입주 후 베란다 등에 화분을 진열하고 길가에 꽃을 심는 등 마을 분위기를 꽃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인근 사람들이 '꽃동네'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 도원동(桃園洞·벌터)

조선 말엽까지만 해도 넓은 벌판이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초에 처음으로 민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광복 후에는 10여 가구로 늘더니 1980년 초에 이르러 신천지구 구획정리를 하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벌터는 현장마을로 가는 길에 있던 마을로 옛 신천3리와는 별개로 분리되었다. '벌터'란 이름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일자, 5·16쿠데타 직후 복숭아밭과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하여 '도원동'으로 개명하였다.

● 두문동

오복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밤나무가 많아 '뱅깥'이라 칭했는데, 민가가 드문드문 생기자 '두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1983년에 명성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인구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 명진(明進)마을

계란마을에 속했던 지역으로 본래 농경지였다. 1979년 정부의 취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란마을 등 신천동의 불량 주택을 옮겨 짓게 하면서 마을이 조성되었는데, 건평

30평의 2층 주택 29동이 건축되었다. 마을 이름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 밝게 전진하자는 의미의 '명진마을'이라 했다. 일명 '취락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내무부가 1979년에 실시한 취락개선마을심사에서 전국 1위로 뽑히기도 하였다.

● 문화동(文化洞)

현재 '문화의 거리'라고 불리는 마을로 신천1리에 속하던 곳이다. 예전에는 신천리의 자연마을 중 가장 경제 형편이 어려웠다. 김씨·우씨 등 세 가구가 살았다고 하여 '세집매'라 불렀는데, 1920년 3월 6일 소래초등학교가 생기면서부터 '문화동'이라 부르고 있다.

● 뱀내장터

신천동과 대야동의 경계 지역으로, 현재 신천연합병원 가는 길에 있는 교회 근처이다. '뱀내장'이 섰던 곳으로, 우시장 터는 소래농협 앞(동쪽)이고 일반 시장은 이곳에서 소래약국 앞까지 이어졌다. 이 지역에 흐르던 하천이 뱀처럼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예전에도 장터를 중심으로 주막이나 여관 등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큰 상가와 시장이 들어서서 신천동과 대야동 일대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1일과 6일에 섰던 뱀내장의 우시장은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수원장·계양장(또는 황하장) 등과 함께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규모였다. 뱀내장터는 우시장의 개설, 부천·인천·수원을 잇는 3각 교차지점인 지리적 위치, 인근에 위치한 관공서 등의 조건으로 인해 더욱 번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폐장되었다.

● 복음자리마을

두문동 북쪽에 있는 복음자리마을은 신천4리에 속했던 곳으로, 본래 복숭아나무와 배나무가 있던 과수원이 있었다. 그러나 1977년 4월 12일 서울 양평동·문래동 등 안양천 주변의 판자촌 철거민 177세대가 집단 이주하면서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철거민들은 빈민 운동을 하던 전(前) 국회의원 제정구(諸廷垢)와 미국인 존 빈센트 데일리 신부의 주선으로, 독일의 자선단체인 「MISERIO」의 도움을 받아 토지 3,000여 평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평당 8만 원의 건축비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6·9·12·15평의 집을 지어 입주를 하였다. 마을 이름은 1975년 말 제정구 씨와 데일리 신부가 서울 양평동 집에 거거할 때 김수환 추기경이 '복음자리'라 쓴 간판을 그 집에 걸어준 데서 유래한다.

● 새말[新村]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신촌리라 불렀던 마을로 두문동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본래 산 구석에 있었는데, 강도 등에 시달리다가 19세기 초에 넓은 벌판인 현재 위치로 터를 옮기면서 '새말'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본래 논이었는데 어느 해에 장마



뱀내장터



새말 노인정



신흥동



신흥동 입구

가 저서 이곳까지 흠이 들어와 몇 가구가 터를 잡은 후 마을이 형성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이천 서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김해 김씨 등이 살아 왔는데, 현재도 이천 서씨와 김해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 중간에 밭이 있어서 밭을 기준으로 북쪽을 '웃밭', 남쪽을 '아랫밭'이라 부른다.

포도농사와 논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신천동 마을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일제강점기 때 전기도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우물제를 지냈다. 새말 노인정에 있는 있던 우물은 '할아버지우물', 공장 안의 우물은 '할머니우물'이라 하여 제를 지냈는데, 마을이 개발되면서 할아버지우물은 메우고, 할머니우물만 남아 있다. 현재는 마을 토박이들이 쌀 한 되씩을 모아서 만든 '신통회'라는 친목회가 있어서 매달 25일이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 신흥동(薪興洞)

신흥동은 신천3리에 속하던 마을이다. 현재 상아아파트가 자리 잡은 곳으로 계란마을 남쪽에 위치한다. 본래 무덤 등이 있던 야산으로 토질이 붉어 '붉은덕지'라 했다. 한국전쟁 후 황해도 연백·용진 지역의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토담집을 짓고 산을 개간하는 등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자 '현장(現場)마을'이라 불렸다. 그러나 5·16쿠데타 이후 마을 이름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신흥동'으로 개칭하였다.

● 오복동(五福洞)

신천감리교회 앞(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뱀내장에 딸린 마을이었다. 예전에는 긴 울타리로 수원 나가는 행길에 집이 몇 채 있었다고 한다. 일제 때 이천 서씨를 비롯하여 평산 신씨, 연일 정씨 등 5가구가 처음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해(龍海)부리

인천시 운연동 음실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원래 있던 마을은 조선시대에 도둑과 강도 등에 시달려 폐동되었다가, 일제 때 다시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올라오던 용이 이 마을에 왔다가 소래산 호랑이(풍수로 보아 소래산이 호랑이 혈 또는 코끼리 혈이라고 함)가 으르렁대자 물러서다 용꼬리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이곳을 '용해부리'라 했다고 한다. 이는 이곳이 풍수로 보아 용혈이고, 소래산이 호랑이혈인 데서 나온 말로 풀이된다. 또 어떤 이들은 소래산은 용 머리에 해당하고, 마을은 꼬리 부분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을 가리켜 '미넘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을 너머(서쪽)에 조선시대 지중추부사를 지낸 이여발(李汝發, 1621~1683)의 묘가 있기 때문이다.

● 가능골

계란마을과 인천시 운연동 마니골 사이에 있는 산골로 골짜기가 좁고 가파르다.

● 강치정다리

명진마을 앞(남쪽)에 있는 다리로 으스스하고 후미진 곳이어서 밀도살이 성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끓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거나 비오는 날이면 지나가기를 꺼리던 곳이었다. 작은 다리였는데,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 때 토관만 묻었다.

● 내원사(內院寺)

정수장 서쪽 소래산 아래에 있는 사찰로 1976년 박현수 스님에 의해 창사되었다. '내원궁(內院宮) 도솔천', 즉 미륵보살의 처소라는 의미로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종파는 총화종이다.

● 넓적바위

일제 때 소래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외 실습장으로 이용했던 바위로 내원사 옆(동쪽)에 있었다가 1987년 정수장 건설로 없어졌다.

● 덕골

현장마을과 태광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며 대부분이 논으로 토질은 좋으나 수원(水源)이 없는 것이 흠이다.

● 된작벌

소래산 서쪽으로 가능골에서는 동쪽에 위치한다. 벌이 넓으며 참나무가 많은 곳이다.

● 방갈논

새말 번세이논 옆(동쪽)에 있다. 골짜기에 있는 작은 논으로 토질은 좋으나 수원이 짧다.

● **방아다리**

용해부리와 붉은덕지 사이의 작은 하천에 있던 다리를 말하며, 이곳 일대의 논을 '방아다리논', 골짜기를 '방아다리골' 이라 각각 칭한다.

● **뱀내주막**

뱀내장터에 있었던 주막이다. 이곳이 수원·인천·소사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행인들이 많아 주막 또한 번창했으나, 한국전쟁 후 신천동 출신의 박창복 씨의 부친이 마지막까지 영업했다.

● **뱀내하천**

대야동 하우고개에서 발원하여 옷대야리를 거쳐 방아다리→아랫대야리→신천동→방산동을 거쳐 서해에 합류되는 뱀같이 꼬불꼬불하고 긴 하천이다.

● **번세이논**

새말 동쪽에 있는 수답으로 2만여 평 규모의 벌논이다.

● **사천교**

신촌교 서쪽 약 150m 지점으로 화랑아파트 나동과 철산빌라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다리는 길이 27m, 폭 10.4m 규모이며 밑으로 뱀내천이 흐르고 있다.

● **새말다리**

삼미시장에서 신천동사무소 건너오는 길에 있는 다리이다. 연혁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새말 주민들은 그 다리를 '새말다리' 라고 부른다.

● **새말방죽논**

새말 앞(남쪽)에 있는 수답으로 토질이 좋은 논이다.

● **새뺏말밭**

새말 북쪽에 있던 토질 좋고 큰 밭으로 1987년 태양아파트가 들어섰다.

● **세집매우물**

세집매 가운데 있던 우물로 바위 틈에서 샘이 솟는데, 물맛이 좋아 마을 공동 우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3년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때 메워졌다.

● **소래교(蘇萊橋)**

신천감리교회 서남쪽으로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다리이다. 길이 30m, 교폭 10.8m로 1975년 12월 1일 착공하여 1976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1987년 교량을 넓혔다.

● **소래면사무소터**

현 소래지서 옆(북쪽) 화물주차장 자리에 1914년부터 1949년까지 있었다.

● **신천교(新川橋)**

신흥동 남쪽에 있는 다리로 길이 21m, 교폭 5.15m이다. 다리 아래로 뱀내천이 흐른다.

● **양회(洋灰)다리**

우주주택 옆(서북쪽)으로 일제강점기 때 산과 산 사이를 양회로 막아 여름철이 되면 주민들의 공동목욕장으로 이용하였다. 1970년대 주변에 목장이 생기면서 물이 오염되어 목욕장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연낙골고개**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고개로 신천동과 인천시 운연동 연낙골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낙골에서는 '신천리고개'라 부르며 1976년과 1986년에 포장되었다.

● **할아버지우물 · 할머니우물**

새말노인정 터에 있던 우물로 새말에서 음력 칠월 초하루면제를 지내던 우물이다. 이 우물은 영험하여 물이 흐려지면 마을에 초상이 났다고 하며, 상을 당하면 부고장을 할아버지우물에 제일 먼저 고하고 다른 곳에 부고를 돌렸다. 또한 상여가 지나가려면 우물을 덮은 후에야 지날 수 있었던 마을의 수호신격인 우물이었다.



할머니우물터

● **옹달우물**

태광목욕탕 뒤에 있었던 우물이다. 마을 공동 우물이었으나 1983년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때 없어졌다.

● **웃우물**

대우주택 아래(남쪽)에 있다. 세집매 위에 있어 '웃우물'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무리 추위도 물이 얼지 않는다.

● **음실고개**

벌터와 인천시 운연동 음실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로 비포장 농로였으나 한국전쟁 후 현장 마을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 **삼미시장**

신천동과 대야동의 경계에 있는 시장으로 1987년 신천동 수인산업도로변에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 4개 동에 13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시흥 시민이 이용하는 상설 재래시장이다.

新峴洞

제3장 신현동

제1절 방산동

제2절 포동

제3절 미산동





제1절 방산동 (芳山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방곡리(芳谷里)·산정리(山井里)·죽원(竹院)이었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방산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방산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신현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778명으로 남자가 438명, 여자가 340명이며, 세대수는 314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 인천부 황등천면의 산정리(산우물), 고잔(高棧), 다자동(多子洞, 다자골), 죽원(다니), 방곡(방골), 사음리(舍音里, 말음이) 등이 방산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방산'은 방곡리의 '방'자와 산정리의 '산'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芳谷里·山井里·竹院 | 芳山里 | 芳山洞 |

● 고잔동(古棧洞)

포동 신촌 서쪽의, 서해 연안에 위치한 마을이다. 한자를 빌려서 '고잔(古棧)'이라 음차 표기하는데, 고지(곶)의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마을은 중앙에서 보아 동쪽을 '웃말', 서쪽을 '아랫말', 북쪽을 '사렛말'이라 부른다. 1600년대에 전주 이씨 익양군 후손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래 순흥 안씨, 밀양 박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현재는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고잔동 전경

● 다니[竹院]

방골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조선시대에 '죽원(竹院)'이란 원이 있었는데, 그 원명을 따서 '다니'라 부르고 있다.

● 다지골[多子洞]

조선시대에 이곳 부녀자들이 운말산 정상에 있는 당집에서 아들 낳기를 빌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다안리(多安里)'라 부르기도 한다. 오랫동안 안동 추씨의 세거지였다.

● 뒷그늘

황골 서쪽에 있으며 풍수로 보아 밤나무의 뒤 그늘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조선 숙종 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이기하(李基夏, 1646~1718)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살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 마루미[宗山]

방골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서북 간에 있는 산이 금녕 김씨 충의공파 김문기 종산이므로 산명을 따 '종산'이라 부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말음이'라 하여 마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김문기의 6세 손인 김종경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 아래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현재도 금녕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마산(馬山)

고잔동 남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앞(남쪽)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말 형국이라 하여 '마산'이라 했는데, 마을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1600년대에 전주 이씨 익양군 후손들이 세거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 밤뒤

미산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풍수로 보아 밤송아리 뒤에 해당된다고 한다. 본래 농경지였는데 광복 직후 방골에 살던 하충길(河忠吉)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 방골[芳谷]

마루미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풍수로 보아 밤송아리 형국이라 '밤골' 이라 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며 '방골' 이 되었다. 서쪽을 제외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톨박이 밤송이처럼 생겼는가 하면, 안방같이 아늑한 곳이다. 창원 황씨를 비롯하여 경주 이씨, 한산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북쪽을 '웃말', 서쪽을 '아랫말' 이라 부른다.

마루미·다니·황골 주민들과 함께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도당제를 지내고 있다. 방골 뒷산(바우박이산) 꼭대기에 수백 년 된 참나무가 있어 신목으로 모셔진다. 음력 7월 초에는 우물고사를 지낸다.

● 사텃말

산우물과 고잔동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한산 이씨 선대의 묘막이다. 풍수로 보아 이곳 지형이 남자의 사타구니에 해당된다고 한다.

● 산우물[山井里]

다지골 남쪽에 있다. 마을 중앙에 대동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마을 동쪽에 있는 골바닥산으로부터 샘물이 이어졌다 하여 '산우물' 이라 했다. 마을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예전에는 인근의 고잔동·다니·다지골 주민들이 모두 길어다 마실 만큼 물 맛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안동 추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산정리였으며, 다지골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에 운말산 정상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왔다.

● 황골[項谷]

방골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풍수로 보아 밤송아리 목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마씨(馬氏)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후 유씨(劉氏)와 한산 이씨 등이 세거해왔다. 현재는 한산 이씨 한 세대만 살고 있다.



방골



황사지



고잔앞방죽

● 황사지(黃沙地)

고잔동 서남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땅이 마르고 누런 모래땅이다. 1930년대 소래염전을 만들 때 염부 숙소를 지으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 가골방죽

마루미 서쪽 끝으로 방골에서 마리니 고개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 마루미 출신 유모 씨가 바다를 막아 조성한 해담(海畚)이다. 천수답이었는데 1978년에 청룡저수지 건설로 수답이 되었다. 면적은 약 6,000여 평에 달한다.

● 개머리

오염산(똥산)과 산우물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를 지칭하며 방산동 공동묘지가 있다.

● 개미논

산우물 방죽 북쪽에 있다. 개미와 같이 좁고 길게 생긴 논으로 비가 많이 내려야 모를 낼 수 있는 천수답이다.

● 개박골

다니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풍수로 보아 개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한다. 깨진 그릇 조각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터나 절터로 추정된다.

● 고잔앞방죽

고잔 서남쪽으로 성적골 방죽 남쪽에 위치한 농경지이며 천수답이다.

● 골바닥산

산우물 동남쪽으로, 사렛말과 산우물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 아래에 한산 이씨의 묘가 있다.

● 팽과리배미

현간이는 남쪽에 있다. 팽과리처럼 둥그렇게 생겼으며 일부가 방산로에 편입되었다.

● 느탕골

황골과 미산동 구시미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느탕골우물

황골과 미산동 구시미 사이 느탕골 안에 있는 우물로 현재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 능허리고개

방골과 다지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산 능선을 따라 고갯길이 생겼으며 1984년에 포장되었다.

● 능허리골

방골 아랫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넘으면 다지골에 이른다.

● 다니고개

방골과 다니 사이에 있는 고개로 '닷박재고개' 라고도 한다. 농로로 포장되었다.

● 다니논

다니마을과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 사이에 있다. 옥답이었으나 1999년에 대부분 매립되고 일부 지역에는 축사가 건립되었다.

● 다지골고개

다지골과 산우물 사이에 걸쳐 있는 고개로, 다지골에서는 '산우물고개' 라고 칭한다. 1984년에 포장되었고 노선명은 방산로이다.

● 당재고개

다니 서쪽으로 다니와 다지골을 왕래할 때 이용하던 고개이다. 비포장의 좁은 길로 현재는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 대살미

인천으로 가는 길에 있던 다리이다. 나무 다리였으나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

● 대살미고개

신천동에서 방산동으로 가는 첫 고개이다. 이 고개가 바우박이산과 망재산 등 큰 산의 꼬리에 해당된다.

● 덕정골방죽

고잔 북쪽, 사텃말 서쪽에 있던 방죽이다.

● 덕정굴(골)

새터말 너머로 사람들이 다니던 셋길이다.

● 도당(都堂)

방골 북쪽으로 바우박이산 아래 참나무 앞에 터주가리를 세워놓고 방골·마루미·뒷그늘·황골·다니 주민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무당을 불러 도당제를 지내는 곳이다.

● 돌깐모퉁이

고잔 먼지에서부터 산 옆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산에 돌이 많아 서 이렇게 부른다.

● 동외고개



동외고개

고잔과 사택말 사이에 있던 고개이다. 1984년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었고, 이어 1997년에 아스콘으로 포장되었으며 노선명은 방산로이다.

● **두래문안방죽**

고잔 먼지방죽 북쪽에 있으며 논은 천수답이다.

● **뒷그늘들**

뒷그늘 북쪽에 있으며 '뒷그늘논'이라 부르기도 한다. 비가 와야 모를 내는 천수답이다.

● **뒷그늘길**

망재산 밑으로 나 있는 길인데 산봉우리에 가려 그늘이 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뒷그늘고개**

방산동에서 제일 큰 고개로 뒷그늘과 방골 사이에 있다. 1980년대 초에 고갯길이 포장되었다.

● **뚜껑논**

헌간이논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600평이다. 대부분 천수답이다.

● **마루미방죽**

예전에 서해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막은 해담이라고 한다. 마루미 서남쪽에 위치하며, 수답이지만 홍수가 나면 침수가 잦다. 면적은 약 2만 5,000평이다.

● **망재골**

바우박이산 줄기로 방골 웃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망재산**

방산동의 주산으로 방골과 뒷그늘 사이에 있다. 조선 말엽에 국상이 나자 마을 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보고 곡을 하였다고 한다.



망재산

● **매무골**

방골 아랫말 뒤(서쪽)에 있다. 밭과 일부는 골짜기인데 1986년 시흥군에서 잣나무를 조림하였다.

● **매봉재**

망재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매가 꿩을 잡는 형국이다.

● **먼지**

황사지 뒤쪽을 일컫는다. 땅이 가물고 샘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이라 하여 '먼지'라고 한다. 거리가 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먼지방죽

고잔 서쪽으로 덕정골 방죽의 남쪽에 있다.

● 바우박이골

바우박이산 중턱으로 도당 위(동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바베기골'이라 불린다.

● 바우박이산

황골 남쪽, 방골 동쪽에 있다. 이 산 능선에 큰 바위가 있어 '바우박이산'이라 불렸으나 일제 때 사방공사로 바위가 없어졌다.

● 밤뒤골

밤뒤와 미산동 양우재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그 일부는 밭이다.

● 밤뒤고개

밤뒤와 양우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황골·뒹그늘·밤뒤 주민들이 이곳을 거쳐 양우재 앞에서 부친 소사~안산간 버스를 이용하였다.

● 방산대교(芳山大橋)

월곶 진입로로 방산동과 월곶동에 걸쳐 있다. 총연장 300m, 교폭 20m이다. 1994년 1월 7일에 착공하여 1996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다리 이름은 2개의 마을에 걸쳐 있으면 진입하는 방향에 위치한 동명을 택하는 것이 상례라 하여 '방산대교'라고 칭하였다.

● 뱀산[蛇山]

황사지 서쪽에 있다. 돌이 많아 1933년경에 포동 염전을 조성할 때 산의 앞부분을 절개하여 석축을 쌓았다고 한다. 뱀의 머리처럼 앞쪽만 둥그렇고 뒷부분은 가늘고 길게 생겼다.

● 범배산[虎腹山]

마루미 뒤로, 대살미고개와 청룡저수지 사이에 있다. 지세가 호랑이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범배산'이라고 칭한다. 면적은 약 3정보이며 예전에는 한산이씨의 선산이었다. 방산동 산16번지이다.

● 봉우재고개

다니와 미산동 양우재 사이에 있다. 본래 농로였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 봉화재

바우박이산 동쪽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산의 능선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부흥산

대살미고개 서쪽에 있는 산으로 일명 '봉보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 사땃말고개

고잔과 사땃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1970년대에 고개를 낮추어 1984년에 포장하였다.

● 산우물고개

산우물과 사땃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1984년에 포장되었다.

● 새리내뚝

황골에서 밤뒤로 내려가는 곳에 쌓은 뚝이다.

● 새방죽

뒷그늘방죽 북쪽으로 조선 말엽에 이용구(李榕求)라는 이가 막은 방죽이다.

● 서당골

마루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서명운방죽(徐明蕓防粥)

새방죽 서쪽에 있는데 일제 중엽에 신천동 출신 서명운이 만든 방죽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성적골

두래문안방죽 동쪽에 있으며, 추계 추씨의 종산이다.

● 성적골방죽

고잔에 속한 방죽으로 두래문안방죽 북쪽에 있으며 천수답이다.

● 소당골

다니 개박골 남쪽에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밭이며 넓고 큰 골짜기이다.

● 송논

덕정골 방죽 동쪽에 있다. 면적은 약 2,000평으로 천수답이다.

● 솟돌재고개

다니, 포동 새우개, 미산동 구시미의 경계에 있다. 비포장 소로로 새우개 사람들이 소래 국민학교·소래면사무소·뱀내장을 왕래할 때 이용하는 고개였다. 포동 산1번지이다.

● 쑥뒤고개

방골고개 중턱으로, 절골 뒤에 있는데 약쑥이 많았다고 한다. 황골과 미산동 구시미를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인데, 1998년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 안도(雁島)방죽들

황골과 신천동 사이에 있는 들로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이곳에까지 들어올 때 기러기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곳이 기러기가 앉은 형국이라 한다.

● 안살미골

방골 웃말 앞(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을 넘으면 웃골에 이른다.

● 오능골

다니와 미산동 구시미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 오리나무골

황골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로 습지여서 오리나무가 무성해 붙여진 이름이다.

● 오리나무골우물

뒷그늘 오리나무골 안에 있는 우물로 물맛이 좋고 차서 뒷그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다.

● 오염산

산우물 서쪽에 있다.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섬산'이라고 불렀으며 외지인들은 '똥섬'이라고 칭한다. 방산동 산1번지에 위치한다.

● 용봉산

마루미 동쪽에 있으며 금녕 김씨의 종산이다.

● 용해논골

마루미 서남쪽에 있는 삼태기처럼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이다.

● 우묵골

방골 동북쪽에 있으며 삼태기처럼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이다.

● 웃골

다니 동북쪽에 있는데 다니 위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웃골'이라 칭한다.

● 웃말산

산우물 동쪽으로, 산우물 웃말에 위치한 산이다. 본래 적산이었는데, 근래에 모 회사 사장이 매입했다고 한다. 산 정상에서 산우물과 다지골 주민들이 해마다 정월 14일에 당제를 지낸다.

● 웃오능골

다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 웃정매산

다니 서남쪽에 있다. 이 산의 동쪽에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가 위치한다.

● 이서방논

현간이는 북쪽으로 면적은 약 1,000평이다. 예전에 이서방이 경작하던 논이다.

● **작은매무골**

방산로와 월곶 진입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동북쪽에 있다. 방산동 288번지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 웅달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한산 이씨가 한창 번성할 때 이 우물에서 매가 나왔다고 한다.

● **작은방죽**

고잔앞방죽보다 작게 생긴 방죽이다. 흘림방죽 서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만 평이다. 대부분 천수답이다.

● **젓박이고개**

마루미와 방골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교통로로 1984년에 포장되었다.

● **천장뿌리**

청룡저수지 남쪽으로 부흥산 낙맥이 된다.

● **청룡저수지(靑龍貯水池)**

1970년대 말엽에 방산동과 인천시 서창동 사이 바다를 막아 만든 저수지로 개간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었다. 저수지 이름은 저수지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의 아들 이름에서 따왔다고도 한다. 인근에 극동방송국 송신탑이 1987년에 세워졌다.

● **큰매무골**

월곶 진입로와 망재산 사이에 있다. 골짜기가 깊고 넓으며, 산과 밭으로 이루어졌다.

● **통배미**

옛터골 앞고래논 밑(동쪽)에 있었던 논이다. 약 500평의 천수답인데 1990년대에 매립되었다.

● **통배미우물**

옛터골 통배미 안에 있다.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빨래터로 이용되다가 1990년대에 매립되었다.

● **풀무골**

망재산 서쪽 밑에 있는 골짜기로 풀무 형국을 하고 있다.

● **흘림방죽**

고잔과 포동 신촌 사이를 일컫는다. 논과 밭으로 되어 있으며 논은 천수답이다.

● **헌간이논**

산우물방죽 안에 있는 논으로 면적은 약 700평이며 천수답이다. 요즈음에는 깊어서 경작을 하지 않는다.

제2절 포동(浦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의 포동(浦洞)과 국동(局洞)이었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포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포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포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신현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8,137명으로 남자가 2,111명, 여자가 1,890명이며, 2,780세대이다.

『조선지리지』 인천부 신현면의 국동(국시랑), 포동(포촌)이 포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포촌(浦村)'이라는 지명이 보이고 중심이 되는 마을이 새우개(포동)이므로 1914년에 행정 구역 통폐합 당시 '포리'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浦村 | 局洞 · 浦洞 | 浦里 | 浦洞 |

● 걸뚝

새우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 때 하중동과 포동 사이에 걸쳐 뚝을 막았는데, 그 후 마을이 형성되자 '걸뚝'이라 불렀다. 군자·수암 사람들이 이 뚝을 거쳐 다녔으므로 '걸뚝'이라 했다고도 한다.

일제 말엽까지만 해도 3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광복 후 상나무박이(마을 중앙)에 황해도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현재의 마을이 이루어졌다. 이 뚝으로 말미암아 미산동·매화동·안현동 등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도로 건설로 뚝이 사라졌지만 하중동으로 나가는 길이 뚝길이었다.

● 새우개[新峴洞]·포동(浦洞)·포촌(浦村)

포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포동초등학교와 걸뚝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인천부 신현면의 면 이름은 이 마을과 미산동 구시미 사이에 있는 고개를 '새고개'라 부른 데 연유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곳의 행정 지명은 인천부 신현면 포동인데 정조대(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와 고종대에 발간된 『인천부읍지』 등에는 신고개면(新古介面)으로 되어 있고,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과 여타 읍지 등에는 신현면 또는 새고개면으로 각각 기록되었다. 이상의 새고개·신고개는 모두 한자로는 '新峴'인데 인천부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면이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신현면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신현면의 면명과 현 신현동의 동명은 모두 이 마을 이름을 취한 것이다.

'신현'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서편마을에서 국시랑을 거쳐 능골을 경유, 미산동 구시미를 왕래하기 위하여 새로 고개를 개설하였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처음에는 새로 생긴 고개 즉 '새고개'라고 했다가 후대로 내려 오면서 '새우개'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이름도 처음에는 '새고개'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새우개'로 되었다. 흔히 이곳 포구에서 새우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새우개'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새우개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들었으나 이곳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다른 지역보다 어업 활동이 3~4일이 늦어져 어업이 쇠퇴해졌다고 한다.

이 마을 최초로 입향한 성씨는 나주 온씨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전주 이씨 익녕군 후손이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새우개 당집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편마을' 서쪽을 '서편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와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동편마을과 서편마을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 신촌(新村)

새우개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1930년대 초 소래 염전을 만들 때 염부를 위한 사택을 지은 후 새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본래 대한염업 소유로 포리 55번지에 속했는데, 1970년대부터 개인에게 땅을 불하해주었다.

● 국시랑

포동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다. 일제 중엽까지 마을(국시랑)이 있었던 곳으로 경주 이씨가 많이 살았는데, 현재는 논밭으로 변모되었다.

● 국시랑골짜기

국시랑 마을이 있던 자리를 말한다. 포동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 능골[陵谷]

미산동 무궁화아파트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예전에 이곳에 큰 산소가 있었는데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명당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지세가 학의 혈이라고도 한다.

● 동편방죽

겉둑과 새우개 사이의 방죽인데 새우개의 동쪽에 있는 방죽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동편우물

새우개 동편마을 개인 집 마당에 있는 우물로 염분이 많다. 현재는 허드렛물로 사용되고 있다.



동편우물

● 동편장승박이

새우개 동편마을 입구에 있다. '동방축귀대장군(東方逐鬼大將軍)' 을 1960년대부터 2년마다 음력 정월 3일 쯤에 만들어 세운다.

● 배터

'배터개' 라고도 불리었던 이곳은 배를 묶어 두었던 곳이다.

● 상나무박이

겉둑마을 중앙에 수백 년 수령의 향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 곳을 '상나무박이' 이라 불렀다. 향나무는 광복 직후 자연사하였다.

● 샘골

새우개와 학미산 사이에 있다. 이곳에는 샘물이 있는데,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마을의 식수원이었다.

● 생선뿌리

신촌의, 방산동 쪽의 산에서 내려오는 돌출되어 있는 산의 부리 모양을 일컫는다. 신촌 앞의 포구는 1935년경까지 있었다.

● 서편방죽

포동초등학교 앞(동쪽)에 있다. 새우개 서쪽에 있는 방죽이라 '서편방죽'이라 부른다.

● 서편장승박이

새우개 서편마을 입구인 노송 옆에 있다. 예전에는 '서방축귀대장군(西方逐鬼大將軍)'을 해마다 세웠는데, 1960년대부터 2년마다 정월 초 3일 쯤에 세운다.

● 소래국민학교 포리분교터

포동 마을회관 앞(남)에 있었다. 본래 '공신상회'란 잡화가게가 있었는데 1949년경에 가게를 헐고 그 자리에 20평 정도의 단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학교는 소래국민학교가 먼 거리에 있으므로 포동·방산동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53년 포리국민학교가 설립되자 학교는 폐치되었고, 그 자리에 방앗간이 들어섰다가 다시 공장으로 개조, 운영되고 있다.



소래염전

● 소래염전

포동과 장곡동 사이에 있는 염밭으로 1930년대 초에 생겼다.

● 숲돌재고개

새우개와 방산동 다니 사이에 있는 고개로 포동 새우개 사람들이 신천동의 소래면사무소를 가려면 이 길을 이용했다.

● 안방죽

포동초등학교 위편, 서편 장승 앞에 위치한 곳으로 장승백이 안에 3,000 평 가량의 뽕을 논으로 만든 것이다.

● 앞샘물

마을 앞에 위치한 샘물이라 하여 불리던 이름이다.

● 작은골·국시랑

안방죽 소나무 옆에 들어가는 골짜기이다.

● 조성근방죽

농림부 기사 출신인 조성근이 1969년에 매립허가를 받아 뽕이었던 곳의 조수를 막아서 만든 논이다. 걸뚝 남쪽으로 소래염전의 동쪽에 있다.

● 지사골

포동공동묘지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로 대부분 농경지이다.

● 큰골

걸뚝과 학미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태산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 포동공동묘지

포동 새우개 서편 소재 소나무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성했다.

● 포동느티나무

새우개 당집 앞에 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만(灣)의 입구에 위치한 정왕동 오이도에서 몰려오는 액운을 막기 위하여 마을 언덕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나무의 높이 20m, 둘레 3m, 면적은 50㎡이다. 포동 49번지에 소재하며 1982년 10월 8일 군(시)나무로 지정된 당산목(堂山木)이다.



포동 은행나무(좌)와 느티나무(우)

● 포동은행나무

새우개 당집 앞에 있다. 예전에는 바다로 나간 어부들이 이 나무를 항해의 표지로 삼았고, 새우개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과 7월에 주민들이 모여 당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했다. 나무의 높이는 20m, 둘레 3.83m에, 3m 정도 높이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동서로 20m, 남북으로 20m 정도 퍼졌다. 면적은 약 50㎡이고 수령은 약 500년이다. 1982년 10월 8일에 도나무 41호로 지정된 당산목이다.

● 포동소나무

새우개 서편마을 북쪽 산기슭에 있다. 나무의 높이 20m, 둘레 3.76m로, 가지는 동서로 23m, 남북으로 21m 정도로 퍼졌다.

이 나무는 반원형의 수관구정으로 중간 부분이 비어 있어 부채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주변에 커다란 소나무가 없어 지금까지 수명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령은 약 200년으로 1982년 10월 8일에 리(동)나무로 지정된 당산목이다.

● 포리교(浦里橋)

포동 걸뚝 입구인 39번 국도상에 있는 다리로 길이 20m이며 교폭 6.7m로 1958년 12월에 준공되었다.

● 포리나루터[新古介浦] · 신현포(新峴浦)

포동 게이트볼장(포동 67-77번지) 자리인데 이곳이 최초의 나루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1960년대 배가 마지막으로 드나들던 때까지는 존치해 있었다.

나루터 뒤쪽인 옛 염전 사무소 앞 마당은 배치기를 하던 곳으로 배가 만선으로 들어올 때는 마을 전체가 잔칫집처럼 흥청거렸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 이른바 '포리호 사건' 이후로는 어업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8·15 광복을 거쳐 38선 이남으로 어로 구역이 축소되고 낙후된 어로 장비를 가지고는 다른 지역의 동력선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자 포동 주민 몇 사람이 돈을 모아 포리호를 장만하였다. 그런데 마을 배라고 할 수 있는 포리호가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새우개 마을의 어업은 결국 몰락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염전의 확장으로 해안이 멀어지는 바람에 어업 활동이 불편해져서 어민의 대부분이 농부나 염부로 전업하게 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 포리1교(浦里1橋)

39번 국도에서 신현동사무소 입구에 있다. 이 다리 옆(서쪽)에 1958년에 설치된 포리교가 있으나 39번 국도 확장공사 때 새로 가설되었다.

1994년 9월 6일에 착공하여 1998년 9월 6일에 준공된 이 다리는 총길이 57m에 교폭은 19.31m이며 설계하중은 24t이다. 시행청은 시흥시, 시공자는 LG건설과 삼풍건설이다.

● 포리2교(浦里2橋)

포리1교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이 다리 아래의 하천은 조선시대에는 안산군과 인천부의 경계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부터는 시흥군과 부천군의 군계가 되었다가 1989년 시 승격 이후는 포동과 하중동의 동계가 되었다.

이 다리는 1994년 12월 6월에 착공하여 1998년 9월 6일에 준공되었고, 총연장은 24.1m에 교폭은 19.31m이다. 시행청은 시흥시, 시공자는 LG건설과 삼풍건설이며 노선명은 39번 국도이다.

● 학미산(鶴眉山)

새우개와 미산동 구시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산의 모습이 예쁜 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학미산

제3절 미산동(米山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의 창동(倉洞)·고기동(古基洞)·이리(二里)였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미산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면서 시흥시 미산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신현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4,001명으로 남자가 2,111명, 여자가 1,890명이며, 1,590세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인천부 신현면의 구곡(鳩谷, 구심이)·미산(米山, 살미)·사곡(寺谷, 절골)·고기동(古基洞, 여터골)·임리(林里, 슈풀이) 등이 미산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이곳 앞(동쪽)에 있는 호조벌이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미산'이라 칭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 1914년 | 1989년 |
|-----------|-------|-------|
| 倉洞·古基洞·二里 | 米山里 | 米山洞 |

● 간담[中岩洞]

양우재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양우재와 구시미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예전에 마을 가운데에서 동이를 만들었다 하여 일명 '동이점'이라 하기도 하고, 이곳 지질이 거의 청석(靑石)이어서 '중암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녕 김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도 금녕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구시미[九水美]·구수미(九秀美)·구곡동(鳩谷洞)

양우재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곳이 물가여서 여진어(女眞圖)의 Kueimai에서 '구시미'란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전하며, 이 마을 남쪽 산의 모양이 개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본래에는 마을 북쪽에 '절골[寺洞]'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도둑이 너무 많아 마을이 사라지고, 조선 말엽 현재의 자리로 옮겨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동(寺洞)', 일제 때는 '구곡'이라 부르기도 했다. 풍천 임씨와 창령 성씨의 세거지로 현재는 풍천 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양우재[養牛峴]

간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과 간담 사이에 있는 산이 어미소 형국이어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은 소를 기르면 잘되는 곳이라 한다.

본래 마을 앞 39번 국도 건너편(동북쪽)에 '수풀이[林里]'란 마을이 있었는데, 도둑이 들끓어 조선 말엽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마을 서쪽을 '웃말', 동쪽을 '아랫말'이라 부르며, 풍천 임씨가 오랫동안 세거하고 있다.

● 옛터골

미산동의 자연마을 중 가장 오래된 마을이므로 '옛터골'이라 칭하고 있다. 창동 서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동쪽을 '양지마을', 서쪽을 '음지마을'이라 부른다. 연일 정씨·연안 차씨·금녕 김씨·나주 정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연일 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매년 음력 7월 1일 당재고개에서 당제를 지냈다.

● 월촌(越村)

1800년대에 윤방헌(尹邦憲)이 농사를 짓기 위해 처음으로 정착하면서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창동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므로 '월촌'이라 부르고 있으며 파평 윤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창동(倉洞)

옛터골과 월촌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 곡식을 저장하는 큰 창고가 있어서 불

여진 이름이다. '창말' 이라고도 한다. 또한 창고에 쌀이 많아 '쌀이(→살미)' 라 칭하기도 한다. 금녕 김씨·연안 차씨·연일 정씨·나주 정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연일 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마을 중앙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우물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가뎃말다리

동쪽 호조별 중앙에 있는 다리로 안현동의 가뎃말과 연결해준다. 본래는 나무 다리였는데, 광복 후 수리조합에서 현재의 다리를 가설하였다.

● 가재우물

간담에 있는 우물로 샘이 잘 나오고 가재가 많았다고 한다. 마을의 식수원이었으나 현재는 허드레물로 이용되고 있다.

● 관배수·개고랑

은행동부터 내려오는, 포동에서 서해안으로 내려가는 고랑이다.

● 구시미방죽

구시미와 39번 국도 사이에 있는 큰 들로 논이 대부분이고 밭도 일부 있다. 논은 수답이며, 현재 경작하고 있다.

● 긴배미

창동에서 남쪽으로 뒀뿌리 남쪽에 있는 수답으로 논이 길다.

● 길마재다리

가뎃말다리 동쪽에 있는 다리로 창동과 안현동의 길마재를 잇고 있다. 본래는 나무 다리였는데 광복 후 수리조합에서 가설하였다.

● 농고개

구시미 북쪽에 있는 고개로 이곳을 넘으면 절곡과 서낭당고개에 이른다.

● 느다리

창동 긴배미 남쪽으로 200여m 지점에 있는 다리로 널빤지를 놓고 다녔기 때문에 '널다리→너다리→느다리' 로 변하여 현재의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에 가설되었다.

● 느티나무

창동과 옛터골 사이 고개 마루에 있는 나무로 수령은 짧으나 마을의 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버섯재배사 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1970년대에 자연사하였다.

● 당재고개

창동과 39번 국도 사이에 있는 고개로, 고개 마루에 당이 있었다. '당너머고개' 라고도 한

다. 소래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자 고개길이 없어졌다.

● 당재봉

옛터골 뒤에 있는 산인데, 중턱에 사당이 있었다가 일제강점기 말엽에 없어졌다.

● 당터

구시미 웃우물 위쪽에 있는 낮은 산의 정상을 가리킨다. 1980년대 초까지 구시미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 대추나무골

상아재봉 내려오는 길의 북쪽으로 흐르는 골짜기로 대추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동이점고개

간담과 옛터골 사이를 오가는 고개였다. 1986년에 길이 포장되면서 없어졌다.

● 동이점터

미산동 533번지 일대로 조선시대 말까지 동이를 구웠다. 이로 인하여 간담을 일명 '동이점'이라 부른다.

● 뒀뿌리

옛터골 느티나무 동쪽 끝으로, 당재봉 줄기이다. 앞쪽으로 호조벌이 펼쳐 있다. 상여집이 있던 곳이었으나 1970년대에 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방화로 소실되자 미산리 공동묘지로 옮겼다.

● 뒀들미고개

구시미와 간담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이용되며, 1983년에 포장되었다.

● 뒀말모퉁이

옛터골 음지마을 뒤쪽에 있는 산모퉁이를 말한다. 조선시대 형장(刑場)이 있었던 터라고 한다.

● 모래논

창동과 호조벌 사이에 있는 논이다. 모래가 많은 논이었으나, 현재는 천수답이다.

● 모우재산[母牛山]

양우재 웃말 뒤에 있는 산으로 구시미와 양우재 사이에 걸쳐 있다. 어미소 형국이므로 '모우재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물재산'이라 칭한다.

● 밤뒤고개

방산동 밤뒤와 양우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비포장의 좁은 길이다.

● 방골고개

양우재와 방산동 방골 사이의 고개로, 좁은 비포장길이다. 측뒤에 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 방아다리

간담과 39번 국도 사이 논두렁길을 말한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이곳에 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자리에 토관을 놓았다.

● 뱀밭

된뿌리 아래쪽에 있는 밭으로 길다란 모양이다.

● 버들방이둑

방죽 둘레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근다리골

양우재 아랫말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는 논인데, 토질이 좋아서 수확이 많은 수답이다.

● 상아재봉

간담 동남쪽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고기동 서남쪽 아래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고 봉우리 위쪽은 수리 형국이며, 그 아래는 매 형국이라고 한다.

● 서낭당고개

농고개와 방산동 사이에 있다. 고개에 서낭이 있으며 비포장의 좁은 길이다.

● 솔경두고개

양우재와 은행동 찬우물 사이로 39번 국도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 마루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1950년대에 고사하였다고 한다. 1987년에 길이 확장되면서 포장되었다.

● 솔모래이

구시미 앞의 산모퉁이로 큰 소나무가 많은 곳이었으나, 현재는 밭과 묘가 있다.

● 신성골

양우재에서 동북쪽으로 조선시대에 마을이 있었던 수풀이 일대를 말한다. 물이 좋아 마을이 번성했을 것으로 보이나 도둑이 들끓어 폐동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깨진 기와장 등이 출토되고 있어 마을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측뒤

방골고개 증턱으로 절골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 약쑥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우물

구시미 아래쪽에 있는 우물로 1980년에 초까지만 해도 마을 식수원이었다. 그러나 인근

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후 물이 안 나와서 메웠다.

● 안살미

구시미 절골 앞에 있는데 산이 얇고 잡목이 우거져 있다.

● 앞고래논

옛터골 통배미 북쪽에 있는 논으로 큰 부자가 경작했던 논이라고 한다.

● 양우재고개

미산동에서 제일 큰 고개로 양우재 동쪽으로 39번 국도에 있다. 1987년에 고개를 깎고 포장하였다.

● 우물배미

창동과 월촌 사이에 있는 논이다. 논 가운데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고사를 지낼 만큼 중시하던 대동우물이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 웃우물

구시미 위쪽에 있는 대동우물이다. 물맛이 좋고 물이 마르지 않아 가뭄이 들면 포동 걸뚝 등지에서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 바위에서 샘이 솟는 특징이 있다.

● 율무밭

창말과 우물배미 사이에 있는 밭으로 옥토이다.

● 음나무터

구시미 양지마을 동쪽, 큰 음나무가 있던 곳이다. 수령 700년 가량 되었던 음나무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때에 배의 닻줄을 매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 고사하였다.

● 재너머고개

구시미와 저토골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저토골

구시미 재너머고개 서남쪽으로, 산골짜기에 절이 있어 '절터골'이라 했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저토골로 불리고 있다. 이곳은 현재 풍천 임씨 소유이다.

● 절골[寺洞]

구시미 북쪽에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에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 구시미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폐동되었다. 동래 정씨가 세거했다고 한다.

● 진골고개

양우재 고개에서 부천으로 가는 고개길이다. 예전에는 버스로 오르기 힘든 고개였으나 지금은 평평해졌다.

● 찬우물고개

월촌과 은행동 찬우물 사이에 있는 고개로, 미산동과 은행동의 경계가 된다. 1988년에 포장되었다.

● 창포연못터

간담과 39번 국도 사이에 있는 밭에 창녕 성씨 문중에서 연못을 팠다고 하는데, 1970년대 초까지 있었다가 그 후 밭이 되었다.

● 큰우물

창동과 옛터골 사이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이다. 마을에서 위하는 우물로 매년 7월 1일에 소를 잡아 우물고사를 지내다 중단하였는데, 근래에 젊은 사람이 원인 모르게 죽자 우물고사를 다시 지내자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고 한다.

● 통배미

옛터골 음지마을과 양지마을 사이에 있는 논을 말한다. 500평 가량 되고 천수답이다.

● 통배미우물

옛터골 통배미 안에 있는 우물이다. 옛터골의 식수원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빨래터로 이용되었다.

● 호조벌

물왕저수지 아래부터 미산동·은행동·매화동·도창동·포동·물왕동·광석동·하상동·하중동 등에 걸쳐 이어지는 농경지로 시흥시의 곡창지대이다. 호조(戶曹)에서 만든 들이라 하여 '호조들', '호조벌', '호조방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조선 정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서울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11년간 12차에 걸쳐 능행을 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능행에는 많은 인력과 말이 필요하여 경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재상 채제공(蔡濟恭)이 간만의 차가 크지 않고 그 폭(약 720m)이 좁아 간척사업으로 최적지인 안산군 초산면 돌장재(현 시흥시 하중동)와 인천부 신현면 포리(현 시흥시 포동 걸뚝)에 걸쳐 막으면 방대한 농경지가 새로 조성되므로 이를 농민들에게 경작케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도지(賭地)를 받아 능행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소를 올리자 정조가 호조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호조방죽은 경종연간에 축조된 것으로 이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는 않는다.

銀杏洞

제4장 은행동

제1절 은행동

제2절 안현동



제1절 은행동(銀杏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삼리(三里)였다가,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은행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은행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은행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만 2,291명으로 남자가 1만 6,275명, 여자가 1만 6,016명이며, 세대수는 1만 195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 인천부 신현면의 한정(寒井, 찬우물), 검암(儉巖, 금바위), 은행정(銀杏亭), 상기동(上基洞, 우터골) 등이 은행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 1914년 | 1989년 |
|-------|-------|-------|
| 三里 | 銀杏里 | 銀杏洞 |

● 금바위[儉岩] · 검바위

찬우물과 소래중학교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이곳 뒤(북쪽) 야산 길 옆에 큰 바위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중기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다가 비가 그쳤는데 잠시 후 온 마을이 컴컴해지더니 하늘에서 서광이 비추어서 살펴보니 마을 뒤에 있는 큰 바위에서 금빛이 발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바위를 '금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이름은 이 바위에서 유래된 것이다. '검바위'라고도 한다.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서쪽을 '웃말', 동쪽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 모래골[沙洞]

웃터골과 소래중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북쪽에 모래산이 있는데 한국전쟁 후 이곳에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자 산 이름을 따서 '모래골'이라 하였다. 택지 개발지구로 포함되어 마을이 없어졌다.

● 목화(木和)마을

서울시 목동(木洞) 철거민 36세대를 서울 강서구청과 시흥군이 합동으로 신천동 한독마을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여 입주시켰다가 3개 동 105세대의 건물을 지어 1986년 9월에 이주시켜 조성한 마을이다. 마을 명칭은 목동 철거민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 웃터골[上基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에 속하던 마을로, 모래골 동북쪽에 있는데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창원 황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김해 김씨 등이 세거하였다. 1980년에 초까지만 해도 은행동 68-25번지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3일이면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택지로 개발되어 현재는 은행초·중·고교가 자리잡고 있다.

● 은행정(銀杏亭)

안현동 양지편 서쪽으로 수인산업도로 옆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산 기슭에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었던 큰 은행나무가 있었으므로 '은행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김해 김씨와 안동 권씨의 오랜 세거지이며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북쪽을 웃말, 남쪽을 '아랫말', 동쪽을 '모땀말', 아랫말 남쪽을 '넘어능재'라 부른다.



웃터골



은행정

● 찬우물[寒井洞]

미산동 창동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중엽 파평 윤씨 후손 중에 윤태(尹泰)란 이가 이곳 산에 성묘를 왔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의 조부가 꿈에 나타나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라”고 하여 그 후부터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북쪽 논 가장자리에 물이 찬 우물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마을 남쪽을 ‘넘말’, 북쪽을 ‘건너말’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파평 윤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한독(韓獨)마을

서울시 시흥동·당산동·사당동 등의 철거민들을 위하여 고 제정구 씨와 미국인 데일리 신부가 신천동 북음자리마을에 이어 찬우물 북쪽에 조성한 곳이다. 여기에도 독일 자선단체인 「MISERIO」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고자 한국의 ‘한’자와 자선단체 소속 국가인 독일의 ‘독’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600여 평의 대지에 2층 연립주택 6동 164세대(2개 동은 세대당 9평, 4개 동은 세대당 8평)를 건립하여 1979년 12월에 입주하였다.

● 각씨골

웃터골 남성주택 위(서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아늑하여 웃터골 각씨들이 놀던 곳으로 현재는 밭으로 변모되었다.

● 갯자리

옛날 갯가였던 곳이 지금은 빈 터로 변해 버려 붙은 이름이다.

● 개자리벌

수인산업도로와 은행정 시골미논 사이에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수리안전담이다.

● 갯다리

찬우물 동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나무 다리를 가설하여 왕래하였으므로 이를 ‘갯다리’라 하였다.

● 검바위고개·금바위고개

고개 위에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긴닷마지기논

모래골에서 웃터골 가는 초입에 있는 논이다. 방죽 안에 속한 논으로 한배미가 5마지기이다.

● 길울골

은행정과 웃터골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이다.

● 낭모레이우물

수인산업도로와 은행정 놀이터 사이 낭떠러지에 있던 우물이다. 일제 때는 소래에서 물맛이 제일 좋다고 소문난 우물이었는데 지하수 개발로 물이 마르자 1985년에 농경지 소유주가 폐정시켰다.

● **넘어능재**

산(안산)을 넘어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논산논**

논에서 얻은 수확으로 산 논을 뜻한다.

● **능모래이**

찬우물 서북쪽의 산모퉁이로, 모양이 능처럼 생겼다.

● **능모랭이논**

능모래이에 위치하여 붙은 이름이다.

● **달림산**

은행정 주민들이 대보름날 달을 보던 산으로 은행정 웃말 뒤(북쪽)에 있다.

● **돌메산 · 독메산**

웃터골과 계수동 수노골에 걸쳐 있는 돌이 많은 산이다. '돌'의 방언인 '독'을 써서 '독메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 **두멍배미**

물웅덩이가 있는 논을 가리킨다.

● **뒷골**

각씨골 남쪽에 있는 논을 말한다. 웃터골 뒤에 있는 골짜기였다.

● **모래고개**

소래중 · 고등학교 방향으로 신천동 가는 길에 있는 고개이다. 모래가 쌓여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 **모래골고개**

모래골과 신천동 삼신전자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은행동과 대야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본래 이름은 '박석고개'인데, 이는 고개 마루턱에 박석을 세웠다는 데서 연유한다. 1976년에 수인산업도로 포장 공사 때 고개를 낮추고 포장을 했으며, 이어 1986년 확장 공사 때 고갯길을 넓혔다.

● **모래밭**

웃터골 각씨골 옆(서쪽)에 있는 밭이다. 모래가 많다.



넘어능재

● 모탤말고개

은행정 아랫말과 모탤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1987년에 포장되었다.

● 미산리고개

찬우물과 미산동 월촌 사이에 있는 고개이며 농로로 포장되었다.

● 바우박이논

찬우물 오랑캐골 밑(동쪽)에 있는 논이다. 예전에 논 가운데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 방죽안논

모래골과 웃터골 사이에 있는 논이다. 물이 많고 토질 또한 좋아 인근에서는 제일 좋은 논이었다. 아파트 건설로 물이 끊기자 논에 지하수를 개발해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 배터논

옛날에 배가 드나들던 나룻터가 논으로 변해서 붙은 이름이다.

● 불당골[佛堂谷]

소래고등학교 자리이다. 본래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들끓어 폐사하였다고 한다.

● 새경답

머슴에게 새경 대신 준 논이다.

● 샘배미

논에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백이논

오래 전에 섬이 있던 곳을 간척 사업으로 둘러막아 만든 논이다. '섬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생매산

경찰학교가 있던 곳의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풍수로 보아 거북혈인데, 상봉에 돌이 많아 새매의 서식처이므로 '새매산'이라 했다고 한다. 음이 점차 변하여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상봉에 있던 돌은 계수저수지를 만들 때 제방에 사용되었다.

● 서낭당고개

배터에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중림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금은 산업도로가 나 있다.

● 성투고개

찬우물과 복지아파트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찬우물 주민들이 무병·무해·장수하고, 마을이 번창하려면 고갯길을 막아야 한다는 속설에 따라 흙을 쌓았다고 한다. 1983년 고개를

끊으려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그대로 포장하였다.

● 순례길

웃터골 뒤에 있는 길로 계수동과 은행동의 경계가 된다.

● 시걸미논

풀무간 동쪽에 있으며 수답으로 찬우물에 속해 있는 논이다.

● 신선바위

검바위 뒤에 있다. 아주 먼 옛날에 신선이 와서 놀던 바위라고 한다.

● 안산(案山)①

은행정고개 옆에 있다. 은행정 앞(서남쪽)에 있는 산이므로 '안산'이라 부른다.

● 안산②

돌메산 낙맥으로 웃터골 앞(남쪽)에 있는 산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포도밭이다.

● 안은행정고개

은행정 아랫말과 안은행정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이다. 농로로 1986년에 포장되었다.

● 양우재고개

찬우물 서쪽으로 찬우물과 미산동 양우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오랑캐골

찬우물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묘호란 때 오랑캐가 이곳에 진(陣)을 쳤다고 한다.

● 왜좁물

은행정 아랫말 모퉁이에 있다. 돌 속에서 샘물이 솟는데 물맛이 좋아 대동 식수로 사용되었다. 각 가정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인다.

● 웃말우물

웃말 꼭대기 뒷산에 있던 우물이다.

● 웃방죽

마을 북쪽에 있는 방죽을 가리킨다.

● 웃터골고개

웃터골과 은행정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웃터골골짜구니

한국전쟁 당시 가물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도 여기는 농사를 지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 지금은 피혁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물을 많이 쓰는데도 지하수가 마르지 않아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다.



웃말우물

● 은행나무터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갯다리에 있던 은행나무에 배의 닻줄을 매었다고 한다.

● 은행정고개

은행정과 국제실업 사이로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고개이다. 1976년에 첫 포장되었고, 이어 1986년 4차선 확장 공사 때 재포장되었다.

● 장술재고개

금바위 뒤에 있는 고개로 검바위와 신천동을 잇고 있다.

● 지출골

은행정과 웃터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인데 건조하다.

● 찬우물

찬우물 북쪽 논 가장자리에 있다. 물이 차서 '찬우물'이라 부르며 물맛이 좋아 일제 때 수질검사를 하였다 한다. 이 우물에서 인근의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1945년 광복이 되자 파란 꽃이 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 풀무간

금바위 앞(동쪽) 논에 일제 때 대장간이 있었던 곳이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 행매산

우텃골 방향으로 소래중·고교로 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산이다.

● 홍수논들

예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생긴 들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 활터

활을 쏘던 사정(射亭)이 있던 곳이다.

제2절 안현동(鞍峴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일리 양지리(陽支里)·가대동(家垌洞)·송내동(松內洞), 이리 장락동(長樂洞)이었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합쳐져 소래면이 되자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안현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안현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은행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675명으로 남자가 363명, 여자가 312명이며, 세대수는 275세대이다.

『조선지리지』 인천부 전반면의 양지동(陽支洞, 양지말)·송내동(솔안말, 일명 길마지)·가대동(가 더 말)·장락동(장락골) 등이 안현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안현'은 길마재를 한자어로 바꾸어 붙인 지명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 1914년 | 1989년 |
|--------------------|-------|-------|
| 陽支里·家垌洞 松內洞·長樂洞 | 鞍峴里 | 鞍峴洞 |

● 가대말[家垓洞]

마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때에는 배가 들어오는 마을이라 하여 '배대말' 이라고 하던 마을이다. 배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부터 집터로 변하자 '가대말' 이라 불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동쪽 지역을 '웃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 이라 부른다. 길마재 남쪽에 위치하며 문화 류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길마재[鞍峴洞]

가대말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소의 길마처럼 생긴 '길마고개' 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가 많아서 '송내동' 이라 불렸다고 한다. 길마고개는 1976년 42번 국도 포장 때 없어졌다.

마을 동쪽을 '웃말', 남쪽을 '아랫말' 이라 부른다. 연일 정씨와 청풍 김씨의 세거지였으나 현재는 밀양 김씨와 광산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양지편(陽支便)

마을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양지말[陽支洞]' 이라고도 한다. 길마재 북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동북쪽을 '웃말', 서남쪽을 '아랫말' 이라 부른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와 원주 변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1970년대까지 해마다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웃말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우물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양지말

● 장낙동(長樂洞)

물이 좋고 주위가 수려하여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안현동 512번지에 있는 큰 바위에다 닳줄을 매었다고 한다.

가대말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동쪽을 '웃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 이라 부른다. 성주 이씨와 수원 백씨, 경주 최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성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현대마을

양지편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양지편에 속했다. 바닷물이 들어오던 때 배를 대던 곳이라 하여 '배터' 라 불렸는데, 간척공사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1960년대에 계수동 가일 출신 이영신(李永信)이 농사를 짓기 위해 처음으로 정착한 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1970년대 초에 '배터' 란 마을 이름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 의견에 따

라 '현대마을'로 개칭하였다.

● 가대말고개

가대말과 길마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가대말에서는 '길마재고개'라 부른다.

● 개자리

거머리가 많았던 논으로 방죽이 깊어서 물이 잘 안 빠졌다고 한다.

● 냇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벌이어서 이렇게 불렀다.

● 능골[陵谷]

매화동 이선이 북쪽 너머에 있는 큰 골짜기로 능을 써도 될 만한 명당이 있다고 한다. 현재 종근당에서 초지를 조성했으며 성주 이씨 선대의 묘가 있다.

● 능안

양지편 안산(鞍山) 아래쪽을 가리킨다. 임금의 사위인 부마의 묘가 있다.

● 다복골

길마재 능안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에 이곳에 어린 소나무가 다복하게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는 일제 때 모두 벌목되었다.

● 대동우물

길마재 아랫말 중앙에 있는 우물로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 정조 14년(1790) 김치인(金致仁)의 묘를 쓸 때 한 번 물이 끊겼다고 한다. 물맛이 좋아 길마재와 가대말 주민들의 공동 식수원이었는데, 현재는 빨래터로 사용되고 있다.

● 도당골

당제를 지내던 곳이다. 당제에 사용하던 제구를 보관하기도 하고, 상여를 두던 자리이며, 마을 사람들이 쓰다가 깨진 그릇들을 버리던 곳이기도 하다.



대동우물



도리재당나무

● **도당나무**

예전에 300년 된 팽나무가 도당나무로 있어 매년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당산제를 지냈다. 일제 말기 나무가 고사한 후 당산제가 없어졌다.

● **도당물논**

앞방죽들 남쪽, 가대말 앞에 있는 논이다. 안현동 주민들이 도당제를 지낼 때 이곳에 있던 우물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 **도리깨뿌리**

동력 서쪽 끝에 있는 산뿌리로 장낙골과 가대말 사이에 있는 하천이 이곳에서 만난다.

● **동력해**

가대말 동쪽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이다.

● **동력해고개**

동력해와 가대말 사이에 있다는 고개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포장되었다.

● **말씨고개**

장낙동과 가대말 사이로 42번 국도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에 수원과 인천을 왕래하던 큰 길이었으며 이 고개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를 먹였다고 한다.

● **모갈고개**

안현동 능골과 과림동 모갈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고 험하다.

● **물레방아터**

물레방아가 있던 곳이었으나 30년 전에 매립되었다. 지름이 3m 가량 되던 방아 맷돌은 새마을사업 도로 포장 때 땅에 묻었다고 한다.

● **본우골**

양지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많았다 하여 '범우골'이라 불리던 곳이다. 점차 음이 변하여 본우골이 되었다.

● **봉바위**

능골과 매화동 이선이골 사이에 있는 산 정상에 있다.

● **분상재**

상여가 넘어가지 못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이 주장산이어서 상여가 넘어가면 마을에 큰 재앙이 내린다는 속신이 있어 지금도 상여가 이 고개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 **삼태기안**

장낙골 봉바위 동쪽의 능골 줄기로 삼태기처럼 오목하다. 종근당제약에서 조성했다.

● **상아채고개**

장낙골과 매화동 42번 국도에 있는 고개이다.

● **안골**

양지산에서 양지편 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삼태기처럼 생겼다.

● **안산(鞍山)**

말의 안장처럼 생긴 산으로 양지편에 속해 있다.

● **앞방죽**

길마재 입구에 있는 방죽이다.

● **앞방죽들**

길마재 앞에 있다. 본래 방죽이 있었으나 농경지로 바뀌면서 '앞방죽들'이라 불렸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경지가 정리되었다.

● **양지산(陽支山)**

양지편과 과림동, 무지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일명 '덤배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 **오구재들**

앞방죽 서북쪽에 있는 들로 지대가 깊어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오지(奧地)이다. 1960년대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장낙골방죽**

장낙골 앞에 있는 농경지로 토질이 개흙이다.

● **재너머고개**

장낙골 뒤쪽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지나면 가대말에 이른다.

● **재너머밭**

장낙골 뒤쪽 재너머 고개에 있는 밭이다.

● **주산봉우리**

가대말 서북쪽에 있는 야산으로 현재는 밭이다.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때 상여가 이곳을 지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산이다.

● **중림고개**

양지편과 과림동 중림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마루에 서낭이 있으며 고개 중턱에 처녀 귀신이 있었다고 한다.



팽나무

- 팽나무

앞방죽들 제방에 있는 나무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나무에 배의 닻줄을 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길마재 사람들이 단오절에 그넛줄을 매기도 하였다.

- 헛방재고개

42번 국도에서 가대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포장되었다.

梅花洞

제5장 매화동

제1절 매화동

제2절 도창동

제3절 금이동



제1절 매화동(梅花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이리 매착리(梅着里)와 울동(栗洞)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매화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매화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매화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9,709명으로 남자가 4,903명, 여자가 4,806명이며 3,320세대이다.

『조선지리지』 인천부 전반면의 매착리·신기촌(新基村, 시터말)·울동(밤비섬) 등이 매화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세가 풍수로 보아 매화꽃이 벌어지거나 떨어지는 형국이므로 '매화'라 부른다거나, 매화동의 앞뜰인 호조벌의 간척사업이 있기 전 바닷물이 들어오던 때에 썰물이 지나가는 자리가 매화꽃이 떨어진 듯한 무늬를 남겨서 '매화'라 한다는 등의 지명유래가 있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二里 | 梅着里 栗洞 | 梅花里 | 梅花洞 |

● 매채기[梅着里]

섬말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경주 이씨와 경주 김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마을의 형세가 매화꽃이 떨어지는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 하여 '매착동'으로 불리다가 음운이 변하여 '매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매화동까지 물이 들어와서 배가 드나들었다. 어부들은 밤에 등대 대신에 집의 호롱불로 육지의 거리를 가늠했는데, 산을 등지고 있는 오목한 모양의 마을 호롱불빛이 매화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착골'·'매채기'·'매화골'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매채기는 지역이 넓어 편의상 동쪽을 '웃말', 서쪽을 '아랫말', 웃말과 뒤미골 사이를 '섬말', 섬말 동쪽을 '뒤미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웃말과 아랫말은 1980년부터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로 의미가 없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3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뒷산(북쪽, 현재는 주택이 들어섰다) 정상에서 도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바티골[田反谷]

매채기 뒤(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매채기 뒤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밭뒤골'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명이 변하였다고 한다. 바탕이처럼 골짜기의 입구가 좁은 곳이라는 뜻에서 붙은 지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마을은 조선 말엽에 형성된 곳으로 전주 이씨와 경주 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 새텃말[新基村]

간척지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섬말에 살던 강릉 함씨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 형성되었다. 매채기 서쪽에 위치하며 현재 강릉 함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 중앙에서 보아 동북쪽 지역을 '웃말'이라 부르고, 남서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는 서능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 섬말[栗島]

마을의 모습이 밤알 또는 섬처럼 생긴 마을로 새텃말 서쪽



매화동 입구



매화동 전경



매채기



새텃말

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다른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물만 없는 섬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700년대에 강릉 함씨가 입향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도 강릉 함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이선이

바티골 뒤(북쪽)에 있는 마을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농경지였다. 옛날에 이 골짜기에 두 신선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다. 광복 직후 농장이 생겼다가 1960년에 주말농장을 개발하려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중단되었다고 한다. '주말농장' 이라고도 한다.

● 취락마을

바티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이 조성되기 전에는 '송장골'이라 불렀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채기와 비무골의 불량주택을 이전하여 새로 조성한 마을이다.

● 개매기

섬말 방아다리 남쪽에 있던 하천을 말한다. 현재는 논으로 변하였다.

● 공동묘지

바티골 서쪽에 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저물면 도깨비가 나타난다 하여 지나가기를 꺼려하던 곳이다.

● 긴등

매화교회 아래 냇가에서 섬말과 매채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다.

● 뇌머리벌

누에머리처럼 생긴 벌판으로, 이 벌을 지나면 미산동에 이른다.

● 당골

송장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한다.

● 도당산(都堂山)

매채기 뒤(북쪽)에 있는 야산을 말한다. 도당이 있던 곳이라 하며, '도당재'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매년 당굿(당제)을 했다. 현재는 동산주택이 들어서 있다.

● 돌고개

이선이와 신흥동 사이에 있는 높은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뒤목골

에텐연립 주변 일대로 매화동 뒤쪽 지역이다. 골이 깊어서 뒤가 킁킁하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는 주택지와 밭이다.

● 마당구지

매채기 한우물 100m 지점으로 냇가 옆을 말한다.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없어진 후 밭으로 개간되었다.

● 마당구지벌

매채기와 장낙골 사이로 마당구지 서쪽에 있는 벌판이다. 현재 매화동 노인정이 위치한 곳이다.

● 방아다리

섬말 서쪽에 하천이 있었을 때 안현동과 미산동으로 건너가는 다리였다. 경지정리로 없어졌고 현재는 논이다.

● 북덕고개

매채기와 42번 국도 사이의 매화동으로 들어오는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었다. 오르기 힘들어서 북덕거리는 고개라는 뜻으로 불리던 이름이다. 산업도로가 생긴 후 고개를 깎아 1988년에 포장하였고, 현재는 평지가 되었다.



북덕고개

● 삼년고개

매채기에서 안현동 장낙골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로 길이 좁게 나 있다. 세 개의 고개가 있는데, 세 번 넘어지면 3년을 더 산다는 말이 있다.

● 상나무박이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의 닻줄을 매었다고 할 만큼 오래된 나무였으나 1986년 폭우로 쓰러져 자취를 감추었다. 매채기 중앙에 있었다.

● 서필덕길 · 서편길 · 서편덕길

섬말과 새텃말 사이에 있는 조그만 길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었다. 큰 마을에서 볼 때 서쪽에 있다고 하여 신기동 동네 앞을 칭하는 말이었다. 옛날에는 농지가 여기 저기 있었는데 구역을 부르기 위해 정한 이름 중 하나이다. 지금은 쓰지 않는 지명이다.



서필덕길

● 송장골

매채기 동쪽, 바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의 공동묘지 일대를 말한다.

● 쇠판이산

매채기 앞(남쪽)에 있는 야산으로 예전에 이 산에서 쇠를 파냈다고 한다.

● 용당뿌리 · 용두머리

새릿말 옆(북쪽)으로 안현동 장낙골을 향하고 있는 산줄기 아래인데, 풍수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된다. 용머리와 같은 형상의 언덕이다.

● 이선이골

매채기에서 동쪽의 42번 국도 건너편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현재 종근당제약에서 목초지로 이용하고 있다.

● 작은벌

매채기 큰벌 동쪽으로 야산 옆에 있다.

● 줄왕죽들

매채기 앞(남쪽) 호조벌 내에 있는 들로서 이곳에 줄이 많았는데, 1970년 경지정리하면서 없어졌고 현재는 배수로만 남아 있다.

● 중구다리

매채기 큰벌 남쪽에 있는 다리로 예전에는 하중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 진동고개 · 진동길

도창동 산업도로에서 용두산으로 가는 길을 일컫는다. 길이 낮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마차가 다니던 길이었다.



진동고개

● 청룡뿌리

매채기 쇠판이산 밑으로, 풍수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된다. 1970년대에 목장이 생겼다.

● 큰벌

줄왕죽들 남쪽의, 매화동에서 제일 큰 벌이다.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논으로 개흙이다.

● 한우물

매채기 긴등 너머의, 논 옆에 있는 우물이다. 현재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道頭里)·강창리(江倉里)였는데,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도창리로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도창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매화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3,812명으로 남자 1,970명 여자 1,842명이며 1,323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도두머리)와 강창리가 도창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도창'은 도두리의 '도'자와 강창리의 '창'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
| 三里 | 道頭里 江倉里 | 道倉里 | 道倉洞 |

● 강창리(江倉里)

도창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에서 짐을 내려 이 마을에 있는 창고에 쌓았다고 해서 '강창리'라 부르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서는 보통 '강챙이'라 부른다. 안동 권씨와 파주 염씨의 오랜 세거지인 이 마을은 서쪽 지역을 '건너말', 북쪽 지역을 '웃말'이라 부르고 있다.

● 도두머리[道頭洞]

도창초등학교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도로가 마을 위로 관통하였으므로 '도두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도두동은 1700년대에 이르러 밀양 박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수원 백씨 등이 살아왔다. 예전에는 마을 서쪽 지역을 '아랫말', 동쪽 지역을 '동쪽마을', 마을 중앙을 '가운뎃말'이라 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을과 마을을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호수가 늘었다.



도두머리 경계

● 점말[店村]

도창저수지와 도창초등학교 사이의 42번 국도변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 중엽 때 안경수란 사람이 마을 뒤(동쪽) 산등성이에서 웅기를 구웠다고 한다. 그 후 웅기점은 서경수 씨가 운영하다가 광복 직전에 문을 닫았다. 현재 가마는 없어졌다.



점말

● 가마터

점말 뒤쪽 산등성이로 현재 밭이다. 일제 때 웅기를 구웠던 곳이라고 한다.

● 강챙이고개

도두머리와 강챙이(강창리)를 왕래하는 고개이다.

● 넘어강챙이고개

강챙이 아랫말 남쪽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으면 출왕죽논에 이른다.



강챙이고개

● 능장산

강챙이 서쪽에 있는 야산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이곳에다 능을 쓰러다가 주산이 허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능장뢰' 또는 '능장메'라 부르기도 한다.

● **도당산**

동네에서 가장 주된 산으로 도두머리의 도창교회 뒤에 위치한 산이다. 예전에 도두머리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라 한다. 일명 '사청대' 라고도 한다.

● **도두머리고개**

도두머리와 강창리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는데, 도두머리에서는 '강챙이고개'라 부른다. 길의 초입이라 하여 '길 도(道)' 자에 '머리 두(頭)' 자를 써서 이름하였다.



도두머리고개

● **도창저수지**

점말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39년 매화공려수리 조합에서 매화지구를 위해 설치한 저수지라 하여 '매화저수지'라 했는데,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도창동에 있는 저수지이므로 '도창저수지'라 부르고 있다. 몽리면적 71ha, 제방의 크기는 길이 165m, 높이 6m, 폭 3m로 1941년에 설치되었다.



도창저수지

● **두살미봉 · 매살미봉**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이다.

● **마루미산**

점말 북쪽에 있으며, 파주 염씨의 종산이므로 '마루미산'이라 부른다.

● **망두석**

권종순의 비석 없는 묘가 있는 곳으로, '망두배기'라고도 한다. 망부석 상돌 근처이다. 배로 비석을 나르다가 바다에 빠뜨렸기에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권씨 후손들이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루 시향을 지낸다.

● **말무덤산**

점말 위(북쪽)에 있는 금이동과 경계되는 산으로 안동 권씨 선대의 산소가 있다. 큰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매채기고개 · 매채이고개**

도두머리와 매화동(매채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매화동에서는 '도두머리고개'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우스갯소리 중에 "도두머리에서 도둑질하고 매화리에서 매맞는다"는 말이 있다.

● 모판논

도창초교 앞(동쪽)으로 42번국도 아래에 있는 논이다. 예전에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 뱃모레이

도두머리와 호조벌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를 말한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정박했다고 하는데, 논일을 하다가 쉬는 곳이기도 했다.

● 샘골

42번 국도에서 도두머리 초입에 있는 논에 샘이 잘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산업도로로 나가는 길이다.

● 아래우물

강창리 아랫말에 있는 우물로 주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 앞방죽들

강창리 앞(서쪽)에 있는 들로, 조선시대 이곳에 방죽이 있었다가 농경지로 변모되자 '앞방죽들' 또는 '앞방죽' 이라 부르게 되었다.

● 어령골

점말 뒤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로 도창교회에서 동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산골' 또는 '구령태' 라고도 한다. 무지내동과 과림동으로 가는 길로 현재 군부대가 있고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 웃우물

강창리 마을 중앙에 있다. 마을에서 소중히 하는 우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의 대동우물이었다.



뱃모레이



샘골

● 은행나무재

도두머리 아랫마을에서 매화동으로 가는 길목을 말한다. 현재 도창교회가 있는 자리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작은말고개

강창리 동쪽으로 큰말고개 남쪽에 있다. 점말과 금이동 거멸을 왕래하는 고개이다.

● 장승박이

1970년대 이전 강챙이 주민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도당굿을 지내기 위해 마을 북쪽 산에 천하대장군을 남쪽 산에 지하여장군을 세웠는데, 이 두 곳을 일컬어 '장승박이'라 부르고 있다.

● 점말주막

점말에 있던 주막 자리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도창동 144-22번지에 해당된다.

● 주산이봉

도창초등학교 뒤(서쪽)에 있는 산으로 도창동의 주산이다. 점말에서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 이 산 중턱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놓고 도당제를 지낼 만큼 마을에서 중시하는 산이다.



주산이봉

● 줄왕죽논

강창리 너머 강챙이고개 남쪽에 있는 논으로 줄이 많이 자생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찬우물

점말 마루미산 아래(남쪽)에 있는 우물이다. 물이 차고 맛이 좋아 1970년대 초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마을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 찬우물골

점말 마루미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곳에 찬우물이 있다.

● 큰말고개

도창동에서 가장 큰 고개로 강창리와 점말 사이에 있다. 마을의 장정들이 군에 입대할 때면 반드시 이 고개를 향해 절을 했고, 혼례 때도 신랑·신부들이 다른 고개를 이용해야 했으며, 특히 장례 때 상여는 접근하지 못했을 만큼 신성시하는 고개이다.



제3절 금이동(錦李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사리·오리·육리였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서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금이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자 시흥시 금이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매화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485명으로 남자 262명, 여자 223명이며, 218세대이다.

『조선지리지』 인천부 전반면에 속한 진촌(陣村, 진말)·검의리(儉義里, 검월리)·도현동(桃峴洞, 도리지) 등이 금이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금이’는 거멸(검월리)에 있는 금월산의 ‘금(錦)자와 도리재의 ‘이(李)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1912년 | 1989년 |
|--------------------|-------|-------|
| 四里 五里 儉義里 六里 | 錦李里 | 錦李洞 |

● 거멸

도창저수지와 도리재 사이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5리 검의리였다. 이곳 동쪽에 있는 산을 금월산(錦月山)이라 했는데 점차 음이 변하여 금월산→검월산→거머산으로 변하였다. 마을 동쪽 산 아래에 있는 조선시대 공조판서 신헌(申櫛, 1810~1888)의 묘가 풍수로 보아 금와(金蛙) 형국이므로 '금와'가 '거멸'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덕수 이씨와 온양 방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온양 방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동쪽을 '웃말', 서북쪽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2년마다 음력 10월 3일 밤 12시에 거멸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산에는 '당할아버지'라 부르는 당나무가 있다. 당나무가 고사하여 현재는 바로 옆의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를 당나무로 모신다. 산신제의 역사는 400여 년에 이른다고 전한다.

● 도리재[桃李峴]

거멸 남쪽에 있는 산골 마을로,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솔개고개에서 거멸쪽으로 양지바른 곳에 사람이 살다가 그곳이 물이 귀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6리였다. 마을의 동쪽을 '웃말', 서쪽을 '아랫말', 북쪽을 '양짓말', 남쪽을 '응달말'이라 부르고 있다. 도리재는 오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평산 신씨와 경주 김씨가 살아왔는데, 현재는 평산 신씨와 경주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방죽말

칠리제저수지(방죽말저수지) 주변에 있는 마을로 논곡동과 광명시 학운동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1939년에 저수지가 생기자 논곡동과 거멸 등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도창에서 거멸로 들어가는 길목



도리재



진말

● 서낭대

진말과 거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 중앙에 있는 용달샘 우물을 '서낭당우물'이라 하였는데, 1970년대 초 전라도 주민 등이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물 명칭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 진말

거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길게 늘어선 모양이다. 전주 이씨 경창군파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도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전란이 일어나자 군인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한다.

● 가운데배골

솔고개와 방죽말 사이로 뒤고래실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넘으면 거말에 이른다.

● 각골[角谷]

도리재 솔고개와 윗배골 사이에 있는 산골로 소의 뿔처럼 생겼다. 평산 신씨 선산이다.

● 감자고개

방죽말과 도창동 사이로 수인산업도로 상에 있는 큰 고개이다. 1976년 포장공사를 할 때 고개를 깎았다. 조선 말엽에 이 고개마루에 백발할머니가 살았다 하여 '백발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감조개골 · 감주개고개 · 감조개고개

금이사거리 옆, 수인산업도로에서 군부대 사이로 감조개 옆(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과거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며, 현재 군부대가 있다.

● 갓발산 · 노적봉

도리재 서쪽으로 구렁고개와 먹적골고개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갓처럼 생겼다. 노적가리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노적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산 중턱에서 장석을 채광하기도 하였다.

● 거말산

거말 옷말 뒷산이다. 일제강점기 때 '금월산'이라 칭했는데, 이는 거말산을 한자화하면



갓발산



거말산

서 붙인 산명으로, 금이동의 명칭 가운데 '금(錦)' 자는 이 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함박산'이라 부른다.

● 고쟁이논 · 고개논

고쟁이처럼 생긴 논으로 서낭당 동남쪽인 도리재에 있다.

● 구렁고개

도리재와 거멸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이용되는 고갯길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었다.

● 구레논

거멸 송진논 서쪽에 있는 논으로 인근에서 제일 좋은 논이다.

● 구리밀

도리재 도장골과 구렁골 사이로 조선시대 큰 부자가 살았던 곳이다. 현재도 낫그릇과 불에 탄 쌀 등이 출토되고 있다.

● 노리골

수인산업도로 북쪽으로 도창동 뒤(동쪽)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이다.

● 느티나무

도리재 마을회관 옆에 있는 수령 350~400년 된 나무로 높이 15m, 둘레 세 아름이다. 어떤 이는 수령이 900년이라고도 한다. 마을 앞의 기운이 허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심었다고 전하는데 현재 3그루가 남아 있다.

● 늘우물

방죽말에서 도리재로 가는 초입의 논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주 먼 옛날 중국의 어느 노파가 천하명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우물을 찾기 위해 왔다가, 방죽말 초입에 사는 농부에게 묻자 모른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갔다. 그 후 서정만이란 사람이 부친의 묘를 이 우물 동쪽 쑥고개에다 쓴 후 중국으로 건너가 영의정을 지냈다고 한다.

● 능너머 · 능재

도리재 웃말 서쪽으로 운흥산 줄기이다. 예전에 왕이 행차했던 고개라고도 하며, 전설에 따르면 조선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의 묘를 이곳



능너머

에 쓰러다가 터가 좁아서 안산시 목내동 능안으로 옮겼다고 한다. 일명 '능째' 라고도 한다.

● 니피골

거멸 메나골 동쪽의 작은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 다방골

도리재 장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도리재 윗말 위
가 된다.

● 도당산

거멸산 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 밑에 도당나무(소나무)
가 있어 거멸 사람들이 2년마다 짝수 해에 한 번씩 당제
를 지낸다. 깊지 않은 산으로 파평 윤씨의 종산이다.

● 도당산우물

거멸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에 쓰이는
우물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며 부정을 막기 위해 제관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우물에 몸을 씻는다.

● 도리산(桃李山·道李山)

금이동 도리재와 논곡동 논곡을 경계짓는 산으로 높이
142m이다. 도리재 마을 뒤에 있는 산이므로 '도리산' 이
라 부르고 있다.

● 도장골

도리재 솔개고개에서 서북쪽으로 회양목이 많은 골짜기이다. 현재 공동묘지가 있다.

● 동막골

금이2동에 있는 운흥산 북쪽으로 도리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조선시대 절충
장군 신용(申鎔)과 용양위부사과 신사봉(申思奉)의 묘가 있다.

● 동구미논·동구미논

거멸 윗말 남쪽에 있다. 예전에 벼를 수확할 때 동구미(메꾸리)를 둘러메고 이삭만 훑었
다고 한다. 논에서 수확한 벼를 타작하면 동구미 몇 개 밖에 안 나올 만큼 수확량이 적었던
논이라고도 한다.

● 뒤우물

도리재 뒤에 있는 우물로 양지말의 식수원이었다.



도당산제사터



도당산우물

● **뒷고래실들**

도리재 솔개고개와 방죽말 사이의 길에서 동쪽에 있는 들이다.

● **뒷골**

도리재 장착골고개 뒤(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 큰 바위 앞에서 무녀(巫女)들이 가끔 치성을 드리고 있다.

● **뒷논들**

도리재 뒤(동북쪽)에 있는 논이다.

● **마름자골**

정자산과 봉래산 사이에 있는 산골이다. 현재 밤나무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 **마섬재**

거멸 아랫말 초입과 찬우물산 서쪽 산줄기가 맞닿은 곳을 말한다. 도창저수지 끝에 해당된다.

● **막은골**

거멸 웃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음골' 이라고도 한다. 현재 일부는 농경지이다.

● **막은골고개**

거멸 웃말과 무지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1972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어 지금은 마을을 지나는 길이 되었다.



막은골고개

● **만재골**

도리재 봉재산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예전에 이곳을 거쳐 물왕동과 왕래하였다.

● **말무덤**

도리재 소라터 안에 있는 무덤이다. 큰 묘이므로 '말무덤' 이라 칭한다.

● **먹적골고개**

풍수로 보아 소의 먹적처럼 생긴 고개이다. 거멸 아랫말과 서당대 사이를 왕래하는 비포장 소로이다.

● **메나골**

거멸 먹적골고개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현재 농경지이다.

● **무덤골**

쑥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좁고 길다. 일명 '모뎡골' 이라 부르기도 한다.

● 무재비논

정자산과 먹적골 사이에 있는 논이다. 이 논에 물을 저수했다가 모낼 때 사용하는데, 본래의 이름은 '물잡이논' 이라고 한다.

● 바래기논

거멸 벌논과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는 논으로, 토질이 좋으며 수답이다.

● 방죽말저수지

금이동·논곡동·광명시 학운동의 경계가 맞닿은 곳에 있는 저수지이다. 이곳에서 무지동 능안말에 이르는 들이 7리가 되므로 '칠리제저수지' 라고 하나 사람들은 '방죽말저수지' 라 부르고 있다. 1939년 9월 2일에 설치된 이 저수지는 몽리 면적 107.6ha, 제방 길이 289m, 높이 5.20m, 폭 3m이다.



방죽말저수지

● 벌논

도창저수지와 바래기논 사이에 있다. 본래 건답인데 저수지 설치로 인해 수답이 되었다.

● 병마골

동막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의 목처럼 입이 좁으나 안은 넓다.

● 봉재산①

도리재 마을회관 남쪽에 있는 산으로 정상에서 부엉이가 울어 '봉재산' 이라 부른다.

● 봉재산②

거멸 아랫마을 북쪽에 있고 거멸산에서 보아 서쪽이다. 부엉이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 부엉바위

쑥고개 마루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 형상을 하고 있다. 일설에는 바위의 머리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이곳을 명당이라고 한다.

● 불당골

방죽말 주막거리에서 무지내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조선 말엽에 절이 있었던 곳이다.

● 샷갓배미

쑥고개 모딩골 안에 있는 다랑치논으로 샷갓에 비유할 만큼 작은 논이다.

● 샘재우물

도리재 아랫말과 구렁골 사이에 있는 우물로,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 **섬배미**

섬처럼 생긴 700평 가량의 큰 논으로, 진말과 먹적골 사이에 있다.

● **소라터**

도리재 장착골고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0m 지점이다. 소라는 본래 '숫대'라 하여 다음 해의 풍년을 바라는 뜻으로 벼씨를 주머니에 넣어 높이 달아매는 장대를 말한다. 이곳에 소라가 있었다 하나 자세히 알 수가 없다.

● **솔개고개**

방죽말과 도리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썩고개와 논곡동에 이른다. 이곳의 풍수가 솔개혈에 해당된다고 한다. 고개마루에 도리재 출신 신명균(申明均, 1881년생)이 일제 초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는데, 조금 자라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서낭나무가 되었다. 1980년대 초에 길이 포장되었다.

● **솔개골**

태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솔개혈이라고 한다. 현재 일부는 농경지이다.

● **송진논**

수인산업도로에서 거멀로 가는 초입에 있는 논으로, 토양이 차져서 송진같이 끈끈하다.

● **수령논**

송진골 위로 절골 서쪽에 있는 논이다. 수령으로 샘이 잘 나와 아무리 가물어도 모를 맬 수 있다고 한다.

● **숲살막**

도리재 마을 중앙에 느티나무 5그루가 있는 곳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마을의 재난과 병고가 없다고 하여 심은 것이라고 한다.

● **썩고개**

솔개고개에서 동쪽으로 논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썩이 많이 나는 고개였다고 한다. 서정만이란 사람이 이곳에 묘를 쓰고 중국에 가서 영의정을 지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인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이곳에 회(灰)를 부어 혈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다. 일제 때 여흥 민씨 문중에서 묘를 쓰러다가 반대에 부딪혀 쓰지 못했다고도 한다. 1970년대에 영등포교회 묘지가 생겼다.

● **썩세미논**

거멀 건너말 북쪽, 아랫말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논으로 토질이 좋다.

● 안장바위

운흥산 정상에서 도리재 마을 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의 안장처럼 생긴 바위이다.

● 앉고래실들

도리재 앞(서쪽)에 있는 들이다. 옥답으로 일명 '서낭당들' 이라 부르기도 한다.

● 연못배미

동막골 안에 있다. 평산 신씨 선대의 묘를 쓸 때 이곳에 연못을 판는데, 그 후 논으로 변모하자 '연못배미' 라 부르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다시 연못이 되었다.

● 영세들

방죽말저수지 제방 아래(동북쪽)에 있는 넓은 들이다. 조선시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영세들에 모를 다 냈는가 알아보고 오라' 고 할 만큼 중국에서조차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이는 이곳이 지대가 높고 토질이 건조해 큰 비가 와야 낼 수 있을 만큼 물이 귀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다. 1939년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리안전답이 되었다.

● 아래서낭당

도리재에서 물왕동 얼미 가는 길에 있는 나무로 본래 2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불에 탔다고 하며, 현재 남은 한 그루도 1980년대 초에 길을 넓히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불을 놓아 일부가 탔다.

● 오매기골

거멀 노리골 서쪽으로 골짜기가 작고 오목하게 생겼다. 현재 군부대 사격장이 있다.

● 온수물

도리재 동막골 안에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 제5대 임금인 문종이 그의 비(妃)인 현덕 왕후의 뗏자리를 잡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갈증이 나자 물을 마셨는데 물이 따뜻했다 하여 그 후부터 이 우물을 '온수정(溫水井)' 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 운흥산

금이동·논곡동·물왕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높이는 204m이다. 중국의 운흥산과 모양이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아주 먼 옛날 천지개벽이 있었을 때 물이 넘쳐



운흥산

산이 은행만큼 남아 '은행산' 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운흥산' 으로 되었다고 한다. 1976년에 산 정상에서 선사시대 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 **웃서낭당**

솔개고개 마루에 아래 서낭당과 함께 있었고,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나무를 베었다.

● **자라등**

도리재 동막골에 있는 조선시대 부호군 신재정(申在貞)의 묘가 있는 곳이다. 풍수로 보아 자라 등에 해당된다고 한다.

● **장수공기돌**

운흥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있는 돌이다.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돌을 공기돌로 사용했다고 한다. 1976년에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된 곳이다.

● **장착골**

도리재 웃말에서 동북쪽의 산골짜기이다.

● **장착골고개**

도리재 웃말과 솔개고개 사이의 고개로, 1988년에 고개를 낮추었으며 비포장 농로이다.

● **정자산**

도리재와 물왕동 얼미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평산 신씨의 종산으로 이곳에 조선시대 사헌부장령 신명윤(申命允)과 인제현감 신태동(申泰東)의 묘가 있다.

● **주막거리①**

방죽말과 칠리제저수지 사이(금이동 39번지)에 일제강점기 말엽까지 주막이 있었다. 이곳은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인천과 수원을 왕래하는 길목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막이 번창했으나 저수지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주막자리는 현재 밭이다.

● **주막거리②**

도리재 아랫말에 있는 길가에 조선 말엽 주막이 생겼다가 일제강점기 말엽에 오가는 사람이 뜸해 장사가 안 되자 문을 닫았다.

● **찬우물**

찬우물산 아래에 있는 우물로 물이 차다.

● **찬우물논**

거밀 아랫말과 수인산업도로 사이의 구레논 서쪽에 있다. 논 안에 찬우물이 있다.



찬우물산

● 찬우물산

거멸 아랫말에 위치한 산으로 옛날에 뱀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흔히 '뱀산' 이라 부른다.

● 큰우물

도리재 건너말과 양지말 사이에 있는 우물로 물맛이 좋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의 식수였다.

● 태봉(胎峰)

방죽말에서 도리재 입구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어느 왕자의 태를 묻었다고 하나 자세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정상에 묘가 있다. '태장뿌리' 라 부르기도 한다.

● 풀무간

도리재 뒷산 3부 능선 지점으로 깊은 산 속인데, 나무보다 풀이 많다.

● 한이매고개

거멸 아랫말과 무지내동 사이에 위치한 고개로 아랫말 뒤에 있다.

● 한이매골

거멸 아랫말 뒤(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길며, 현재는 농경지이다.

● 할미고개

도리재와 동막골 사이의 고개로 할머니 등처럼 꼬불꼬불하다. 땀나무 지계를 지고 다니던 좁은 길이다.

● 호랑이바위

방죽말 서남쪽으로 산 밑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던 바위가 있었는데, 1958년에 수인산업도로 4차선 확장공사 때 없어졌다. 구전에 따르면 이 바위 때문에 방죽말에 개가 잘 크지 못했다고 한다.

● 활터

도리재 봉재산 중턱이다. 이곳에서 조선 말엽에 도리재 주민들이 활을 쏘았는데, 현재는 밭으로 변모되었다.

牧甘洞

제6장 목감동

- 제1절 물왕동
- 제2절 산현동
- 제3절 조남동
- 제4절 논곡동
- 제5절 목감동



제1절 물왕동(物旺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草山面)의 물왕리(物旺里)와 상직리(上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¹⁾로 안산군내 동리(洞里)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물왕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²⁾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³⁾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郡內面)·인화면(仁化面)·초산면을 합쳐 수암면(秀岩面)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물왕동(법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목감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97명으로 남자가 199명, 여자가 198명이며, 154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초산면 소속으로 '물항동리(勿項洞里)'와 '상직곶리(上職串里)'가 나온다. 『조선지리지』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물왕리를 '물왕골'로, 상직리를 '얼미'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물왕동 주변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勿項洞里 | 물왕골(物旺里) | 物旺里 | 物旺洞 |
| 上職串里 | 얼미(上職里) | | |

1) 『朝鮮總督府官報』明治45년(1912) 2월 8일자 호외.
 2) 『朝鮮總督府官報』大正2년(1913) 12월 29일자 호외.
 3) 『朝鮮總督府官報』大正3년(1914) 3월 13일자 호외.

● 능골



능골

장자골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이곳 앞(동쪽)에 있는 산이 광산 김씨의 종산으로 산 중턱이 능을 쓸 수 있을 만큼 명당 자리라고 한다. 이 마을은 그곳 아래에 위치한 취락이라 하여 '능골'이라 불렀다 한다. 마을에서는 안골·장자골·물왕골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안골 도당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내오고 있다.

● 물왕골[物旺谷]



물왕골

물왕저수지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예로부터 물이 많은 고을이라 하여 '수다동(水多洞)' 또는 '수동(水洞)'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닿았다 하여 '항동[港谷]'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렇듯 이곳은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목 또한 울창해 만물이 왕성한 마을이라 하여 '물왕골'이라 부른다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오해이다. 『호구총수』에 따르면 이 마을 지명이 '물항동리'였는데, 이로 보아 '물왕동'은 '물항동'의 발음이 변하여 나온 것이고, 따라서 '왕(旺)'자의 뜻을 새겨 '만물이 왕성한 마을'이라는 설명은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물왕골은 진천 송씨와 성주 이씨가 처음 세거한 후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는데, 진천 송씨는 강희안의 외손 송평(宋平)이, 성주 이씨는 이군미(李君美)가 입향자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에서는 안말·장자골·능골 등의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안골 도당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 안말

삼태기처럼 오목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안말'이라 부르는데 물왕저수지와 금이동도리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진천 송씨와 성주 이씨가 처음 세거한 마을로 예조좌랑 송윤중·내섬지정 송평·침지중추부사 송복견·해주목사 송거·종사랑 이군미·용양위부사와 이광원·참봉시직 이하보 등의 묘가 있다.

● 얼미[上職]·월미

물왕저수지 서북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이곳 뒷산에 높은 관직을 역임한 분의 묘가 있어 '상직리'라 했다. 그런데 '얼미'라는 마을 명칭은 그 높은 분의 묘하에 사람의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줄을 매고 얼씬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 마을 뒷산의 형국이 반달이 떠 와서 얹혀 있는 모양이라 하여 '월미(月尾)'라 했다는 설도 있는데, 인천의 유명한 '월미도(月尾島)'의 예를 볼 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월미도의 옛 이름은 '어을미도(漁乙味島)'여서 '월'은 '어을'을 한자로 표현한 차자(借字)일 따름이다. 이로 보아 얼미 역시 '어을미'에 가깝게 발음되는 고유어의 표현으로 짐작되며, 특히 '을(乙)'자는 '돌(乙)'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리' 받침을 한자로 표기할 때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을미' 자체가 '얼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미

얼미는 전주 이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 취락이 이루어진 마을로, 현재는 밀양 박씨와 순흥 안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마을 중앙에서 볼 때 남쪽지역을 '웃말', 서남쪽 지역을 '비석거리', 서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 장자골

안골과 능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말엽에 큰 부자가 살았으므로 '장자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안말·물왕골·능골 주민들이 함께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 안골 도당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내 오고 있다.

● 가마골

운흥산 밑(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이곳에 그릇을 굽던 가마터가 있어 '가마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 가재구렁텅이

얼미 남쪽으로 주막거리와 관모산 사이를 말한다. 이곳 골짜기에 물이 잘 나므로 가재가 많아 '가재구렁텅이'라 한다.

● 개랭이

장자골 동쪽의 골짜기로, 현재 밤나무가 많다.

● 곰박골

물왕교회 뒤편의 골짜기이다.

● 너머장자골

장자골과 물왕교회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이고 일부는 밭이다.

● 돌박이

물왕저수지 수문이 있는 곳으로 저수지가 설치되기 전에는 관모산의 내령으로 돌이 많아 '돌뿌리'라 불렀다.

● 모래논들

물왕저수지가 설치되기 전 중앙에 큰 둑이 있었는데, 일제 초에 큰 비가 내려 그 둑이 터지자 인근의 논이 모래로 쌓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인근을 '모래논들'이라 불렀다.

● 물왕저수지

물왕골과 산현동 사이에 있다. 물왕동에 있기 때문에 흔히 '물왕저수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식명칭은 준공 당시에 몽리구역이 시흥군과 부천군(현 소래읍)에 이르므로 시흥군의 '흥'자와 부천군의 '부'자를 딴 '흥부저수지'이다.



물왕저수지

이 저수지는 몽리면적 793ha에 유역면적 1,320ha이며, 제방의 크기는 길이가 290m, 높이 10m, 폭 4.5m로 총저수량 199만 4,000t, 유효저수량 189만 4,000t이며 1945년 준공되었다.

● 보통내[普通川]·물왕천

조남동 동남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물왕저수지를 거쳐 광석동·하상동을 지나 하중동에서 서해 바다에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보통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안산군 산천(山川)조에는 “포오천(浦吾川)을 가리켜 “군의 북쪽 12리에 있다” 하였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서쪽 10리에 있는데 수리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하였다. 한편 『경기지(京畿誌)』 안산군 대천(大川)조에는 ‘포오천’ 대신 ‘본천(本川)’을 “초산면 조남리에 있으며 응봉(鷹峯) 아래로부터 발원하여 관곡(官谷)에 이르러 그치는데, 두 냇가 함께 산곡(山谷) 사이를 흐른다. 가물면 갑자기 말라버리므로 관개(灌溉)시설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설명의 내용으로 보아 ‘본천’이 곧 ‘포오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름이 바뀐 이유는 알 수 없다. 『기전읍지(畿甸邑誌)』 안산군 산천조에는 다시 ‘포오천’이 등장하는데, “지금의 보통천으로서, 군의 북쪽 12리에 있다”고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서는 보통천을 ‘보통내’라 적고, 조남리의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원래 ‘포오천’이라 불리다가 조선 후기엔 일시적으로 ‘본천’으로도 적었고, 나중에 와전되어 ‘보통천’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한다.

● 박석고개

안골과 금이동 도리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端宗)이 안산시 목



박석고개

내동 능안에 있는 어머니 현덕왕후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이 고개를 넘을 때 이곳 주민들이 박석을 깔았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단종실록(端宗實錄)』에 따르면 단종 2년(1454)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안산으로 거동하였는데, 그 사실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추정된다.

● 벌논들

물왕저수지 수문 일대를 말한다. 1945년 물왕저수지가 설치되자 수몰되었다.

● 비석거리

물왕골·얼미·나븐들을 잇는 삼각지점에 안산군수·경기관찰사 등의 선정비가 많아 '비석거리'라 했다. 그런데 광복직후 일부가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원래 자리에서 서쪽으로 옮겨진 곳에 세 기가 남아있다. 흔히 '물왕동 선정비군'이라 부른다.



물왕동 선정비군

● 사냥바위

장자골과 운흥산 사이에 있는 바위로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이 바위에 숨어 망을 보았다고 한다.

● 사등지①

가마골과 건너말 사이 길게 내려온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 사등지②

장자골과 능골 사이의 길게 내려온 산등성이로 현재 물왕교회가 있다.

● 서정(瑞井)

안골 송평의 묘에서 서쪽으로 약 60m 지점에 있는 우물이다.

● 서정골

서정 밑(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주택과 농장이 있다.

● 월미교

비석거리와 얼미 사이에 있는 다리로 1970년대 경지정리 때 가설되었다.

● 웃골

능골 마을에서 운흥산 방향으로 맨 위쪽을 가리킨다.

● 장등(長登)

서정에서 동쪽으로 긴 능선을 말하며, 송평의 묘가 있다.



장등

● 정자산(程子山)

얼미 옷말 뒤에 있는 산으로 얼미와 금이동 도리재 사이에 걸쳐 있다. 본래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현재의 자리에 취락이 형성되었다.

● 주막거리

비석거리와 물왕골 및 나븐들을 잇는 삼각 교차지점에 있는 주막이다.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에 “초산면 광석리에 주막이 있다(草山面 廣石里有店幕)”란 기록으로 보아 이곳의 주막은 조선시대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곳은 능곡동·하상동·광석동 주민들이 안산(현 수암리)·안양·한양을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만큼 교통의 요충지여서 주막 또한 번창했다고 한다.

● 통수바위

장자골 동쪽으로 운흥산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어느 도인이 이 바위에 앉아 통수를 붙었다고 한다.

● 황새모래이

안골 입구 서쪽 산모퉁이로 이곳이 황새의 서식처이므로 ‘황새모래이’라 한다.

● 행자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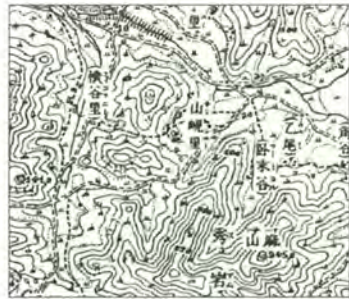
능골 앞(남쪽)의 골짜기 이름으로, 현재 수녀원이 위치한 곳이다.

제2절 산현동(山峴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의 산현리(山峴里)와 궤곡리(橫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산현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산현동 주변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산현동(법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목감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542명으로 남자가 299명, 여자가 243명이며, 252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초산면 소속으로 산현리와 궤곡리가 없다. 이로 보아 조선 말기에 새로 생긴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산현리를 '퇴재'로, 궤곡리의 궤곡을 '살디골'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 | 퇴재(山峴里) | 山峴里 | 山峴洞 |
| | 살디골(橫谷里) | | |

한편 조선시대에 산현동에 거주하였던 이병황(李秉璜)과 그 손자인 이재용(李在容)이 1848년부터 1891년 사이에 안산군에서 발급받은 준호구(准戶口)가 8점 남아 있는데 모두 '산현리'란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 『호구총수』에는 기록이 없지만 조선 후기에 마을이 형성되었음은 분명하다.

● 골월

물왕저수지 제방 남쪽으로 깨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본래 왕골이 많이 자생한다 하여 '완골[莞谷]'이라 했었다. 그후 고주물고개에서 골월에 이르는 골짜기의 길이가 5리라 하여 '골오리'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골월'로 되었다.

이곳은 파평 윤씨인 윤승유의 후손이 처음 있었고, 그 후 안동 권씨인 권택길(1594~1665, 호조참판)의 후손 등이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 이곳에는 조선 태종 때 찬성을 역임한 이숙번(1373~1440)의 묘가 있다.

● 깨골·깨골

고주물고개·골월고개와 골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파평 윤씨 24세손으로 사복시정을 역임한 윤승유(1475~1505)란 분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살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후 그의 고손인 윤민현(1562~1628)의 묘를 마을 뒤(동쪽)에 썼는데, 풍수로 보아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형국이고, 묘 앞쪽(남쪽)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개꼬리형국이라 하여 이 일대를 '개꼬리골'이라 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깨골'이 되었으며 사슴목장이 있는 남쪽 지역은 '너머깨골'이라 부르고 있다.

● 묘재[山峴]

이곳은 마하산과 오자봉 등 산과 피흘리고개·느낭고개 등 고개가 많은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묘재'라 부르고 있는데, 원래 발음은 '뫼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재는 전주 이씨 익양군 후손인 성흥군 이응순이란 분이 관직에서 물러나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 사티골[生谷]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마을로서, 임진왜란때 인근의 마을이 모두 폐허가 되었으나 이곳은 산간벽지의 마



골월



깨골



묘재



고주물고개



관모산

을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살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하여 '살대곡'이라 했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티울'로 되었고 현재는 '사티골'이 되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괘화동'이라 했다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괘곡동'이라 하였다.

사티골은 문화 류씨의 오랜 세거지로 깨골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윤엄(1536~1581), 윤지함, 창령현감 윤민철, 영평위 윤섭 등의 묘가 있다.

● 아랫말

물왕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로 묘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아랫말'이라 부른다.

● 가재골

샘이 잘 나고 가재가 많은 골짜기로 사당골 남쪽에 있다.

● 고주물고개

깨골과 화정동 고주물 사이에 있는 고개로 고주물에서는 '골월고개'라 부르고 있다.

● 꽃밭뿌리

묘재에서 피흘리고개로 가는 초입의 왼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 관모산(冠帽山)

골월 뒤(서쪽)에 있는 산으로 관을 쓰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성인산(聖人山)'이라 부르기도 하고, 황새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관무산(鸛舞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갓피산'·'갈매산'·'갈매봉' 등 여러 가지 이칭(異稱)이 있어 정확한 유래를 알기 어렵다.

● 구레논들

진이시들과 벌논들 사이에 있었고 1942년 흥부저수지(물왕저수지) 설치로 수몰되었다.

● 금녕골

금녕 김씨 선대의 묘가 있는 골짜기로 승지골 북쪽에 위치한다.

● 긴골

승지골 남쪽에 있는 산골로 골짜기가 길다.

● 너빌고개

화정동 너빌과 산현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며 농로로 포장되었다.

● 누낭고개[淚囊峴]

피흘리고개 서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묘재와 사티골 사이에 있다. 임진왜란 때 피흘리고개에서 일본군이 관군에게 대패하자 일본군 장수가 이 고개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누낭고개'라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 능골고개

사티골과 능곡동 능골 사이의 고개로 능골에서는 '사티골고개' 라 부르고 있다.

● 뒷강골

사티골의 북쪽 골짜기이다.

● 마하산(麻河山) · 마산(麻山)



마산

산현동 · 조남동 · 화정동 및 안산시 양상동을 잇는 높이 246m 산으로 조선시대부터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산이다. 조선 전기의 『동국여지승람』 안산군 산천조에 '마하산은 읍치(邑治)의 서쪽 5리에 있다'고 기록된 이래,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또 『경기지』(1843)와 『기전읍지』(1894), 『조선지지자료』에는 '마하산(麻霞山)으로 기록되었다.

구전에 따르면 멀리 삼한시대에 이 산 봉우리 동굴에서 마귀할머니가 아들 딸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굴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 출입에 지장을 주자 아들과 딸이 한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밑으로 떨어뜨렸으나 기진맥진하여 지쳐서 죽자 마귀할머니도 이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마귀할머니가 살았던 산이라 하여 '마산'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천마산'이라고도 한다.

● 막자골

피흘리고개 초입의 골짜기로 피를 막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묘재고개

골월과 묘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1987년에 포장되었다.

● 바람골

사티골 앞의 건너편 골짜기이다.

● 박씨골

피흘리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박씨의 묘가 있어 '박씨골'이라 부른다.

● 불당골

삼박골 왼쪽의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사당골

깨골 뒤(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 성종의 사위인 윤섭(1492~1516)의 사당이 있으므로 '사당골'이라 부르고 있다.

● 산소골 · 불당골

이숙변 묘의 앞(동쪽) 골짜기이다.

● 삼박골

사티골에서 능골로 넘어가는 고개 왼쪽의 골짜기로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삼태골

애모골에서 가장 위쪽의 골짜기로서 삼태기 모양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상식골

사티골에서 안산시 화정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도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능골

사티골에서 능골로 넘어가는 고개 오른쪽의 골짜기이다.

● 선바위

쓰레봉 정상에 바위가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선바위'라 부르고 있는데, 일명 '장군바위' 또는 '병풍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 소죽골

골월과 묘재 사이에 있다. 풍수로 보아 구용(구유) 즉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소죽통처럼 생긴 골짜기이다.

● 승지골

연평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조선시대에 승지를 역임한 분의 묘가 있어 '승지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누구의 묘 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승지골

● 쓰레봉

애모곡 뒤(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쓰레처럼 생겼는데, 풍수로 보아 천리마가 뛰는 형국이라 한다. '구절봉' · '선바위산' · '오자봉' 등 이칭이 많다.

● 안살미

골월 앞(동쪽), 소죽골 북쪽의 큰 산 이름이다.

● 안장바위

깨골 동쪽 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이곳에 조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1635~1718)의 묘를 썼는데, 이 묘자리가 풍수로 보아 사람이 말을 타고 물을 건너는 형국이었다.

묘를 쓴 후 웬일인지 서해에서 임금에게 진상하는 조기가 잡히질 않아 어부들이 상소를 올려 결국에는 묘를 개성 천리산으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안장바위는 기마도수형국 옆에 있는 바위란 뜻으로 붙여진 것이다.

● 애모골[愛母谷]

묘재 서편에 있는 골짜기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있는 형국으로 '왜무골'이라 칭하기도 하며, 조선 말엽에 이곳에서 질그릇을 굽던 곳이라 하여 '점촌(店村)'이라 부르기도 한다.

● 영평골

깨골 서쪽에 있다. 이곳에 조선 성종의 열한 번째 딸인 정숙옹주와 부군인 영평위(鈴平尉) 윤섭(尹燮)의 묘가 있어 '영평골'이라 부르고 있다.

● 오리나무골

애모골의 삼태골 바로 아래 골짜기로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오자봉

마산의 서백으로 봉우리가 5개이므로 '오자봉'이라 부른다. 또한 이를 일명 '쓰레봉'이라고도 한다.

● 우물골

금녕골 북쪽 골짜기로, 골월의 상수원이 있다.

● 작은호통골

큰호통골 옆(북쪽)에 있으며 골짜기의 통이 짧고 작아 '작은호통골'이라 한다.

● 절골

패래골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조선 중엽에 절이 있었다가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 점뿌리·솔밭모퉁이

애모골 초입의 소나무가 많은 구릉을 가리킨다.

● 진이시들

진로 별장 앞에 있던 들로 1942년 홍부저수지를 설치할 때 수몰되었다.

● 천마산

너빌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화정동 너빌과 산현동을 잇고 있다. 풍수로 보아 천리마형 국이라 한다.

● 축실고개

사티골과 광석동 축실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농로이며 비포장이다.

● 큰호통골

마산과 애모곡 사이에 있으며 통이 큰 골짜기라 하여 '큰호통골' 이라 부른다.

● 패래골

사티골 서북쪽으로 이곳 골짜기에 패랭이풀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패래골' 이라 부른다.

● 피흘리고개[血峴]

묘재와 사티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조선지리지』에 따르면 “산현리의 남쪽에 있는데, 임진왜란 때 패한 군사들이 피를 흘린 땅이라 한다” 하였다. 이때 패한 군대는 일본의 삼천 병마라는 이야기가 있다.



피흘리고개

● 피바위

피흘리고개 오르기 전의 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피가 묻어 바위가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행구라골

물왕동과 조남동 남왕 사이로 물왕저수지 초입 양회다리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제3절 조남동(鳥南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의 조남리(鳥南里)와 제청리(祭廳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조남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조남동(법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목감동에 속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6,002명으로 남자가 3,027명, 여자가 2,975명이며 2,167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초산면 소속으로 '조남리'와 '제청리'가 없다. 『조선지리지』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조남리를 '새암이'로, 제청리를 '장군젯'이라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조남동 주변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 | 새암이(鳥南里) | 鳥南里 | 鳥南洞 |
| - | 장군젯(祭廳里) | | |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조선 고종 21년(1884)에 작성된 「安山草山面祭廳里牧巖里三所任等白活」이란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청리'가 나오고 있어 지명의 구체적 사용 사례를 보여준다.

● 남왕

논곡사거리와 물왕저수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조선 중엽에 이르러 신흥부원군 장유의 후손인 덕수 장씨와 김해 김씨 구직파 후손이 처음 정착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남성혈이다. 을미 뒤에 있는 옥녀봉의 옥녀가 이곳으로 시집오면 번창하는 마을이라 하여 '남왕'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이곳이 남향반이에 자리잡은 취락이고, 마을 앞에 있는 들이 기름진 옥토여서 크게 번성한다 하여 '남왕'이라 했다고도 한다. 남왕 마을 동쪽인 새미 초입 다리 옆에 조선 말엽에 주막이 있었으므로 그 인근을 '주막거리'라 한다.

● 방화

소릉뚝 남쪽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뽕족하게 돌출된 땅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 있는 조관빈(1691~1757, 예조판서)의 묘가 풍수로 보아 나비가 꽃을 찾는 방화수류형국이라 하여 '방화'라 불렀다고 한다.



방화

방화는 양주 조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경주 최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현재는 경주 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조관빈과, 구한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순국한 조병세(1827~1905) 선생의 묘가 있다.

● 사래기

진주 강씨와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가 내려와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사래기'라 부르고 있다. 장자터와 (주)한샘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 새미

남왕과 소릉외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서 뒷산의 모습이 새가 남쪽으로 머리를 조아린 형상이라 하여 '새미'라 부르고 있다. 새미는 밀양 박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진주 류씨·전주 이씨·달성 서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동쪽 지역을 '웃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 중양을 '가운데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새미

● 소릉외

방화와 새미 사이 작은 구릉지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배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평산 신씨·경주 최씨 등이 살아오고 있다.

● 양단말

장승박이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남향말이 마을이라 '양단말'이라 부른다. 덕수 장씨가 처음 세거한 양단말은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응단말·장승박이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장승박이 동쪽과 응단말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을미



을미

물왕저수지 동남쪽에 있다. 평산 신씨와 나주 임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나주 임씨가 많이 살고 있다. 이 마을 뒤(북쪽)에 있는 옥녀봉의 산세가 풍수로 보아 옥녀가 꼬리를 감춘 형국이므로 '을미[隱美]라 부르고 있다.

을미의 서쪽 지역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형국이라 하여 '애모곡'(또는 왜무골)이라 부르고 인성농장이 있는 동남쪽 지역은 옥녀가 시집가는 형국이라 하여 '가골'이라 부른다.

● 응단말

장승박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북향말이에 자리잡아 해가 비추지 아니하므로 '응단말'이라 부르고 있다. 인선왕후(효종의 비)의 아버지인 신흥부원군 장유(1587~1638)의 후손(덕수 장씨)과 동지중추부사 김유향의 후손(김해 김씨 구직파)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 취락이 이루어졌다.

응단말은 북쪽에 있는 양단말, 서북쪽에 있는 장승박이를 통칭해 '장군곡'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장유의 묘가 이곳 동쪽 기슭에 있으므로 그의 성씨와 군호를 딴 것이며 일명 '장군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1일이면 장승박이 동쪽과 응단말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 장승박이

양단말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일제 때 박태섭이란 분이 이곳에서 술장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 충남 아산군 출신인 창령 조씨 등이 세거하면서부터 호수가 급격히 늘어 취락이 형성되었다. '장승박이'란 마을 명칭은 이곳 동쪽 산기슭에 장승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장자터

사래기 서남쪽의 마을로 현 황한농장 자리(조남동 산76)에 조선시대에 큰 부자가 살았다 하여 '장자터'라 부르고 있다. 달성 서씨와 밀양 손씨 등이 세거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 강릉닭뿌리

용담골 오른쪽 위의 골짜기 이름이다.

● 개자리골

가골 서쪽 골짜기로, 인송목장 주변이다.

● 거지아가리

소릉외 남쪽 큰 길 옆의 산등성이이다.

● 골안

옥녀봉 북쪽의 조그만 골짜기이다.

● 군관이들[軍官坪]

남왕 극동기연 공장 주변 일대를 일컫는다.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조남리의 앞에 있는데 임진왜란 때 진을 쳤던 곳이다”라고 하였다.

● 깃대박이

임진왜란 때 어느 장수가 지금의 남왕 말무덤 고개에다 깃발을 박았다 하여 그 곳을 '깃대박이'라 부르고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남왕과 산현동·물왕동에 이르는 여러 지역이 격전지였다는 전설이 있다.

● 남사박고개

남사박과 (주) 한샘 사이에 있는데, 비포장 소로이다.

● 낭대

큰보래미에 있는 지명이다.

● **녹색골**

새미 뒤(북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장승박이에서는 서남쪽이 된다. 이 골짜기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녹색골'이라 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골이고 일부는 농경지이다. 모르모트 사육장이 있었다가 1986년에 없어졌다고 한다.

● **능모래이**

남왕 주막거리와 장군재 사이의 산모퉁이를 말한다. 조선시대 능 후보지였다고 한다.

● **달들**

새미 아랫말 앞(서쪽)에 있는 들로 천수답이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지하수 개발로 인해 수답이 되었는데, '다니들'이라고도 한다.

● **도깨비골**

응단말 절골 동쪽에 있다. 비가 오면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하여 '도깨비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특히 달걀귀신이 많았다고 한다.

● **도티골**

회가마골과 상박골 사이의 골짜기이다.

● **뒤골**

남왕 뒤에 있는 골짜기로 '뒷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곳에 김해 김씨 구직파 선대의 묘가 있다.

● **뒤밀**

녹색골 옆의 오목한 곳으로 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통과하여 흔적이 없다.

● **막은고개**

장승박이에서 안양시 박달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조선시대에는 안산서 안양을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이용했는데, 신작로가 생기면서 폐로되었다.

● **만리박**

남왕 앞(남쪽)을 말한다. 풍수로 보아 천리마가 만리를 달리는 형국이다.

● **말무덤고개**

동보화학 정문 앞을 말한다. 이곳에 큰 무덤이 있어 '말무덤고개'라 했는데 말무덤은 광복 직후 도로 확장 공사 때 없어졌다. 일명 '살짜고개'라 부른다.

● **말미골**

서낭당고개(새미~장군재) 서쪽으로 녹색골에서는 서북쪽이다. 풍수로 보아 말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말매꿀' 이라 부르기도 한다.

● 매봉재①

장승박이 동쪽으로 산 봉우리가 입처럼 생겼다. 이곳에 장승이 있어 응단말·양단말·장승박이 사람들이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매봉재②

새미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새미와 장군곡을 잇고 있다. 풍수로 보아 새가 남쪽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국이라 한다. 이 산으로 인해 조남동의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

● 먹고개

용담골에서 안산시 장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메지밀

새미 서쪽으로 마을 초입이다. 이곳에 새미 최초의 민가가 있었다고 한다.

● 바우박이논

소릉외 안골에 있다. 논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바우박이논' 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바위는 지석묘로서 마을에서는 '마산할머니 불돌바위' 라 부른다.

● 뱅골

소릉외 남쪽으로 회가마골에서는 서쪽에 있다. 이 골짜기에 뱀이 많아 '뱀골' 이라 했다 가 후대에 내려 오면서 '뱅골' 로 되었다.

● 배미골

남왕 서북쪽의 작은 골짜기로 인천 방향 수인산업도로의 왼쪽에 있다.

● 벌논

남왕 앞(남쪽)의 들 이름이다.

● 병풍바위

방화 회가마골 남쪽 산 밑에 있다. 바위가 곧 바로 선 것이 10폭 병풍을 친 모습이다.

● 보랭이고개

수인산업도로상에 있으며 보랭이들과 (주)한샘 사이를 왕래하는 큰 고개이다. 1976년 포장공사때 고개를 낮추었다.

● 보랭이들

수인산업도로 새미 가는 초입에서 보랭이고개 사이에 있는 길로 넓은 들을 말한다.

● 분지고개

방화와 안산시 수암동 개다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가 높고 후미져서 산적·도둑

등이 들끓었다고 한다. 서낭이 있었다가 1985년 포장공사 때 없어졌다.

● 사거리고개

남왕과 논곡 사거리 사이로 월곶도로상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부근에 황제아파트(1986)를 비롯하여, 청도아파트(1986)·장미아파트(1986)·명신아파트·논곡교회 등이 들어섰으며 1983년에 포장되었다.



분지고개

● 사례기들

사례기와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다. 사례기마을 앞에 있는 들이라 하여 일명 '앞들' 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거리고개

● 삼거리

턱꾸리고개와 장자터 및 사례기를 잇는 3각 교차지점을 말한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포장하였다.

● 삼박골

방화에서 서쪽으로 벵골 옆(동쪽)에 있다. 크고 넓은 산골이다.

● 상나무박이

남왕 작은골 남쪽 산기슭을 말한다. 이곳에 향나무가 있었다 하여 '상나무박이' 라 부르고 있는데 일제 말엽 자연사하였다.

● 상두바위

새미 앞(남쪽) 안산 중턱에 있으며 상투처럼 생겨 '상투바위' 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상두바위' 라 부르고 있다.

● 새남골

새미 남쪽에 있어 '새남골' 이라 한다. 병목처럼 생긴 골짜기로 산과 농경지이다.

● 새미느티나무

새미 옷말 앞(남쪽)에 있는 나무로 수령은 알 수가 없고 구전에 따르면, 이 나무에 잎이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층층이 피면 모를 일시에 내지 못하므로 흉년이 든다고 한다.

● 서낭당고개

새미와 장군곡 사이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조남동과 안산시 양상동·월피동·고잔동 주민들이 안양을 가자면 이용하던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비포장 농로로 서낭이 있어 '서낭당고개' 라 부르고 있는데,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새미 주민들이 해마다 10월 초에 길일을 택

해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서둘고개

웅단말 쓰레봉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일제 때 장군곡 주민들이 현 안산시 수암동 지장골로 나무를 하러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 길을 이용했는데, 산 주인의 감시가 심해 나무짐을 지고 서둘러 이 고개를 넘어야 비로소 집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 나무꾼이 서둘러 넘던 고개라 하여 '서둘고개'라 부르고 있다. 소로로 현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 선골

소릉뫼 동남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으며 작은 골짜기로 선골과 일부는 밭이다.

● 소릉뫼고개

새미 아랫말과 소릉뫼 사이에 있고, 소릉뫼에서는 '새미고개'라 하며 비포장 소로이다.

● 솔고개

남왕 정미소와 목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곳에 소나무가 많아 '솔고개'라 했는데, 현재 소나무는 없고 1985년 이후 현대아파트와 세원아파트가 들어섰다.

● 수청우물

소릉뫼 수청목장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있다. 물이 맑고 깨끗하다 하여 '수청우물'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농업용수에 이용되고 있다.

● 숲감바터

장자터·황한농장·사일로가 자리한 곳이다. 조선 말엽부터 일제 말엽까지 숲을 구웠던 곳이라 한다. 이곳은 본래 조선시대에 큰 부자가 살았던 곳으로 일명 '장자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일제 말엽까지만 해도 황한농장 주변이 참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 쓰레봉

양단말 뒤(동쪽)에 있다. 봉우리가 흡사 쓰레(씨레)처럼 생긴 산이다.

● 안골

소릉뫼 남쪽으로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긴 골짜기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며 이곳에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조남리 지석묘가 있다.

● 안산

새미 서낭당고개에서 아랫말 앞(남쪽)에 이르는 산이다. 새미 앞에 있는 산이라 '안산'이라 부르고 있다.

● 안쪽지

새미 뒤의 매봉재와 능모래이 사이에 있는 들 이름이다.

● **옷물**

소릉외 서쪽으로 작은 마산 아래에 있는 작은 샘우물로 날이 가물거나 장마 때라도 항상 일정량으로 샘이 난다. 옷 오른 데 특효가 있다고 한다.

● **용담골**

방화마을 동남쪽의 골짜기로 예전에 '용담사' 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용수정**

월곶선 도로 밑(동쪽) 개울과 논 사이에 있는 우물로 일제 때 남왕 주민들이 농업용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뚫었다고 한다.

● **원수논**

장자터 앞(서남쪽)에 있는 논이다. 수답으로 샘이 잘 나며, 논이 규모는 1,400여 평이다.

● **자귀나무골①**

장군재고개 마루턱 북쪽 골짜기에 자귀나무가 많아 '자귀나무골' 이라 했다. 작은 골짜기로서 현재는 밭이다.

● **자귀나무골②**

남왕 세원아파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자귀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밭이다.

● **자귀나무골③**

안산시 수암동으로 가는 분지고개 왼쪽의 골짜기이다.

● **작은골**

남왕 큰골 남쪽에 있는, 좁고 작은 골짜기로 현재 농경지이다.

● **작은마산**

마하산과 소릉외에 있는 산이다. 마하산의 연봉으로 마하산보다 작다.

● **작은방화고개**

방화와 안산시 장하동 벌말 용당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조선시대에는 서신·남양 사람들이 서울·개성을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갯길이었으나 현재는 폐로되었다. '말씨고개' 또는 '떡고개' 라 부르기도 한다.

● **장군재고개**

장자터 북쪽과 장군재 응단말 초입 사이에 있으며 비포장 소로이다.

● **장수바위**

삼천병마골 가운데에 있는 바위로 임진왜란 때 어느 장수가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손으로 바위를 뚫어 놓았다고 한다.

● 장수우물

장수바위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구전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어느 장수가 갈증이 나자 마셨던 우물이라고 전한다.

● 장자터고개

새미와 장자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장자터에서는 '새미고개'라 부르며 비포장 소로이다.

● 장지미들

장승박이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이 길고 넓어 '장지미들'이라 부르고 있다.

● 장터

남왕 세원아파트 뒤편으로 새미와 논곡사거리를 왕래하는 큰 행로에 씨름장터가 있었는데, 일제 중엽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 전나무고개

남왕 주막거리와 새미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일제 때 이곳에 전나무 4그루가 있어 '전나무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새미마을에서는 '황새울고개'라 부르고 있다. 이곳이 습지로 후미진 곳이어서 도깨비가 많다 하여 날이 저물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지나가기를 꺼려했다. 1984년 새마을사업으로 고갯길이 포장되었다.

● 전나무박이

남왕 주막거리와 새미 사이 길가에 큰 전나무가 있었다 하여 이곳을 '전나무박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전나무는 일제 말엽에 없어졌다.

● 절고개

법연사와 안양시 박달동 햇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법연사 부근에 있어 '절고개'라 부른다. 일명 '햇골고개'라고도 부른다. 일제 때 이곳에서 질그릇을 구웠으며, 고개 부근에 민가가 있었다가 일제가 박달동에 군용지를 개설하자 철거되었다.

● 절골

응단말 장유의 묘 뒤(동쪽)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부른다. 응단말 동북쪽에 있는 법연사의 초창지로 추정된다.

● 정기들

달들 서쪽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들이다.

● 조남동지석묘

소릉뫼 안골 논 가운데에 있다. 1985년 11월 1일에 발견된 이 지석묘는 전형적인 북방식

고인돌로 길이 4.18m, 폭 3m, 두께 0.7m의 덮개돌(개석)을 사용했으며, 지석(빚돌)은 길이 2.2m, 폭 0.8m, 두께 0.5m이다.

마을에서는 '마산할머니 불돌바위'라 부르며, 1988년 경기도 기념물 제 103호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는 시흥시의 의뢰로 한양대 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을 정리하였다.



조남동 지석묘

● **집건너논**

새미 웃말과 안산 사이에 있는 수답으로 토질이 좋다.

● **큰골**

남왕 서낭당고개 남쪽에 있다. 남왕에서 제일 큰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산골이다.

● **큰방화고개**

방화와 안산시 양상동 사이에 있다. 길고 높은 고개로 조선시대에는 안산시 성포동·월피동·양상동 사람들이 안양을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개이나 현재는 폐로이다. 고개가 후미져서 도둑이 들끓었던 고개로 일명 '보대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큰보람이골**

보람이들 동쪽에 있는 산골로 크고 넓은 골짜기이다.

● **턱꾸리고개**

장자터와 수인산업도로(남사막 초입)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이용되며 1970년 초에 황한목장에서 포장하였다.

● **파라골**

소릉피 작은마산에 있으며 이 골짜기 옆에 인송농장이 있다. '파래골'이라고도 한다.

● **풀무골**

양단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대장간이 있었다 하여 '풀무골'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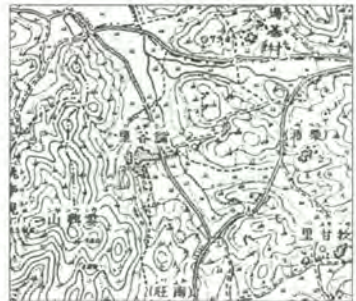
● **회가마골**

큰방화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석회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회가마'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골이며 일부가 농경지이다.

제4절 논곡동(論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論谷里)였다가,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 논곡동 주변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논곡동(법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목감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396명으로 남자가 1,743명, 여자가 1,653명이며, 1,221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논지곡리(論知谷里)'가 나오는데, 이로 보아 나중에 나오는 '논곡리'는 '논지곡리'를 줄여 부른 이름으로 생각된다. 『조선지리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논줄'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論知谷里 | 논줄(論谷里) | 論谷里 | 論谷洞 |

● 논줄



논줄

조선 중엽 연안 이씨의 어느 대신이 이 마을에 살았는데, 때때로 서울의 중신들이 내려와 국사를 논의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국사를 논의하러 온 중신들이 줄을 섰다고 하여 '논줄'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설에는 이 마을 뒤(서쪽)에 있는 산의 지세가 풍수로 보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하여 '논줄'이라 부르고 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지역에서 제일 가는 마을이라 하여 '논줄'이라 불렀다고 한다. 논줄은 마을의 식수원인 큰 우물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을 '건너말', 건너말 남쪽 지역을 '새말', 큰 우물 북동쪽 지역을 '웃말'이라 하고 마을 초입은 '모퉁이', 모퉁이와 웃말 사이를 '아랫말', 북쪽 지역을 '지암터'라 각각 부르고 있다. 지암터에는 조선 초기의 학자인 신숙주의 넷째 아들인 신정(1422~1482)의 묘가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건너말 뒤(서쪽)에 있는 당집에서 군웅제를 지내고, 이어 큰 우물에서 우물제를 지냈다고 한다.

● 방죽말

논곡동과 금이동 및 광명시 학운동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1939년 9월 2일에 설치한 방죽말저수지 주변에 있는 마을이므로 '방죽말'이라 부르고 있다.



방죽말

● 가능골

운흥산과 오자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가늘고 긴 골짜기라 하여 '가능골'이라 부른다.

● 갑배논

논줄 앞들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 가재골

오자봉 아래(동북쪽)로, 오리나무가 많고 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재가 많으므로 '가재골'이라 부른다. 이곳에 논줄 간이상수원이 설치되었다.

● 감배논

과수원 서쪽에 있는 논으로 토질은 좋으나 수원이 없는 건답이다.

● 거정골

바위마당에서 향촌목장 초입에 이르는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며, 이곳 토질이 건(乾)하다 하여 '거정골'이라 부르고 있다.

● 굴바위

서두내 북쪽 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바위에서 굴을 채취했다고 한다. 파평 윤씨 선대의 산으로 구전에 따르면 '떠돌아 온 산' 이라고 한다.

● **논곡교**

논곡동과 광명시 학온동 별말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논곡로에 있는 다리이므로 '논곡교' 라 부르고 있으며, 다리 밑으로 목감천이 흐르고 있다.

● **능재**

논줄 웃말 뒤(북쪽) 산등성이로 이곳에 능을 쓸 수 있을 만큼 천하 명당이 있다고 하여 그 인근을 '능재' 라 부른다.

● **능재고개**

논줄 웃말 뒤로 뒷줄 및 웅갈다리로 가는 고개로 비포장 소로이다.

● **당뒤논**

논줄 삼실다리에서 목감동 율포 사이에 있는 논으로 수답이며 토질이 좋다.

● **돌개비 · 돌개비**

사거리에서 서북쪽으로 현 삼아알미늄 공장과 그 주변 일대를 말한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묘가 많아 비오는 날이면 도깨비가 많았던 곳이라 한다.

● **뒷골**

논줄 뒤(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좁고 길며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 **뒷골고개**

뒷골과 논줄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비포장 소로이다.

● **멍에고개**

논줄 건너말과 가능골 및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풍수로 보아 소의 멍에에 해당되는 곳이라 하며 비포장 소로이다.

● **무드리**

논줄에서 대안주유소 사이의 수인산업도로 오른쪽의 들 이름이다.

● **무쇠말**

주사골 안에 무쇠로 만든 말이 있어 '무쇠말' 이라 불렀는데, 일제 중엽에 없어졌다고 한다. 무쇠말이 있던 곳은 현재 산 다랑치논이다.



능재고개



돌개비

● 바위마당

과수원 북쪽 끝으로 논줄 건너말에서 사거리로 나가는 셋길과 수인산업도로와 닿은 지점을 말한다. 이곳에 큰 바위가 있어 '바위마당'이라 했는데, 1976년 수인산업도로 공사 때 없어졌다.

● 삼실다리

논줄과 서두내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논줄의 어떤 이가 이 다리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소실에게 기와집을 지어주고 마을 주민들이 볼까봐 살며시 지나가곤 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다리를 '살며시다리' 또는 '삼실다리'라 부르고 있다. 본래 나무다리였던 것을 1967년 선거 때 시흥군에서 현대식으로 가설하였다.



삼실다리



서두내길

● 셋벌

대안주유소 동쪽 들 이름이다.

● 서두내

논줄 모퉁이에서 동쪽으로 한양 조씨 선대의 묘 부근을 말한다.

● 서두내길

서두내에서 안양과 월곶간 도로 사이에 있는 길이다. 1976년 안양과 대안주유소간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논줄 사람들이 안양이나 서울을 가자면 반드시 이 길을 이용할 만큼 중요한 교통로였다. 현재는 어린이들만이 등·하교 시에 이용하며 농로로 비포장이다.

● 연평

바위마당에서 논줄 건너말 가는 셋길 초입을 말한다.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연평도 조기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엠평'이라 부르기도 한다.

● 오자봉(五子峰)



오자봉

논곡동과 물왕동 및 조남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작은 봉우리 5개가 있다 하여 '오자봉'이라 부른다. 오자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동국여지승람』 안산군 산천조로 "오자산은 군 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기전읍지』 등에 모두 같은 내용이 실려있고, 『안산군읍지』(1899) 산천조에 "오자산은 읍치의 서북쪽 10리의 초산면 논곡에 있다(五子山在郡西北十里 草山面 論谷)"이라 기록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주로 '오자'라

산'이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오자봉'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 **웁갈다리**

대안주유소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지점으로 수인산업도로 상에 있는 다리이다. 이곳 옆에 큰 웅덩이가 있어 한국전쟁 당시 인근에 흩어진 시신을 집단으로 매장하였다고 한다.

● **원수물**

방죽말 은혜원 밑(동쪽)에 있다. 작은 웅덩샘으로 식수뿐만 아니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 **장뿌리밭**

광명시와 인천시 및 수원을 잇는 삼각교점에 있는 밭으로 1976년 수인산업도로 건설로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었다.

● **장사골·장수골**

논줄 새말 조씨 선대 묘 옆(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풍수로 보아 장군혈이라고 한다.

● **절터**

논줄에는 절터가 두 곳 있다. 한 곳은 가재골 위에 있고 또 한 곳은 가능골 위에 있다. 가재골 위에 있는 절터는 돌절구가 남아 있고, 가능골 위에 있는 절터는 주춧돌과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주사골**

가능골과 뒷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잘 나와 논줄 간이상수원이 설치되었다.

● **질구데논**

거정골 옆(북쪽)에 있는 논을 말한다. 이곳 토질이 질흙이므로 옹기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파갔다고 한다.

● **찬우물논**

안양새마을교육원 밑(서쪽)에서 광명시 학온동 장기촌 사이에 있는 논이다. 찬 샘물이 나오므로 '찬우물논'이라 부른다.

● **황골고개**

논줄 새말과 조남동 남왕 사이에 있는 고개로 남왕에서는 고개마루에 서낭이 있다 하여 '서낭당고개'라 부르고 있다. 비포장 소로이다.



장사골



황골고개

제5절 목감동(牧甘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의 목감리(牧甘里)와 울포리(栗浦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목감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목감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물왕동·산현동·조남동·논곡동을 관할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2,615명으로 남자가 1,347명, 여자가 1,268명이며, 969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 목감리는 나오나 울포리는 없다. 따라서 울포리는 조선 말기에 새로 편성된 행정 구역으로 보인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목감리를 '모감이'로, 울포리를 '밤개물'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목감동 주변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牧甘里 | 모감이[牧甘里] | 牧甘里 | 牧甘洞 |
| - | 밤개물[栗浦里] | | |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조선 고종 21년(1884)에 작성된 ‘安山草山面祭廳里牧巖里三所任等白活’이란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목암리(牧巖里)’가 현재의 목감동이다. 따라서 정조 때에 목감리라 기록된 이후에도 목암리가 혼용되었으며, 두 지명은 모두 ‘모감이’를 한자로 표기한 차자(借字)로 생각된다.

● 고저지

목감과 조남동 양단말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밀양 박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마을의 지세가 높낮이가 심하다 하여 ‘고저지’라 부른다고 한다.

● 더폰물

조선시대에는 광명시 학운동 및 부천 지방에서 안양으로 가는 통로로, 서너 가구가 있었는데 도적과 강도 등에 시달려 폐동되었다. 그 후 일제 때인 1930년 대에 이르러 안양시 박달동에 군용지를 개설하면서 박달동 동수암 출신의 광주 이씨·파주 염씨 등이 이주하여 취락을 형성,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新村)’이라 부르고 있다.



더폰물

또 마을 앞(서쪽)의 산이 문봉인데 풍수로 보아 이 마을을 덮어누르는 형국이라 하여 ‘덮은늘’이라고도 했는데 점차 후대에 내려오면서 ‘더폰물’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마을이 재산이 늘면 문봉이 눌러 30년을 가지 못하므로 ‘30년 동네’라고도 부르며, 더폰물이라 하여 ‘뚜껑 없는 동네’ 등 여러 갈래로 불리고 있다. 일설에는 이 마을 정미소와 범고개 마루턱 사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오가는 우마로 인해 먼지 등이 날아와 우물을 항상 덮었다 하여 ‘더폰물’이라 했다고도 한다.

● 목감

뱅깡과 고저지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 중엽에 있었던 목암사의 ‘목’자와 사찰 경

내에 있던 단감나무의 '감' 자를 따서 '목감'이란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모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감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성씨는 알 수가 없고, 18세기 초에 이르러 문화 류씨를 비롯하여 평산 신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해 왔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마을회관 뒷산에 있는 당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어 고저지 뒷산에 있는 당할머니에게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사거리

월곶선(안양~월곶동)과 수인산업도로가 교차되는 네거리에서 논곡동 구역(사거리에서 서북쪽)을 제외한 전역이다. 이곳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논곡동에 속해야 하나, 조선시대에 노상에서 행려자들이 죽으면 해당 주민들이 장례를 치뤄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논곡동에 사는 대신이 목감동 구역으로 했다는 전설이 있다.

조선 말엽에 주막과 대장간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이 안양·군자·인천·수원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부터 민가가 늘기 시작하다가 수인산업도로와 안산 신도시 건설로 인해 급성장한 곳이다.

● 울포(栗浦)

더푼물과 목감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안양 김씨·성주 이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도 이들 성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밤나무가 많아 밤이 개울로 떠내려 간다고 하여 '밤개울'이라 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개울을 물가 '포'자로 하여 '울포'라 하였으며, 일명 '뱅깎'이라 부르기도 한다. 울포는 마을 중앙에서 보아 동북 지역을 '웃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울포

● 가운데봉

무쇠봉과 문봉 사이에 있어 '가운데봉'이라 부르고 있다. 목감동과 안양시 박달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 거정골고개

월곶선에 있는 고개로 울포와 사거리 사이가 된다. 고개마루 동쪽에 향촌목장이 자리잡고 있다.

● 계골

울포 가운데봉과 문봉 사이에 있는 산골로 풍수로 보아 닭의 벼슬같이 생긴 골짜기이다.

● 곤두레미고개

목감과 안양시 박달동과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안양에서 안산으로 가는 신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이 고개길이 유일한 교통로였다. 이곳은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곳일 뿐만 아니라 후미져서 산적이나 강도 등이 많아 이곳을 지나 갈 때면 황급히 서둘러 곤두박질쳐야 지나칠 수 있다 하여 '곤두박이고개'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곤두레미고개'로 되었다. 일설에는 술주정꾼이 술에 만취되어 이 고개에 이르러 자다가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곤두레'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미'는 모에서 나온 말로 산을 뜻하는 말이니, 이곳이 고갯길 이전에는 산으로, 술이 몹시 취한 사람이 이곳을 건다가 지쳐 마루턱에 이르러 쉬어 갔던 고개가 '곤드레미고개'라는 것이다.

● 구리고개

목감과 조남동 장군재 사이로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동쪽 산기슭에서 일제 중엽 구리를 채광하였는데, 일제 말엽에 폐광되었다고 한다. 1976년 수인산업도로로 포장공사 때 고개가 낮추어졌다.

● 낙모랭이

월곶선에서 안양새마을교육원 초입으로 문봉 낙맥이다.

● 능모랭이

광산 서쪽의 산모퉁이이다.

● 당뒤골

율포 앞의 전담부터 논곡동 앞의 전담에 이르는 큰 골짜기 이름이다.

● 당터

문봉 아래로 청송 심씨 선대 묘 부근이다. 더푼물이 풍수로 보아 30년을 지탱할 수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살게 해 달라고 이곳에 당집을 짓고 산신령에게 빌었다고 한다.



거정골고개



구리고개



당터

● 동그란산

월곶선에서 논곡동 논줄 가는 소두네길 초입에 있는 산이다. 산행이 동그랗게 생겼으며 1970년대에 개간되어 현재 둔사 등이 들어섰다.

● 매봉재

곤두레미고개 북쪽에 있다. 산봉이 마치 매와 같다 하여 '매봉재'라 부른다.

● 목감천

목감동에서 발원하여 논곡동과 광명시 학온동을 거쳐 한강에 합류되는 하천을 말한다.

● 무쇠봉

목감동과 안양시 박달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가운데봉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철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 문봉

더푼물과 안양새마을교육원 사이에 위치한 봉우리로 더푼물 서당 앞에 있는 산이라 하여 '문봉'이라 했다. 그런데 논곡동에서는 '도토리봉', 뺑깎에서는 '계골봉'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뺑과리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1968년 11월 9일 안양새마을교육원이 동쪽 산기슭에 설립되었다.

● 민드리미골

울포와 목감 사이로 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깨진 기왓장과 지대석 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터 또는 절터로 추정된다. 좁고 작은 골짜기로 산과 일부는 농경지로 되어 있으며, '민드라미골'·'가자골' 등으로도 부른다.

● 뱀밭

더푼물 남쪽에 있는 밭으로 뱀같이 길고 물이 많아 질며 토질은 끈끈하다. 1970년대 목장(인선목장)이 들어섰다.

● 범고개

더푼물에서 안양시 박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뺑거리골

더푼물과 절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이다.

● 뺑거리우물

더푼물 뺑거리골에 있다. 오리현산에서 나오는 샘 우물로,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 서당터

더푼물에 있는데, 조선 말엽에 광명시 학온동 노온곡 출신 김 모씨가 개설하여 인근의 주

민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 글방으로 인해 앞산을 '문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 **섬논**

더퐁물과 광명시 학온동 장기촌 사이에 있다. 1,300여 평 규모의 논으로 우물 옆에 나무가 있어 마치 섬같다 하여 '섬논'이라 부른다.

● **쇠골논**

더퐁물과 논곡동 경계에 있는 논으로 소가 일을 하려면 병이 들 만큼 논이 좋다고 한다. 면적은 다섯 마지기 정도이다.

● **신사목골**

울포 서쪽으로 영지농원이 있는 주변 일대를 말한다. 작은 골짜기로 산과 일부는 밭으로 되어 있다.

● **쓰레봉**

곤두레미고개 남쪽에 있는, 목감과 안양시 박달동을 잇는 산이다. 상봉이 쓰레처럼 생겼으며 일명 '무쇠봉' 또는 '싸재'라 부르기도 한다.

● **안골**

무쇠봉과 계골봉 사이에 있는 삼태기처럼 생긴 골짜기이다.

● **앞골**

벉깡 앞(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수답이다.

● **앞들**

목감과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다. 마을(목감) 앞에 있는 들(논)이므로 '앞들'이라 부르고 있으며 문전옥답으로 수답이다.

● **오리현산**

파주 염씨의 종산으로 오동나무가 많아 '오리현산'이라 부른다. 더퐁물과 안양시 박달동 동수암을 잇고 있다.

● **왜미논**

일제 때 일본인들이 인근에서 제일 상답이라 불렀던 논으로 더퐁물과 청송 심씨 묘 사이에 있는 논을 말한다.

● **의미논**

월곶과 안양 사이의 도로에서 안서초등학교 초입에 있는 논이다. 수답으로 토질이 좋은 논이라서, 모를 일찍 내려면 일찍 내고 늦게 내려면 늦게 낼 수 있을 만큼 의미대로 할 수 있는 논이다. 면적은 두 마지기 가량 된다.

● **잣고개**

더푼물 마을 내에 있는 고개 이름으로, 이곳에 당나무가 있어 마을고사를 지낸다 한다.

● **절골고개 · 절곶고개**

더푼물과 안양시 박달동 동수암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동수암에 절터가 있어 '절골고개'라 부르고 있다.

● **주막모퉁이**

뱅깎 앞골과 민드리미골 및 초골이 합쳐지는 곳으로 무쇠봉의 낙맥이다. 이곳이 조선시대에는 목감과 뱅깎 사이를 왕래하는 길가로 행려자들이 많아 주막이 번창했다고 한다.

● **집너머고개**

뱅깎 뒤(서북)로, 뱅깎과 월곶선 사이에 있다. 농로로 1980년대 초에 포장되었다.

● **초골**

뱅깎과 목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이다. 예전에는 숲이 우거져 금수가 많았던 곳이라고 한다.

● **턱골**

안양새마을교육원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 **함장골 · 함정골**

울포 동쪽으로 무쇠봉 아래에 있다. 좁고 짧은 산골인데, 이곳에 호랑이가 많아 호랑이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던 곳이라 하여 '함장골'이라 부르고 있다.

● **호떡집터**

더푼물 앞(서쪽) 청송 심씨 묘 옆으로, 현재 밭이다. 일제 때 안씨 부인이 초가집을 짓고 호떡 장사를 했다가 광복이 되자, 범고개 마루턱에서 호떡 장사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 **회골**

수인산업도로의 인천 방향으로 목감사거리에 도착하기 1km 전의 오른쪽 골짜기이다.



절골고개



주막모퉁이



함장골

君子洞

제7장 군자동

제1절 거모동

제2절 군자동

제3절 월곶동



제1절 거모동(去毛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의 석곡리(石谷里)와 거모포리(去毛浦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거모리가 되었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의거, 옛 안산군의 마유면과 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거모동 주변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거모동이 되었으며, 법정동인 월곶동·거모동·군자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이름으로도 쓰였다. 그 이유는 안산시에 군자동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에 따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안산시 군자동이 1995년에 '원곡본동'으로 개칭되자 주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시흥시조례 제374호에 의해 행정동 명칭이 '군자동'으로 변경되었으나¹⁾ 여전히 군자동사무소는 거모동에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2만 6,368명으로 남자가 1만 3,663명, 여자가 1만 2,705명이며, 세대수는 9,477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의 안산군 대월면에 '거모포리'와 '석곡리'가 나오고 있고, 1919년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대월면조에는 거모포를 '거무개'로, 석곡리를 '도일'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거무개·배우물 마을지』(거모3통 마을회, 2001) 39쪽 참조.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去毛浦里 | 거무개(去毛浦) | 去毛里 | 去毛洞 |
| 石谷里 | 도일(石谷里) | | |

‘석곡’이란 지명은 역(驛)이 설치되어, 조선 세종 16년(1434) 12월 1일자에 처음 등장한 것을 비롯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등 조선 전기의 자료에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말이 여덟 필 있으며, 노비가 33명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거무개

배우물 서북쪽으로 오이도·월곶동·도일을 잇는 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조선 세종 때 학자인 정인지의 셋째 아들인 정승조의 후손이 처음으로 세거하기 시작했는데, 월곶선을 따라 동쪽 지역을 '웃말', 서남간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으며, 또 웃말의 동쪽을 '복수실', 아랫말의 남쪽 지역을 '와가물'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거무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라 칭했던 이 마을은 1914년 부·군폐합 때 법정리 명칭인 거모리를 이 마을 명칭으로 하였다. 거무개를 '금호'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조어(造語)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의 장인 한준겸(1557~1627)을 비롯해 한준겸의 아들인 한희일 등 청주 한씨 문익공파의 분묘가 자리잡고 있는데, 1997년 5월 16일 경기도 기념물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 도일

현재 시흥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도일시장을 비롯하여 군자초등학교·동사무소·지서·농협 등이 자리잡은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영화(수원)·제물(인천)·중림(소래)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석곡역이 있었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만 해도 바닷물로 인해 군자초등학교 뒤(북쪽) 돌산(현재는 호나자산 또는 환자산, 주라산이라 칭하고 있음) 골짜기에 자리를 잡아 '돌고을'·'돌골'·'돌고지'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일'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바닷물이 밀려나자 현재의 위치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마을이라 하여 도일이라 했다고 하나 이는 와전된 말이다.

도일은 군자지서와 군자공업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장터골고개를 기점으로 군자공고 인근의 지역을 '안도일'이라 부르고, 장터골고개에서 지서·군자초등학교·농협·동사무소에 이르는 지역을 '밖도일'이라 부른다. 밖도일은 또 월곶선을 경계로 하여 월곶선 위(동북)에 있는 지역을 '웃말', 월곶선 아래(서남)에 있는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전의 이씨·성주 이씨·순흥 안씨 등이 처음 세거한 도일은 예로부터 '만호지'라 하여 1만가구의 집이 들어설 자리라고 어느 선비가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 망고개

군자초등학교와 구장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초등학교가 들어서자 민가가 늘기 시작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고개는 본래 낮은 고개였는데,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의 여섯째 아들 류희량(1575~?)의 묘를 정수파크 옆에 쓸 때 이곳에 흙을 긁어 모아야 좌청룡 우백호가 완연하다 하여 고개를 높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고개를 '막은고개'라 불렀다고 하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망고개'라 불리워지고 있다.

● 배우물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에서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바닷물이 이곳에까지 들어왔을 때 배가 이 마을에 닿자 선원들이 갈증이 나므로 이 우물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배우물'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물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마르질 않는다. 원주 원씨 음성공파 후손 중에 원계검이란 이가 관직에서 물러나 정착하기 시작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현재도 원주 원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사미·새미



사미(새미)

거무개 북쪽, 옥녀봉 밑(남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본래 청주 한씨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한두리'라 칭했다. 구전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의 딸 옥녀가 이 마을에 내려와 비단을 짰다는 연유로 해서 '사미'라 했는데, 일제 때 일본식으로 표기하기가 어려워 비단을 짰다는 연고로 비단 '금'자를 따서 '금미'로 개칭했다가 광복 이후 다시 '사미'로 환원되었다. 현재는 사미로 통칭되며 '새미'라 부르기도 한다. 문화 류씨와 김해 김씨가 처음 세거한 이 마을은 북쪽 지역은 '웃말', 남쪽 지역은 '아랫말', 서북쪽 지역은 '건너말'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 신성골

사미 건너말 아래(서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옥녀봉 아래에 마을이 있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신씨가 처음 정착한 마을이라 하여 '신성골'이라 부르고 있다.

● 가재골

군자공업고등학교 뒤(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풍부해 가재가 많아 '가재골'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가쟁골'·'가재울' 등이 "가장자리의 골짜기나 그러한 마을"일 가능성²⁾을 볼 때, 가재골 역시 가재와는 관계없는 가장자리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광석동에도 가재골이 있다.

2)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토담, 1994), 13~24쪽 참조.

● 개선이

옥녀봉 낙하산 계곡 상류에서 발원하여 사미와 죽을동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하천을 말한다.

● 개흙밭들

거무개 앞(남쪽)쪽이고 조선시대 때 소금을 구웠으며, 농경지가 개흙으로 되어 있다.

● 계발산

구루지산 서쪽에 있는 산이다.

● 구렁골

구렁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이 완만한 구릉지여서 '구렁골' 이라 부르고 있다.

● 구루지

송암보육원 부근으로 예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구루지' 라 칭한다.

● 구루지산

송암보육원이 위치한 산이다.

● 구장터

조선시대 안산군(현 안산시 수암동)에서 서남쪽으로 20리 지점에 있었던 시장으로 군자면 관내에서는 최초의 시장인데, 일제 초기까지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터는 부천·안양·군자를 잇는 삼각 교차 지점에서 선부리(현 안산시 선부동)에 이르는 여러 지역이다.

● 굴렁바위

옥녀봉 속날골 중간에 있었던 바위로 1980년대 중엽에 모 부대가 이곳에 길을 개설하기 위해 이 바위를 밑으로 굴러 버렸다고 한다.

● 낙하산계곡

옥녀봉 중턱에 있는 계곡을 말하는데, 이곳이 급경사진 곳이라 '낙하산계곡' 이라 부르고 있다.

● 냉겨들

거무개에 속한 들로 동쪽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 냉겨모퉁이

냉겨산 서남쪽 밑으로 배우물에 속해 있다.

● 냉겨산

함박고개 밑(서남쪽)에 있으며 산이 야트막하다.

● 너멍골

조추고개 넘어서 장곡동으로 가는 골짜기이다.

● 넘성바위

굴렁바위 맞은 편(동남쪽)에 있다. 두꺼비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위가 마치 마을을 향해 넘성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넘성바위'라 칭하고 있다.

● 대각사

불가에서 크게 도를 깨닫거나 깨달은 사람을 '대각'이라 했는데, 대각사는 이러한 뜻을 실천하는 도장이라 하여 1958년 백대 북에 의해 창사된 사찰이다.



대각사

● 당상배미

안들 안에 있는 논 이름이다.

● 땡땡이골

군자공업고등학교 동남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땡땡이풀이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땡땡이골'이라 칭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경지로 되어 있다. 한편 도일시장 동쪽 골짜기도 '땡땡이골'이라 부른다.

● 돌미산

거무개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돌산이며 산세가 얇다.

● 뒤골

군자초등학교 뒤(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본래 이곳이 도일 최초의 주택지였다. 구전에는 환자산(또는 주자산)에 빈대가 많아 택지로는 적당치 못해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해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예전에 서해안 바닷물이 들어와 저지대에서는 살 수가 없어 고지대에 살기 시작했다가 그 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저지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 뒤우물

사미 뒤(북서쪽 뚝굴)에 있는 우물로 1960년대 이전만 해도 마을의 대동우물이었다.

● 등잔마루

배우물 동남쪽에 있는 산중턱으로 마치 등처럼 생겼다.

● 떼지모퉁이

한우물 서쪽으로 차돌박이 밑에 위치해 있다.

● 떼지산

한우물 서쪽에 있는 산으로 군자봉에서 떨어져 나간 산이라 하여 '떼지산'이라 부르고

있다. 차돌이 많이 박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산에 하얀 차돌이 보이면 거모리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고 해서 남자들이 흙으로 차돌을 덮었다고 한다.

● **똥골 · 똥굴**

옥녀봉 서쪽으로, 방골에서는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이다. 구전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옥녀의 시녀들이 이곳에서 똥을 누었다고 한다.

● **말미골**

옥녀봉 아래(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풍수로 보아 말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매봉**

군자초등학교 뒤(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매처럼 생겼다.

● **매우물**

옥녀봉 밑(서쪽)에 있는 우물로 이곳 일대가 예전에는 매의 서식처여서 매가 때때로 이곳 우물물을 먹었다고 한다. '매물' 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맷돌**

군자시장 일대로 본래 농경지였는데, 휴전협정 직후에 시장이 들어섰다. 지세가 풍수로 보아 맷돌형이라고 한다.

● **모범산 · 학교산**

송암보육원 아래에서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일제 때 군자초등학교의 학교림이었다. 이곳 산은 소나무가 마치 줄을 선 것처럼 잘 가꾸어져 있다.

● **방골**

옥녀봉과 불임재 사이에 있다. 골짜기가 방처럼 아늑하다.

● **복고개**

선남선녀가 결혼한 후 이 고개를 넘으면 복이 온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서울로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이용해야 할만큼 교통의 요지였다. 거무개와 사미 사이에 있다.

● **붉은지고개**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에 있는 고개인데, 발음이 불임재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서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 **불임재**

서평부원군 한준겸 묘 뒤(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로부터 이곳에는 웬일인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불임재'라 칭하였다. 마을에서는 한준겸 묘 아래에 있는 신도비의 받

침돌이 거북이므로 일명 '거북산'이라 부르고 있다.

● 비석거리

거무개 동쪽으로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1557~1627)의 묘소 앞을 일컫는다. 이곳에 한준겸의 신도비가 있으므로 '비석거리'라 칭하고 있는 데 현재의 영동고속도로가 묘소와 신도비 사이를 질러 놓이게 되자 1990년대 중반 후손들이 신도비를 묘소 앞으로 옮겨 현재는 비각의 주춧돌만 남아 있다.

● 사냥고개

사미와 죽울동 정촌 사이에 있다. 정촌 웃말 아래(동쪽)에 있는 동산이 풍수로 보아 포수가 꿩 사냥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또 일제 말엽까지만 해도 인근의 사람들이 활을 쏘던 곳이라고 한다.

● 사녀골

사미와 정왕동 사랑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수(禽獸)가 많아 사냥꾼들이 득실거렸다고 한다. 본래는 '사냥골'이라 불렀다.

● 사미고개 · 새미고개 · 거무개고개

거무개와 사미 사이에 있는 고개로 사미에서는 '거무개고개'라 칭한다. 일제 때 고개를 낮추었고, 1984년에 고개길을 포장하였다.

● 서낭고개

사미에서 장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새매

사미 동남쪽에 위치한 능선으로 마치 새매처럼 생겼다.



불임재



비석거리



사미고개

● 새탕

청수파크가 들어선 자리로 이곳의 지세가 풍수로 보아 매가 새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라 한다. 지명에 걸맞게 1986년에 사우나(정수파크)가 개장되었다.

● 석골

군자초등학교 위(동쪽)에 있다. 돌이 많아 '석골'이라 칭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역이 있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안산군 역원조에는 “石谷驛 在郡西七里 驛馬八匹 奴婢三十三人”이라 하여 역마가 여덟 필, 노비가 33명 소속되어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 『각사등록(各司謄錄)』에는 1896년 9월부터 1897년 1월 사이에 석곡역에 소속된 역둔토의 경작 농민과 마름 간에 소작료의 납부처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져 상호간에 관아에 진정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 소문이모퉁이

배우물 동남쪽에 있는 산모퉁이로 이곳을 돌아가면 군자공업고등학교에 이른다.

● 속날골

옥녀봉 낙하산 계곡 안에 있다. 옥녀봉 깊숙한 곳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속날골'이라 부르고 있다.

● 쌍태봉 · 낙하산 · 낙가산

옥녀봉 북쪽에 있는 봉우리로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봉우리가 2개 나란히 있다.

● 앞우물

사미 앞(동남쪽)에 있는 우물로 1970년대에 이르러 폐정되었다.

● 애꾸지

아주아파트가 있는 산이다.

● 여자독 · 여장뚝

제기들 안에 있는 독으로 조선시대 어느 여장군의 시체가 떠내려 와 무덤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일명 '예장독'이라 칭하기도 한다.

● 여물다리

오취언 아래에 있는 작은 다리로서 시흥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있다.

● 옥녀봉 · 쥐산 · 주산

사미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천자의 딸인 옥녀가 치마를 두른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쥐산' · '주산'으로도 부르고 사미 일대의 많은 지명이 이 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주산(主山)이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 **옴팡우물**

쉬우물 앞(남쪽)에 있는 우물로 본래 바가지 우물이었는데 샘이 잘 나오므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식수를 위해 뚫었다고 한다. 인근의 지대보다 속 들어간 곳에 있는 우물이라 '옴팡우물' 이라 부르고 있다. 속전에 따르면 예전에 이 우물 물을 마시고 장수가 난다고 해서 죽을동 사람들이 고양이를 잡아다 넣어 폐정이 되자 그 후 뒤 우물을 뚫었다고 한다.

● **작은애실골**

큰애실골 서쪽으로 옥녀의 둘째 아이 방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 **장터골**

군자지서와 군자공업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장터골고개 옆에 있다.

● **장터골고개**

군자공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시대 거무개·사미·배우물·구준물·정왕리·월곶리 등지의 사람들이 산대장을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고개가 험준하고 가파르기로 유명한 고개였다. 고개마루에 1987년 일우아파트가 세워졌다.



장터골고개

● **제기들**

군자공업고등학교 앞(서남쪽)에 있는 들로 인근에서는 토질이 제일 좋다.



옥녀봉

● 제기천

군자봉에서 발원하여 군자공업고등학교 앞(서남쪽)을 경유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군자면 관내에서 가장 큰 하천이었다.

● 주격산

옥녀봉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습이 마치 주격 형상과 같다.

● 주라산바위

주라산(환자산) 아래에 있는 바위이다. 구전에 따르면 옛날 어느 장수가 힘 자랑을 하느라고 갖다 놓은 바위라고 한다. 군인들이 일렬로 줄을 선 것처럼 되어 있다.

● 주막거리

부천·안양·군자를 잇는 삼각 교차지점에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산대장'이란 시장이 서서 주막이 번창했다고 하나, 시장이 없어지자 자취를 감추고 현재는 흔적조차 없다.

● 지붕골·주봉골

군자공업고등학교가 들어선 자리로 이곳의 풍수가 지붕혈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풍수지리설에 지붕혈이란 혈이 없고, '주봉골'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으로 보아 마을에서 가장 높은 혹은 중요한 산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짝논들

배우물 앞(남쪽)에 있는 들로 조선시대에는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현재는 농경지로 되어 있다.

● 차돌박이

떼지산 중턱으로 떼지모퉁이 위에 있으며 차돌이 많아 '차돌박이'라 칭한다.

● 치마골

옥녀봉과 사미 사이에 있으며 골짜기의 모습이 치마처럼 생겼다.

● 청둥오리논

사냐골 밭(동남쪽)에 있는 논으로 조선시대 이곳은 청둥오리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 청룡산

거모동과 정왕동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청룡혈이라고 한다.

● 큰애실골

옥녀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전에 따르면 이곳이 옥녀 큰 아이의 방이라고 한다.

● 태봉

군자초등학교 앞(남쪽)에 있는 봉우리로 조선시대 어느 왕가의 태를 이곳에 묻어 '태봉'

이라 부르고 있는데, 1960년대에 이모씨가 이곳에 선대의 묘를 썼다고 한다.

● 한우물

안도일과 박도일 사이 논 가운데 있는 우물로, 예전에는 마을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현 정수파크 옆 조선 제15대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의 제 6남인 류희량(1575~?)의 묘를 쓴 후 승려들의 상석을 신고 이곳까지 가지고 왔는데, 당시 세도가였던 문화 류씨 문중에서 작은 상석을 신고 왔다고 승려에게 나무라자 승려가 상석을 이 물에다 버렸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우물을 스님의 한이 맺힌 우물이라 하여 '한우물'이라 부르고 있다.

● 한우물고개

안도일과 한우물 사이에 있다. 농로로 고개가 야트막하다.

● 함박고개

거무개와 배우물 사이에 있는 고개로 조선시대 서해안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이곳에서 정박시켰다고 한다.

● 환자산

군자초등학교 뒤(북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조선시대 거모리·군자리·죽율리·정왕리 사람들이 흉년이 들거나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 받은 후, 추수기에 이를 반납키 위해 환자(환자 또는 환곡, 환상)를 신고 이 산을 넘었다고 하여 '환자산'이라 부르고 있다. 또 이 산의 바위가 줄을 선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명 '주라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제2절 군자동(君子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의 구정리(九井里)와 산북리(山北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군자리로 합쳐졌다. 마을 인근에 유명한 군자산이 있으므로 군자리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군자동 주변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군자동이 되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670명으로 남자가 366명, 여자가 304명이며, 세대수는 286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구지정리'와 '산북리'가 나오고 있고, 『조선지리지』의 안산군 마유면 조에는 '구정리를 '구지물'로, 산북리를 '산뒤'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각각 군자산의 뒤쪽 마을, 아홉 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고유어를 한자어로 차자(借字)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九之井里 | 구지물[九井里] | 君子里 | 君子洞 |
| 山北里 | 산뒤[山北里] | | |

● 구준물

군자공업고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 초기 9년간이나 오랜 가뭄이 계속되자 인근의 주민들이 황고개 아래에다 9개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구준물'이라 부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 구정리라 칭하였다. 물맛이 좋아 군자면 관내에서는 장수촌으로 이름이 높았다. 설씨·기씨·황씨·당씨 등이 최초로 세거하기 시작했으며, “부자는 백성을 지니지 못하고”, “호수는 백호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전주 이씨 영웅대군 후손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은 군자봉 서북간에 있는 마을은 '웃말', 웃말 남쪽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 큰 말 서쪽에 있는 마을은 '양지편'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정(九井) 중 하나

이 마을에는 영웅대군(1424~1467, 세종대왕의 여덟째 아들) 묘(시흥군 향토유적 제9호)를 비롯하여 김준룡(1588~1642, 병자호란 때 전라도병마절도사의 재직 중 광고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전라감사 윤행원·문화현령 윤상형·용담현령 윤칭·군자감주부 전익조·제용감정 왕미·고산현감 이련 등의 묘가 있다.

● 산뒤



산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 산북리라 했던 이 마을은 군자봉 뒤 북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산뒤'라 부르고 있다. 이 마을에는 설씨가 처음으로 세거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설씨는 1가구도 살지 않는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의 형세가 풍수로 보아 호랑이의 입에 해당되는데, 설씨의 조상 묘를 이곳에 쓴 후부터는 설씨가 이곳에 와서 살기만 하면 죽었다고 한다. 그 후 남평 문씨가 세거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1700년대 초에 이르러 문화 류씨가 살기 시작하였다. 조선 제 15대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

신(1533~1612)이 문화 류씨인데 그가 죽은 후 그의 묘를 수암면 능곡리(현 시흥시 능곡동)에 예장을 치른 뒤 백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문화 류씨의 세력이 서인에게 밀리자 그의 후손들이 낙향하여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 남쪽에 있는 마을은 좁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가능골'이라 칭하고 있다. 이곳에는 박동량(1569~1635, 판의금부사) 묘를 비롯하여 박미(1592~1645, 선조의 사위 금양위)·박사익(1675~1736, 병조판서)·참봉 박필화·고양군수 박태두·문과 급제 류정립 등의 묘가 있다.

● **새터말·새터말**

이 마을은 1800년대에 이르러 김해 김씨가 새로 터를 잡은 후 형성된 촌락이라 하여 '새터말'이라 부르고 있다. 산뒤 북쪽에 있다.



새터말

● **가래골**

백담골 서쪽에 있는 농경지를 말한다.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가래처럼 생겼다 하여 '가래골'이라 부른다.

● **구령고개**

탐골 남쪽으로 아랫말과 거모동 거무개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구준물들**

영웅대군 묘 앞(남쪽)에 있는 농경지로 토질이 좋아 결실이 잘된다.

● **군자봉**



군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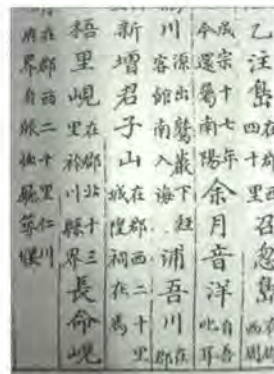
군자봉은 군자동 구준물과 산뒤 및 장현동 뒤일 사이에 위치한 높이 199m의 산으로, 봉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어 '일봉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산의 내령이 서쪽으로 뻗어 있어 '서령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산의 유래는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이 목내리(현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의 묘소를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 하여 군자산이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종은 재위 2년째인 1454년 9월 29일에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昭陵)을 참배¹⁾ 한 뒤 다음날 안산에 머문 사실이 있다.²⁾ 다음

1) 『端宗實錄』권12, 2년 9월29일(정축), “임금이 친히 소릉(昭陵)에 제사하고, 서울을 나가 양재역(良才驛) 앞들에 이르니……”
 2) 『端宗實錄』권12, 2년 9월30일(무인), “거가(車駕)가 안산(安山)의 보천리(浦川里)에 머물렀다. 세조(世祖)가 아뢰기를,……”
 3) 『端宗實錄』권12, 2년 10월1일(기묘), “임금이 소릉(昭陵)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연도(沿道)에서 사냥을 행하고, 보천리(浦川里)에 이르러, 낮 수라를 들고 수리산(修理山)에서 말을 몰아 사냥하였다. 해질 무렵에 과천(果川)에 이르러, 비을매리(飛乙每里)에서 거가(車駕)를 멈추었다”.

날에는 군자봉과 그리 멀지 않은 수리산에서 사냥을 한 뒤 과천으로 향했다.³⁾ 따라서 단종이 실제 군자봉을 보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가장 비중 있는 전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각종 지지자료 중에서 현재의 군자봉을 가리키는 '君子'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 안산군조이다. 『여지도서』에는 산명(山名)이 '군자산'으로 나와 있는데, 부가된 설명에 성황사(城隍祠)가 있다고 하였고, 이어 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안산군조에 성황단(城隍壇)과 함께 군자봉이 나오고 있으며, 1864년 김정호(金正浩)가



여지도서의 군자산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군자봉만 표시되어 있다. 또 1871년 편찬된 『경기읍지』 안산군조에는 군자산이, 1894년 편찬된 『기전읍지』 안산군조에는 '성황'과 함께 군자산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지자료의 표기 방식으로 보아 '군자산'과 '군자봉'은 별 의미 없이 혼용되었으며, 조선 말엽에 '군자봉'으로 개칭하였다는 설명은 그리 타당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군자봉은 서해 연안에 있는 산으로 삼국시대 한강 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지로 산성(군자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군자봉성황제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곳이다.

● **곶뿌리**

구준물 큰말에서 무성골로 가는 모퉁이이다.

● **낙가산**

구준물 양지편 뒤(서쪽)에 있는 산으로 거모동과 월곶동 및 군자동에 걸쳐 있다.

● **덕골**

영웅대군의 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곳의 골짜기가 크므로 '덕골'이라 칭하고 있다.

● **뒷골**

양지편 마을 아래의 뒷(서쪽) 골짜기이다.

● **모산골 · 외산골**

구준물 아랫말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농경지이며 물이 많이 난다.

● **외산들**

외산골 앞에 있는 들이다.

● 무성골

가래골 초입의 서쪽 골짜기이다.

● 미나골

군자봉 안장바위 아래를 일컫는다. 현재 산과 농경지인 이곳은 예전에 미나리가 많이 자생했다고 해서 '미나리골' 이라 부르고 있다.

● 바리고개

구준물과 안산시 선부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인근에 충주 지씨 선대의 묘가 있다.



바리고개

● 백마바위

군자봉 선바위 위에 있으며 백마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이다.

● 범산이고개

영웅대군 묘 남쪽에 있는 고개로 고개길이 마치 범의 꼬리처럼 생겼다.



범산이고개

● 봉바위

산뒤 서북간으로 약 200m 지점인 군자봉 중턱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이곳 바위에서 부엉이가 날아와 울었다고 하여 '봉바위'라 칭한다.

● 백닥골

왕미 묘 아래로 가래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이 험한 협곡이어서 조선시대 어느 전란 때인지 알 수가 없으나 큰 전투가 일어나 수많은 군인이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이곳에 유골과 뼈가 많았다고 하여 '백닥골' 이라 부르고 있다.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미역을 채취했다고 한다.

● 삼신우물

작고개와 산뒤 사이 군자봉 기슭에 있는 웅달샘 우물로 예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에게 치성을 드리곤 하였다. 물이 더럽거나 부정을 타면 우물을 깨끗이 치워 정결한 우물물을 길어다 밥을 지어 먹으면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샘은 잘 나나 폐정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 석고개

산뒤와 안산시 선부동 대쟁이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 부근에 돌이 많아 '석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이 고개 마루턱이 안산시 선부동과 시흥시 군자동의 경계를 이루

고 있다. 서낭당과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1950년대에 없어졌다.

● 선바위

군자봉 정상 서쪽 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마치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 솔머루들 · 솔뿔루들

구준물 가운데말(또는 아랫말)과 큰말 사이에 있는 들이 마치 가마솔처럼 생겼으므로 '솔머루들'이라 칭한다고도 하나 이 들판의 뒷산을 소나무가 많은 산모퉁이라 하여 '솔뿔루' · '솔뿔루산'이라 하고, 그 앞에 있는 들이기 때문에 '솔뿔루들'이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안장바위

군자봉 정상에서 남쪽으로 산중턱에 있으며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

● 언저리골

김준용 장군 묘에서 황고개 방향의 골짜기이다.

● 연못동지 · 연못등지

군자공업고등학교 뒤로 전라감사를 역임한 윤행원의 묘 아래에 연못이 있어 '연못동지'라 부른다.



연못동지

● 왜실골

황고개 서쪽에 있는 산골로 골짜기가 작아 '왜실골'이라 칭한다.

● 옷나무골

양지편의 당씨 묘가 있는 골짜기이다.

● 옷산뒤

산뒤 남쪽으로 박동량의 묘 서쪽 일원을 말한다. 반남 박씨 후손들이 박동량 · 박미 · 박사익 · 박필하 등 선대의 묘하에서 살던 곳이나, 현재는 묘와 집터만 있을 뿐이다.

● 작고개

구준물 큰말과 산뒤 사이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안산(현 안산시 수암동) · 안양 · 서울을 가는 중요한 고개길이었다고 한다.



작고개

● 장터골

영웅대군 묘 북쪽으로 미나리골 남쪽에 있다. 시장처럼 골짜기가 넓다.

● 절골①

군자봉 동남쪽에 절이 있으므로 '절골'이라 부르고 있다.

● 절골②

일제 때 군자초등학교 소유의 학교림이었던 곳으로 조선시대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빈대가 많아 폐사되었다고 한다.

● 절터골

구준물 백담골 동쪽에 있으며 절이 있었다가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일명 '언저리골' 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 후손 묘가 있다.

● 정문이골

김준용 장군 묘 아래의 골짜기이다.

● 지봉골 · 주봉골

군자공업고등학교 뒤로 충주 지씨 선대 묘소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며 대부분이 농경지이다.



지봉골

● 탑골

구준물 아랫말 뒤(서쪽)에 탑이 있었으므로 '탑골' 이라 부르고 있다.

● 탕마골

양지편 마을 가운데 뒤(서쪽) 골짜기이다.

● 황고개

구준물 큰말과 장현동 · 장곡동 사이에 있다. 이곳 토질이 황토라 하여 '황고개' 라 칭하고 있으며, 1987년에 고개길을 포장하였다. 장곡동 시흥경찰서에서 군자동으로 넘어가는 중요 도로이다.

제3절 월곶동(月串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의 월동리(月東里)와 월서리(月西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월곶리(月串里)로 합쳐졌다. 마을에 월곶진이 있었던 데서 월곶리를 칭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의 월곶동 주변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마유면과 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월곶동이 되었으며, 행정동은 거모동이였다. 1994년 6월 시흥시조례 제374호에 의해 행정동 명칭이 '군자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1만 1,556명으로 남자가 5,902명, 여자가 5,654명이며, 세대수는 4,980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월곶리'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월동리'와 '월서리'로 일시 분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마유면조에는 월동리와 월서리를 모두 '달월이'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月串里 | 달월이[月東里] | 月串里 | 月串洞 |
| | 달월이[月西里] | | |

월곶진이 언제 이곳에 설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는데, 다만 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안산군 승지고적(勝地古跡)조에 “마유면의 월곶에는 첨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강화도로 옮겼다 한다. 그 터의 모양은 지금도 뚜렷하다(馬遊面月串有僉使中古移設沁都云而其址形尙今宛然)”고 기록되어 있어서 월곶진 설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잔



궁골



별감

● 고잔

예전에 인근의 사람들이 인천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녔을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다. 상골 서쪽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마을의 발달한 위치가 내륙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지의 안이란 뜻으로 ‘고잔’이라 부르고 있다. 고잔은 마을 서쪽 지역을 ‘웃말’, 동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기는 장씨로 알려졌으며, 그 후 안동 김씨와 순흥 안씨 등이 세거해 왔다. 이곳에는 첨지중추부사 안순·여주목사 안진·청주목사 안영남·창성부사 안근 등의 묘가 있다.

● 구능뿌리(벻말)

고잔 북쪽에 있는 마을로 구능뿌리 산중턱에 옛 능터가 있으므로 ‘구능뿌리’라 칭하고 있다. 지금은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그 뒷산은 ‘구능뿌리산’이라 한다.

● 궁골

상골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궁궐의 내시

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므로 '궁골'이라 부르고 있다.

● **별말**

이곳은 본래 넓은 벌판이었는데, 구한말에 이르러 경주 최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아 촌락이 이루어졌다. 월동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 **별감 · 별가메**

이 마을은 본래 삼밭이 딸린 마을로 세대수가 늘자 삼밭과는 별개의 마을이란 뜻으로 '별감'이라 칭하고 있다. 일설에는 궁골에 살던 하인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해서 별감이라 불리고 있다고 한다. 별감은 삼밭과 궁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진주 강씨와 밀양 박씨 등이 세거해 왔다.

● **삼밭**

미륵고개와 별감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로 조선 중엽 경주 최씨 후손 중에 충정공이란 분이 낙향하여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 후 파평 윤씨와 안동 김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현재는 경주 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밭에 삼을 많이 심었으므로 '삼밭'이라 부르고 있는데, 월곶선을 따라 동쪽 지역을 '진너삼밭'이라 칭하고, 서쪽 지역은 '안삼밭'이라 부른다.

● **상골**

옛 월곶 시외버스 종점 주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본래는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해서 '산골'이라 했는데, 광복 이후부터 '상골'이라 부르고 있다. 일설에는 이곳에 큰 상돌이 있어서 '상곡'이라 했다고도 하나 확인할 수가 없다. 한양 조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상골

● **샛터 · 신기촌**

이곳은 본래 농경지(밭)였다가, 조선 말엽 인근의 사람들이 분가하면서 새로 터를 잡고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궁골과 상골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 **신촌**

별말 끝에 있는 마을로, 옛 소래염전 인부들이 모이면서 새로 생겼다 한다.

● **우묵골**

응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삼태기처럼 우묵한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 **월동**

상골 동쪽으로 수리미산 밑(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주 이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마

을이다. 광복 이전에는 월동과 월서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매년 실시하여 마을의 단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독을 굽는 가마가 있었으므로 일명 '독가말' 또는 '독가메'라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월곶선 밑에 있는 하천을 따라 서쪽에 있는 응고개·상골·궁골·고잔·조구나리 등의 여러 지역은 서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월서리'라 하였고, 동쪽에 있는 독가말·통심·마전·벌말 등의 여러 지역은 동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월동리'라 하였다. 월동이란 마을 명칭은 월동리의 여러 마을 중 가장 먼저 취락이 형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수 또한 가장 크므로 붙여진 것으로 수리미산 밑에 있는 마을은 '웃말', 서쪽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경주 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응고개

우묵골과 방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로 주위에 험한 산이 있어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고개를 '응고개'라 했다. 이 후 시대 변천으로 '응고개'가 되었으며 인근에 민가가 생기면서 고개 이름을 따서 '응고개'라 부르고 있다.

● 이호정

고잔 서남쪽으로 옛 수인선 달월역이 있던 마을로 본래는 달월역 앞에서 동남쪽으로 약 50m 지점에 가옥 2채와 우물이 있어 '이호정'이라 칭했다. 그 후 일제 말엽에 폐동되고 그곳이 농경지로 변모되었다가, 1960년대 달월 간이역이 생기면서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호정

● 조구나리·조구나루

조선시대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을 때, 조기를 가득 실은 배가 이 마을에 들어 왔다고 해서 '조개나루'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조구나리'로 되었다. 구능뿌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구나리

● 통심

이곳은 본래 밭이었다가 조선 현종 때 최의환이란 이가 월곶리 205번지에 살았다. 그 후 자손을 분가시키면서 인근에 거주케 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최의환의 집이 월동과 마전 사이에 마을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여 '통심'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통심'을 '통심이'·'통시미'라 부르기도 한다.

● 감투되산

다래골과 뒷방울저수지 사이의 산으로 계곶머리 위(동쪽)이다.

● 갯다리는

별말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m 쯤에 있는 논이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다리를 놓았는데, 이를 '갯다리'라 칭했으며 간척 공사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농경지로 변모되면서 이 일대의 논을 '갯다리논'이라 부르고 있다.

● 게결머리

다래골과 뒷방울저수지 사이의 산으로 감투피산의 아래(서쪽)이다.

● 게발산

마전저수지 뒤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게가 많았다고 한다.

● 공우뫼

안삼밭이 가운데 있는 얇은 산이다.

● 구루지들

마전저수지 남쪽으로, 본래 구릉지였는데 현재는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 군방죽들

본래 국가에서 만든 방죽이라 해서 '국방죽'이라 불렀다가 그 후 농경지로 변모되자 '군방죽들'이라 칭하였다. 일명 '큰방죽들'이라 부른다.

● 너멍골①

미륵고개 서쪽으로 사미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 너멍골②

고잔 막동골 너머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노렴다리

월곶동과 인천시 논현동에 걸쳐 있는 수인선 철교로 193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이름은 수인선 철도를 부설한 경동철도 주식회사의 이름을 따서 '경동철교(京東鐵橋)'라 했는데, 흔히 '소래철교'라 불러 왔다. 수인선이 폐선되어 현재는 월곶과 소래포구를 잇는 인도교로 사용되고 있다.



노렴다리

● 능고개

독가말에 있는 고개로 이곳 마루턱이 능을 쓸 수 있을 만큼 천하의 명당이라고 한다.

● 달고지산

월곶동과 장곡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해발 140m이다.

● 대리골 · 다래골

대리골 너머 서쪽에 있으며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곳까지 배가 닿았기 때문에 '다리골' 이라 부르기도 한다.

● 대리골고개

궁골 뒤(서쪽)에 있으며 이 고개를 넘으면 농경지이다.

● 대추마루

미륵고개 너머(북쪽) 삼밭이에 있는 논 주위를 말한다. 조선시대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에 대추를 가득 싣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그 후 대추씨가 퍼져 이곳 일대에 대추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 돌고개

셋터 남쪽으로 셋터와 정왕동 함줄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마루에 돌이 많아 '돌고개' 라 부르고 있는데, 샘이 잘 나와 상골마을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 돌산 · 흥골산

궁골 앞의 산으로,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있다.

● 뒷방울고개

안삼밭이에서 정왕동 뒷방울로 가는 고개로, 뒷방울에서는 '삼밭고개' 라 부른다.



뒷방울저수지

● 뒷방울저수지

뒷방울 앞(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1982년 11월 16일 착공하여 1984년 4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몽리면적 72ha에 계획저수량 26만 2,000t이다.

● 마전저수지

삼밭이 위에 있는 저수지로 1985년에 착공하여 1988년에 준공되었다. 유역면적 105ha에 몽리면적 49.5ha, 만수면적 7.29ha, 저수량은 37만t이다. 제방은 길이 265m, 높이 12m에 이른다.

● 막동골

고잔 뒤(북쪽) 산등성이로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막소골

고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미륵고개

마전과 거모동 사미 사이에 위치한 고개로 조선시대 서해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곳의

지대가 높아 배가 왕래하자면 밀어야 했다고 한다.

● 밀막뚝

하마터 앞의 들 가운데를 가리킨다.

● 방고개

본래는 고개의 높이가 응고개의 절반이라 하여 '반고개'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방고개'로 되었다. 응고개와 달월교회 사이에 있다.

● 뱀방죽

큰방죽(동련방죽)과 뒷방죽 사이에 있다.

● 본향산

월곶 사람들이 산 정상에 터주가리를 세워 놓고 정성을 드리며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던 산으로 고잔 남쪽에 있다. 단천부사 김영정과 갑산부사 김영의 묘가 있다.

● 뱃말뿌리

신촌 앞의 길게 나온 야산이다.

● 부엉바위

수리미산 동쪽 기슭에 있는 이 바위는 마치 부엉이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봉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 부처골

별말 남쪽에 있으며 조선시대 이곳 골짜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말엽 빈대가 들끓어 폐사되었다.

● 불당교산

고잔 뒤 서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이 산 중턱에 사찰이 있었다 하여 '불당교산'이라 칭한다.

● 사냥지산

수리미산 동쪽으로 장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본래의 이름은 '사냥지산'이다.

● 사당터

고잔 뒤(북쪽)로 조선시대 이곳에서 고잔 주민들이 당제를 지내던 곳이다.

● 삼신우물터

본향산 밑으로 고잔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1970년 고잔 주민들이 마을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마을의 대동우물로 물맛이 좋기로 정평이 났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삼신할머니가 아들·딸을 꼭 점지해 준다고 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

는 부인들이 많이 이용했고, 더욱이 무병장수를 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우물 옆에 터주 가리를 설치하는 등 신성시하였다.

● 새방죽

일제 때 만든 방죽으로 안방죽 동쪽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 섬산

달월교회 북쪽으로 농경지 가운데에 있다. 산이 마치 섬처럼 생겼는데, 구전에 따르면 떠 내려 온 산이라고 한다.

● 송고지산

산이 길고 송곳처럼 생긴 산으로 고잔 동쪽 끝에 있다.

● 솔방죽들

안산선 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선 곳이다.

● 수리미산

월동 뒤(동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처럼 생겼다.

● 안방죽

고잔 안쪽으로, 조선 말엽에 만든 방죽으로 알려져 있다.

● 안산

월곶동 앞(남쪽)에 있는 산으로 마전저수지와 미륵고개 사이에 위치해 있다.

● 여우골

조선시대 이곳에 여우가 많아 '여우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대리골 너머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염병고개

별말 남쪽으로, 찬우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 마루턱이 후미진 곳이어서 인근의 사람들이 염병을 앓다가 죽으면 이곳에다 매장을 했다고 한다.

● 영천산

조구나리의 뒷산이다.

● 왜수골 · 애실골

마전저수지 위(동쪽)에 있다. 이곳에 큰 기와집과 샘 우물이 있어 '와수골'이라 했다가 그 후에 '왜수골'이 되었다고 하는데, '애실골'이라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깨진 기와장(청기와)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왜수골고개

장곡동 매골 노루우물과 거모동 사미 사이의 고개로 '왜수골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우묵골

고잔 동남쪽으로 본향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우묵하며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응고개

응고개마을과 고잔 사이에 있으며 이 고개로 말미암아 '응고개'란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 본래의 이름은 '음고개'이다.

● 이문들

안삼밭이 북쪽에 있는 들로 이곳 일대가 전주 이씨의 땅이므로 '이문들'이라 부른다.

● 작은빈장산

큰빈장산 북쪽으로 상골에 속해 있으며 작고 야트막한 산이다.

● 재밭등성이

미륵고개와 안삼밭이 사이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공동묘지였다.

● 조구나리고개

조구나리와 고잔 사이로 조구나리에서는 '고잔고개'라 칭한다.

● 쪽박산

독가말에서 건너삼밭으로 가는 초입에 있는 작은 산이다.

● 찬우물①

대추마루 동쪽으로 마전저수지 위(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샘물이 차서 '찬우물'이라 칭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하사금 750만원으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마을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 찬우물②

마전저수지 북쪽으로 수리미산 밑에 있는 우물이다. 샘물이 한여름에도 몹시 차다.

● 철남산

안삼밭이 뒤(서쪽)에 있으며 철이 많이 매장된 산이라고 한다.

● 큰빈장산

대리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 큰 비석이 있었기 때문에 '큰빈장산'이라 부른다.

● 통심산

월동 앞(서남쪽)에 있으며 쪽박처럼 생겨 일명 '쪽박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 통심이고개

월동과 통심 사이에 있으며 통심에서는 '월동고개'라 부른다.

- 하마터

본향산 북쪽 끝으로 고잔 진입 중간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 순흥 안씨 후손 중에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낙향하여 고잔에 살자, 인근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 해초막터

조선시대 월곶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막을 쳤던 곳으로 달월교회 남쪽 개울 옆에 있었다. 주위에 소나무가 많았다.

- 홍골

홍고개 오르기 전의 골짜기이다.

- 홍고개

셋터와 정왕동 뒷방울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이곳의 흙이 붉어 '홍고개'라 칭한다.

正往洞

제8장 정왕동

제1절 정왕동

제2절 죽울동



제1절 정왕동(正往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의 정왕리와 오이리였는데,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정왕리로 통합하였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 정왕동 주변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정왕동이 되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행정동은 1999년 9월 27일 정왕 1·2동으로, 2002년 4월 1일 정왕 1·2·3·4동으로, 2003년 11월 23일 정왕본·1·2·3·4동으로 계속 분동되어 왔다.

정왕동은 옛 군자염전을 매립하여 조성한 시화공단과 배후 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급증한 곳으로서 시립도서관·여성회관 등 관공서와 시화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왕본동에 속해 있는 죽울동을 제외한 정왕본·1·2·3·4동의 총 인구는 14만 3,830명으로 시흥시 총인구의 1/3을 넘으며 이 중 남자가 7만 7,043명, 여자가 6만 5,787명이며, 세대수는 5만 8,545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정왕리(正往里)'와 '오이도리(烏耳島里)'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마유면 정왕리를 '봉화재', 오이리인 오이도(烏耳島)를 '옥재섬'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正往里 | 봉화재(正往里) | 正往里 | 正往洞 |
| 烏耳島里 | 옥재섬(烏耳里) | | |

정왕동은 정왕산 인근에 민가가 형성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정왕산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 영조(英祖) 때 편찬한 『여지도서』이다. 이 책 안산군 산천조에는 '正往山在郡西三十里 烽燧在此'라 하여 정왕산이 안산군의 읍치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봉수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 높은우물

이 마을은 서해안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갯고랑에 불과한 곳이었으나 원주 원씨 10세손 음성공위효이파의 원호영(1548~?, 선교랑 역임하고 좌승지에 증직)이란 분이 10여 년간 살았다. 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의 아들 원성모(1569~1636, 찰방을 역임하고 시호는 충의)와 손자 원승길(1595~1636, 훈련부정을 역임하고 좌찬성에 증직) 및 원이길이 안산 덕물도에서 순절하자 배나루 뒷(서북) 동산에 묘를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세거하면서부터 촌락이 형성되었다.

봉우재와 배나루 사이에 위치해 있는 높은우물은, 이곳 원용철씨 마당 옆에 있는 우물이 높은 지대에 있어 우물 이름을 따서 '높은우물'이라 칭하였다. 원주 원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뒷방울

사랑 서북간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취락으로, 사랑 뒷방같이 아늑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뒷방울'이라 부르고 있다.

● 배나루

병자호란 때 원성모와 그의 두 아들이 덕물도에서 순절하자 원성모의 묘를 이곳 동산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닿아 '배나루'라 불렀는데, 1920년대 초 군자염전 제방 축조 공사 이후부터 배가 드나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나무를 '이진'이라 칭하는 것은 일제 때 배 '주(舟)'자를 배 '이(梨)'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높은우물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배나루'는 마을 서남쪽 지역을 '작은배나루'라 부르고, 서북쪽 지역을 '큰배나루'라 부른다. 원주 원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으며, 병자호란 때 순절한 원성모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는 시화지구 건설로 본래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1988년에 이장되었다.



배나루 앞들

● 봉우재

높은우물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이 마을 뒤(북쪽)에 있는 정왕산(또는 봉수산)에서 조선시대 봉화를 올렸으므로 '봉우재'라 칭하고 있으나, 본래는 '봉화재'라 불렀다.

영양 천씨와 밀양 박씨의 오랜 세거지이나 현재는 영양 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봉우재는 마을 동쪽 지역을 '큰말', 남쪽 지역을 '아랫말', 봉현정미소 서쪽을 '불당촌'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 사랑

사미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밀양 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조수에 의해 이곳 마을 앞까지 찰랑찰랑했다고 한다. 사랑을 마을에서는 '사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10년대 지도에 봉수산(정왕산)의 동북쪽에 '사랑리(砂浪里)'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이룰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삼한

사랑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중엽 청주 한씨 세 가구가 처음으로 터를 잡아 '삼한(三韓)'이라 불렀다 하나 확실치 않다. 현재는 '삼안이'·'삼한이'·'삼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삼한 서남쪽에 있는 마을은 '건너말'이라 칭한다.

● 오동나무골

이 마을은 1922년 군자염전 축조 공사 때 염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락이 형

성되었다고 한다. 죽율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남쪽)에 오동나무가 많았으므로 '오동나무골'이라 불리고 있다.

● 평안촌(平安村)

옛 수인선 군자역 주변에 있는 마을로 1922년 군자염전 축조 사업을 할 때 평안도 용강 등지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일명 '피양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웃평안촌'과 '아래평안촌'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아래평안촌 아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 함줄[咸紬]

사랑 서쪽으로 조선 초기 청주 한씨 후손이 낙향하여 터를 잡은 곳이다. 이 마을은 조선 시대 바닷물이 이곳에까지 들어왔을 때 배가 쉬어 갔다고 하여 '함(艦)현'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함(咸)현'으로 되었다.

● 감나무골

봉우재 봉현정미소 앞(남쪽)에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골'이라 했는데, 현재는 논으로 변모되었다.

● 검등골

배나루 북쪽으로, 현재 과수원과 목장이 있다.

● 고능골

시립공원묘지의 남쪽 골짜기를 가리킨다.

● 구름울골

봉화산 손녀밭 사이로 1988년 시화지구 건설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 군자염전

군자역과 오이도 사이에 있던 국영 염밭이다. 넓이 600여 정보로 1922년에 설치되었으나 1987년의 시화지구 건설로 인해 현재는 시화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 굴뚝촌

평안촌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공장의 큰 굴뚝이 서 있었으므로 '굴뚝촌'이라 부른다. '굴뚝밭'이라 칭하기도 한다.

● 길마산[鞍山]

함줄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길마처럼 생겼다.

● 농바위

사랑 뒤(북)쪽 뒷방울 가는 산비탈에 있는 바위로, 구전에 따



길마산

르면 조선시대 어느 장수가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과 투구 등 일체를 장농 속에 집어넣고, 후일에 자기가 좋은 때를 맞이하면 다시 입겠다 말하고는 이 바위 앞에서 천지신명에게 빌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바위를 두드리면 올린다.

● 능뿌리

요골에 있는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 높은우물

높은우물마을 서쪽 박경철씨와 원용철씨 댁 사이에 있다. 대동우물이었는데, 1970년대 에 이르러 자가 수도가 생겨 이용하는 가구수가 줄었다.

● 도둑골

뒷방울의 뒤쪽 골짜기이다.

● 두름줄고개

높은우물과 두름줄 사이에 있던 고개로 1988년 시화지구 사업으로 인해 폐로되었다.

● 뒤름줄고개

배나루 동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 뒤름줄골

군지역 동북쪽으로 남평 문씨 문중 묘소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나, 조선 시대에는 생선이나 나물 등을 짚으로 두 줄로 엮어 이곳에서 말렸다 한다.

● 뒤름줄들

봉우재와 배나무 사이에 있는 들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며 토질이 개흙이다.

● 뒷골소

이곳은 서해 바다에 면한 갯고랑으로 조개·굴·낙지 등 각종 어패류가 많이 잡혀 인근 사람들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함줄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 뒷방울교

뒷방울저수지 수문 밑에 있는 다리로 뒷방울저수지가 설치되자 1983년 12월 31일 건립 되었다.

● 드러께

배나루 서쪽으로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 모시물

봉화산 밑 한정희 가옥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현재 3가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바라지들**

높은우물 남동쪽으로 죽울동과 정왕동 사이에 있는 들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 **방맹이산**

함줄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이 산속에서 방망이를 든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한다. 비가 오거나 날이 저물면 도깨비가 무서워 이 산에 가기를 꺼려했다. 일명 '벧퇴산' 이라고도 한다.

● **배나루고개**

배나루와 봉우재 사이로 배나루에서는 '봉우재고개' 라 부른다.

● **버섯목배미**

버섯처럼 생긴 논으로 소자리들 북쪽(봉우재)에 있다. 논이 크기는 400여 평에 이른다.

● **벽구재들**

옛 수인선 군자역 동쪽에 있는 들로 이곳의 농경지는 물의 근원이 없고, 용수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가 와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건조한 땅이다.

● **사경답**

봉우재 소자리들 안에 있는 논으로 조선 말엽 어느 부자가 이 논을 팔아 머슴의 새경을 주었다고 한다. 수답으로 8마지기 정도에 이른다.

● **사당우물**

조선시대 함줄 주민들이 마을제사(당제) 때 이 우물물을 떠다 정한수로 사용했다고 하여 '사당우물' 이라 칭하고 있다. 1970년대 말엽까지만 해도 마을의 식수원이었다. 함줄 아래에 위치한다.

● **사랑고개**

사랑과 사미 사이에 있다. 사랑에서는 '사미고개' 라 부르며 고개가 얇다.

● **소자리들**

봉우재 앞(남쪽)에 있는 들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수답으로 토질이 좋다.

● **손녀밭**

삼한과 봉우재 사이 길가에 있으며 긴 밭으로 토질이 좋다.

● **섭섭울**

구름울골 북쪽이다.

● **성지물**

뒷방울저수지 아래의 민가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 **쑥고개**

삼한과 함ضل 사이에 있으며 예전 이곳에 쑥이 많았다고 한다.

● **아자골**

대각사 앞(남쪽)에 있던 골짜기로 과수원이었는데, 1988년 시화지구 건설로 평지가 되었다.

● **안골**

쑥고개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골짜기가 삼태기 안처럼 생겼다.

● **안살미**

높은우물 앞(남쪽)에 있었던 산으로 과수원이었다가 1988년 시화지구 건설로 정리되었다. '건지탑' 이라고도 한다.

● **앞들**

사랑 앞(남쪽)에 있는 들로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 **여우바위**

길마산에 있는 바위이다.

● **오리목들**

삼한과 봉우재 사이에 있는 들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인데 수답이다.

● **용우물**

뒷방울마을 남쪽의 하얀산 바로 아랫논의 우물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 **웅덩배미**

봉우재마을 중앙에 있는 오목하게 들어간 논으로 600여 평 된다.

● **젓박이고개**

높은우물과 봉우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1987년에 포장되었다.

● **정왕산**

봉우재 뒤(서북)에 있는 산으로 해발 220m에 이른다. 조선 영조대 산정상에 오이도에 있던 봉수대를 옮겨 설치하였는데, 고종 8년(1871)에 발간한 『안산군읍지』 봉수조에 “읍치(邑治)에서 서쪽으로 25리 떨어진 마유면 정왕산에 있는데, 남쪽으로 남양(南陽)의 해운산(海雲山)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인천 성산(城山)봉수에 응한다”라고 기록되었다. 이보다 앞선 영조 35년(1759)에 발간된 『여지도서』 안산군 봉수조에 “정왕산봉수(正往山烽燧) : 옛 오질이도(吾叱耳島)봉수를 지금 여기로 옮겼다.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島)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고 하여, 영조대에 정왕산으로 봉수대를 옮겼음을 알 수



정왕산

있다. 또 광무 3년(1899) 5월에 안산군에서 발간한 『안산군읍지』 봉수조에 “...갑오(甲午)년에 철폐하였다”란 기록으로 보아 고종 31년(1894)에 정왕산봉수를 폐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정왕산봉수는 1988년 상반기에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으며 그 발굴조사 보고서가 1988년 6월에 발간되었는데,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의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가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 산으로 말미암아 정왕동이란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는데, 2005년 12월 현재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가 정왕동에 살고 있고, 시화공단이 자리잡고 있어 시흥시를 대표하는 주거 및 산업 지역으로 성장·발전하였다.

● 조추고개

사랑과 거모동 사미 사이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이곳에 새 떼가 극성을 부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자 새를 쫓곤 하였다고 한다. 사랑에서는 ‘사미고개’라 부른다.

● 지거리우물

봉우재 봉헌정미소 서쪽 길 아래에 있다. 샘 우물로 물이 깨끗하다.

● 차돌박이

옛 수인선 군자역 동쪽으로 남평 문씨 선대 묘소 주변에 차돌이 많아 ‘차돌박이’라 칭하고 있다.

● 차돌박이우물

옛 수인선 군자역 동쪽 남평 문씨 묘소 옆(동쪽)에 있다. 차돌 속에서 샘이 솟아 ‘차돌박이우물’이라 칭하고 있는데, 물맛이 좋아 일제 때는 일본인들이 우물에 뚜껑을 해 놓고 열쇠로 잠궈 놓았다고 한다.

● 찬우물

큰배나루 뒤(북쪽) 봉화산 밑에 있는 우물로 물이 차서 마을의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 치갈배미

봉우재와 소자리들 사이에 있는데, 수답으로 1천여 평에 이른다.

● 풀무고개

군서초등학교에서 배나루로 가는 고개이다.

● 함줄고개

배나무와 함줄 사이로 함줄에서는 ‘배나루고개’라 부르고 있다.

● 함줄들

함줄마을 가운데에 있는 들로 현재 농경지이다.

● 오이도(烏耳島)

시흥시의 서남쪽 끝에 있는 섬으로 각종 어패류가 많이 산출되는 관광지이자 신석기시대 이래 선사유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되어 사적 제 441호로 지정된 지역이다.

오이도로 생각되는 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이다. 세종 30년(1448) 8월 27일에 안산군에 속한 섬으로서 '오질이도(吾叱耳島)'가 나오고 『지리지(地理志)』 안산군조에는 봉화가 있는 곳으로 '오질애(吾叱哀)'가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안산군조에도 '오질이도봉수'가 나오고 있어 오질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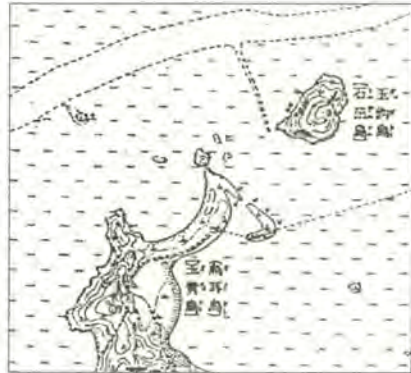
질애가 현재의 오이도를 가리키는 이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오이도'가 까마귀의 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은 고유어 '오질'을 간략히 적기 위해 차자한 '오이(烏耳)'를 한자식으로 다시 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 안산군조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지도에는 '오이도', 내용에는 '오질이도'가 각각 나온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오질이도'와 '오이도'는 같은 섬이기 때문에, 『여지도서』가 편찬되던 시점에는 '오질이도'와 '오이도'가 같이 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동지지』(1864)에는 '의이도(衣耳島)'로, 『경기지』(1843)에는 '옥구도(玉龜島)'로, 『경기읍지』(1871)와 『기전읍지』(1894)에는 '오이도(烏耳島)'로 나와 있다. 특히 『기전읍지』 안산군 산천조에는 "오질이도는 지금의 오이도로서 군의 서쪽 40리에 있다(吾叱耳島 今烏耳島 在郡西四十里)"라고 서술하여, '오질이도'와 '오이도'가 같은 섬이란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편 지도에서 보듯 1910년대에는 '오이도'와 함께 '옥귀도(玉貴島)'란 이름도 같이 쓰였고, 『조선지지자료』에도 오이도의 별명이 '옥귀도(玉龜島)'라는 설명이 있는데, 가깝게 있는 옥구도의 이름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옥구도(玉鉤島)

오이도와 인접한 섬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옥구도도시자연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변화했다. 현지 주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돌주리'라 부르고 있으



1910년대의 오이도와 옥구도



옥구공원

며,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지명은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석을주도(石乙注島)'로서, 세로로 쓰여진 '石'과 '乙'을 한글자로 보면 우리 고유의 글자인 '돌(石)'이 된다. 따라서 '석을주도'는 '돌주도(石注島)'를 풀어서 기록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1894년의 『기전읍지』에는 '석을주

도'로, 1864년의 『대동지지』에는 '석출도(石茁島)', 1843년의 『경기지』 안산군조에는 '석옥귀도(石玉龜島)'로 기록되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옥구도를 가리켰던 고유 명칭은 '석을주도'와 '석출도'로서 '석을주도'의 경우 '돌주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석출도'도 '석(石)'에서 돌이란 뜻을 새기고, '출(茁)'에서 '출(주리)'이란 발음을 새겨 '돌출섬' 또는 '돌주리섬'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에 오이도를 '옥귀도(玉龜島)'로, 현재의 옥구도를 '석옥귀도(石玉龜島)'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오이도에 딸려 있는 돌섬이란 의미에서 '옥귀도' 앞에 '석'자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옥구도가 현재와 같은 한자로 기록된 첫 번째 사례가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 발행한 『근세한국오만분의일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の一地形圖)』인데, 보는 바와 같이 이때에도 별칭으로서 '석출도'를 부기하였고, 발음을 'トルチルアム(돌출암)' 즉 '돌출바위'라 기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근세한국오만분의일지형도』의 저본(底本)에 해당하는 1911년의 『구한말한반도지형도(舊韓末韓半島地形圖)』에는 옥구도의 명칭을 '석출도'라고만 기록하고 발음도 'トルツショム(돌주섬)'이라고 한 점이다. 즉 일제는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을 추진하면서 1890년대부터 지형도 제작에 착수하여 1차로 1911년 비



『近世韓國五萬分の一地形圖』 옥구도



『舊韓末韓半島地形圖』의 옥구도

밀문서로서 『구한말한반도지형도』를 발간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근세한국오만분의일지형도』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1911년 지형도에서 '석줄도'라고만 표기하였던 섬을 1918년에는 '옥구도'를 대표 명칭으로 하고, '석줄도'를 별칭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1911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본인들에 의해 '옥구도'가 공식화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18년 지형도에 '옥구도'로 기록된 이후 일제가 발행한 각종 지도에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변함없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공식적인 표기에 상관없이 현재까지 항상 '돌주리' 또는 '돌주리섬'으로 불려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왜 일본인들이 '돌주리섬'을 '옥구도'라 명명하였는지 정확한 이유를 살펴볼 자료는 없지만 '옥구(玉鉤)'라는 한자 표기에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옥구'는 고대 중국에서 의식을 할 때 혁대를 고정시키던 옥으로 만든 버클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음력 한달 중 궁장월(弓張月)·항월(恒月)·반월(半月)·과경(破鏡) 등과 함께 제7일에 뜨는 달을 가리키는 별명으로도 사용되었으며, 견우와 직녀의 칠월칠석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소재로 중국에서 쓰인 바가 있다.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하(李賀, 790~816)가 지은 '칠석(七夕)'이란 시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이 '옥구'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別浦今朝暗 이별의 나루터는 아침부터 어둠에 잠겼는데
羅帷午夜愁 비단 휘장은 낮이건만 밤같은 수심을 드리웠네
鵲辭穿線月 까마귀도 손톱 달 작별하며 떠나가고
花入曝衣樓 (가는 세월) 떨어지는 꽃잎은 포의루로 날아드네
天上分金鏡 하늘에 걸린 슬픈 사연의 조각거울을
人間望玉鉤 사람들은 다만 옥구라 바라보지만
錢塘蘇小小 님 보내는 전당의 소소소는
更值一年秋 다시 일년의 세월 기다려야 하네

따라서 일본인들은 옥구도에서 달을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빼어나다는 특성과 한때 '석옥귀도(石玉龜島)'로 불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옥구도'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옥구도'라는 명칭보다는 '돌주리섬'이 섬의 모양과 문헌 기록을 종합할 때 더욱 적당한 이름이라 생각된다.

표) 각종 자료에 등장하는 오이도와 옥구도 지명

| 典 據 | 오이도 | 옥구도 |
|--|---------------------------|------------------------|
| 『세종실록』30년(1448) 8월27일 | 오질이도(吾叱耳島) | - |
| 『세종실록』「지리지」 | 오질애(吾叱哀) | - |
| 『동국여지승람』(1481년) | 오질이도(吾叱耳島) | 석을주도(石乙注島) |
| 『여지도서』(1760년 대) | 오이도(烏耳島) · 오질이도(吾叱耳島) | 석을주도(石乙注島) |
| 『경기지』(1843) | 옥귀도(玉龜島) | 석옥귀도(石玉龜島) |
| 『대동지지』(1864) | 오이도(烏耳島) | 석줄도(石茁島) |
| 『경기읍지』(1871) | 오이도(烏耳島) | - |
| 『기전읍지』(1894) | 오이도(烏耳島) | 석을주도(石乙注島) |
| 『舊韓末 韓半島地形圖』(1911) | 옥귀도(玉貴島) | 석줄도(石茁島) |
| 『近世韓國 五萬分の一地形圖』(1918) | 오이도(烏耳島) · 【옥귀도(玉貴島)】 | 옥구도(玉鉤島) 【석줄도(石茁島)】 |
| 『조선지지자료』(1919) | 옥지섬(烏耳島) · 一名 옥귀도(玉龜島) | - |
| 『인천부를 중심으로 한 명소 교통도회』 『仁川の景勝』(1937) | 오이도(烏耳島) | 옥구도(玉鉤島) |

● 가운데살막

오이도 큰말 서남간에 위치해 있다. 오이도에서 어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 하여 '가운데살막' 이라 불렀다고 하나, 이주단지가 건설되고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여 현재는 옛 자취를 찾기 어렵다.



가운데살막

● 고주리

신포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배의 닻줄을 높이 놓은 곳이라 하여, 배가 정박하고 있다는 뜻으로 '고주리' 라 칭하고 있다. 1988년에 폐동되었다.

● 소래벌

일제 중엽에 간척 사업이 끝난 후 새로 생긴 마을인데, 인근의 소래염전 명칭을 따서 '소래벌' 이라 부르고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오이도와 정왕동을 이어서 만든 염전은 군자염전

이고 소래염전은 장현동·장곡동·포동 앞을 메워 만든 염전으로서, 거리상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 신포동

가운데살막 남동쪽에 있다. 본래 큰말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아래살막'이라 불렀는데, 한국전쟁 후 황해도 연백·용진 등지의 난민들이 이곳에 새로 터를 잡고 어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포구란 뜻으로 '신포동'으로 개칭하였다. 뒷살막은 큰말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 말엽에 폐동되었으며, 신포동 역시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1988년 폐동되었다.

● 큰말

오이도 중앙에 위치해 있다. 오이도의 5개 자연마을 중 가장 큰 마을이다. 김씨와 전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 마을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3년마다 한 번씩 음력 2월 중 길일을 택해서 조선시대 봉수가 설치되었던 산봉(현재 모 부대가 자리잡음)에서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냈다. 일명 '안말' 또는 '안동네'라 칭하기도 한다.

● 가운데살막고개

오이도 가운데살막과 큰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똥섬

오이도와 옥구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갈매기 등 조류가 이 섬에 날아와 똥을 많이 누다고 하여 '똥섬'이라 부른다고 한다. '똥섬'이란 말의 어감이 좋지 못하여 최근에는 '덕도'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오이도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명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섬의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 가운데 한 글자를 따서 붙였다는 설도 있다.

● 뒷살막고개

오이도 뒷살막과 큰말 사이에 있으며 뒷살막에서는 '큰말고개'라 칭한다.

● 아랫살막고개

오이도 아랫살막과 큰말 사이에 있던 고개로 신포동에 속한 고개였으나 시화지구 개발로 1988년에 없어졌다.



가운데살막고개



똥섬



뒷살막고개



아랫살막고개

● 오이도봉수대터

오이도 가운데살막 뒤(북쪽)로, 오이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조선 중·후기까지 봉화가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 안산군조에는 “봉화가 2곳이니, 오질애와(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무응고리(無應古里)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 무응고리이다(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에 응한다)”고 하였으며, 성종 때 발간한 『동국여지승람』 안산군 봉수조에는 “오질이도봉수 :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고 하였다. 『여지도서』 안산군 봉수조에는 “정왕산봉수 : 옛 오질이도봉수를 지금 여기로 옮겼다,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고 하여, 영조대에 정왕산으로 봉수대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오이도봉화터는 현재 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그 형태나 규모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오이도봉수대터

● 형도

오이도 가운데살막 서남쪽에 있는 섬이다. 두 개의 섬이 나란히 있으므로 ‘형도’라 부르고 있는데, 일명 ‘쌍가래섬’이라 칭하기도 한다.

● 황새바위

오이도 큰말 북쪽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황새의 서식처이므로 ‘황새바위’라 부른다.



황새바위

● 황새바위섬

오이도 큰말 북쪽에 있는 섬으로 예전에 황새의 서식처였기 때문에 ‘황새바위섬’이라 부르고 있다.

● 생금우물

옥구도 돌주리 관사 뒤 신사단터 밑에 있는 우물로, 마을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 때에도 물맛이 좋아 일인들이 우물에 뚜껑을 해 놓고 자물통으로 잠그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조선 말엽에 죽울동에 사는 김모씨가 이곳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갈증이 나서 우물물을 마시려는데 우물 속에 닭 두 마리가 있어 그 중 한 마리를 잡아 집에 갖다 놓고 보니 생금으로 변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우물을 ‘생금우물’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 신사단터

옥구도(돌주리) 관사 뒤로 산 밑에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왕실의 조상과 신대(神代)의 신을 참배하던 곳으로 18개의 돌계단 위에 터를 잡고 그 위에 약 1.5평 정도의 단을 설치하고 우측(북쪽)에는 신사비를 세웠는데, 광복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때려 부수었다고 한다.

● 선창

옥구도 동북쪽 끝으로 이곳엔 배가 닿고 짐을 부릴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데, 현재는 작은 어선만이 닿는다.



오이도

제2절 죽울동(竹栗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 죽울리였다가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의거, 옛 안산군의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 죽울동 주변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죽울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정왕본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640명으로 남자가 349명, 여자가 291명이며, 세대수는 276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 이후 변함없이 안산군 마유면 소속으로 '죽울리(竹栗里)'가 나오고 있어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곳이다. 『조선지리지』의 안산군 마유면조에서는 죽울리를 '대암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竹栗里 | 대암이[竹栗里] | 竹栗里 | 竹栗洞 |

‘죽울’이란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894년에 편찬한 『기전읍지』 안산군편의 지도인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 오이도와 연결되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대나무와 밤나무가 무성하였다 하여 ‘죽울리’라 불렀다고 하지만, 죽울리의 한글 발음이 ‘대암이’라는 위의 기록을 보면, 죽울은 ‘대암이’라는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차자(借字)일 가능성이 높다.

● 대암[竹栗]



대암

새말 서쪽으로 조선시대 이곳에 대나무와 밤나무가 많아 ‘대밤’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대암’이 되었다고 하며, 근래에는 ‘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일설에는 마을 서쪽 숲 통퇴산의 큰 바위를 ‘대암(大岩)’이라 일컬었는데, 그 후 민가가 들어서면서 바위 이름을 따서 대암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 바위는 1922년 군자염전 제방 수축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흔히 대암을 ‘한배미[大畚]’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작명한 것이라 한다.

대암은 의흥 예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금녕 김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현재는 의흥 예씨와 남평 문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대암은 편의상 마을 동쪽 지역을 ‘웃말’, 서쪽 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으며, 아랫말에는 삼화부사 이양신의 묘가 있다.



새말



정촌



큰말



구룡고개

● 새말

정촌과 큰말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본래 구룡고개 부근에 민가가 있었는데, 이곳에 전주 이씨 선대의 묘를 쓰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잡으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새말은 구룡고개 인근에 있는 마을을 '웃말', 웃말 앞(동쪽)에 있는 마을을 '건너말', 구룡고개 밑(남쪽)에 있는 마을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 정촌(正村)

거무개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본래 마을 너머(서쪽)에 '정외(正外)'란 마을이 있었는데, 그 후 민가가 늘어나자 광복 이후부터 정외의 '정'자를 따서 '정촌'이라 부르고 있다.

정촌을 일명 '대장간마을'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랫말 박익희 씨 집 앞(북쪽) 논에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래 금녕 김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현재도 금녕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오이도선을 따라 북쪽 지역은 '웃말', 남쪽 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 큰말[大村]

대암과 새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죽울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므로 '큰말'이라 부르고 있다. 본래 큰말은 마을 중앙을 말하며 '소뿌리'라 하기도 한다. 큰말 서쪽 지역을 '도란말'이라 칭한다. 큰말에 처음 세거한 성씨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의흥 예씨와 임씨이며, 현재는 순흥 안씨·금녕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 구룡고개[九龍峴]

정촌 웃말과 아랫말 사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갯길을 말한다. 풍수로 보아 구룡혈이라고 한다.

● 꿩뿌리

정촌 웃말 초입(동쪽)에 있으며 이곳이 풍수로 보아 꿩혈이라고 한다.

● 너브실들

대암 앞(서쪽)에 있으며 이곳의 들이 넓어 '너브실들' 이라 부른다. 일제 때만 해도 이곳에 소나무가 무성해 바다 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다고 한다.

● 느리물골

큰말 동북쪽에 있으며 이곳에 늘 물이 많아 '늘물골' 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느리물골' 이라 부르고 있다.



느리물골

● 당제고개

대암 뒤(북쪽)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 서쪽에 있는 향나무 앞에서 197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으므로 '당제고개' 라 부른다고 한다.

● 덕정산(德井山)

큰말 뒤(서쪽)에 있는 산으로 우물 명칭인 덕정에서 산명을 취했다.

● 덕정터

덕정산 밑으로 큰말 서쪽 끝에 있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시면 피부병에 특효가 있었다고 한다.

● 돌매뿌리

막음줄 건너 서북쪽에 잇는 산줄기를 말한다. 이곳에 돌이 많다.

● 동인재산

대암 뒤(북쪽)에 있으며 산이 낮다. 이산 서북쪽 지역은 정왕동 지역이다.

● 땡기골

변전소 끝의 산 구릉지를 가리킨다.

● 막음줄

함박고개 북쪽에 있는 농경지로 대암에 속해 있다.

● 말배미골

새말의 아랫말과 건너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아무리 가물어도 모를 내는 옥답이다.

● 메뚜기방죽

큰말 남쪽의 가장 먼 곳에 있는 방죽으로 메뚜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바깥방죽들

안방죽들 앞(남쪽)에 있는 들로 큰말에 속하는 들이다.

● 밥상뿌리

한우물산 서쪽 낙맥을 말한다. 산줄기의 내민 모습이 마치 밥상처럼 생겼으며 본래 산이

있는데, 현재는 밭이 대부분이며 1970년대까지 정자가 있었다.

● **북나무골**

한우물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솔**

도란말 남쪽의 야산으로,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안방죽들**

큰말 앞(남쪽)에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며 토질이 좋다.

● **어루고개**

도란말 서쪽의 고개이다.

● **어리고개**

대암에서 한배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용머리**

큰말 남쪽의 산으로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한다.

● **작은숫통외산**

큰숫통외산 밑(서쪽)에 있다. 이 산 아래에 이양신(1689~1739, 삼화부사)의 묘가 있다.

● **잔골**

구룡고개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골짜기가 좁고 작다.

● **죽율리강습소터**

‘죽율리강습소’는 1920년대에 설립된 일제하의 사설 교육 기관으로, 당시 군자면 죽율리 출신 민병목씨가 설립했으며, 군자면의 문창열·안희철·김동환·안희신·김수환·무성옥·김규홍 등 유지들의 후원으로 안재운 씨 등 7명의 교사가 군자면 관내 어린이(1기에 70명 내외)에게 교육을 시켰다. 강습소는 일제 말엽까지 계속되다가 광복 후 중단되었다. 그 터는 죽율동 383번지인데 현재는 밭으로 변모되었다.

● **청룡산**

변전소가 자리잡은 산으로서 그 남쪽은 ‘청룡어리’라 한다.

● **축동고개**

정촌 가운데에 있는 고개로, 현재 모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다.

● **큰숫통외산**

대암 동인재산 밑(서쪽)에 있다. 이 산에 숫돌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큰숫통외산’이라 부르고 있다.



밭상뿌리



안방죽들

● 한우물[寒井]

큰말 동북쪽에 우물로서 물이 차서 '한우물'이라 부르고 있는데, 일명 '성재우물'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우물물은 수질이 좋아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하면 때가 잘 빠지기로 유명하다. 본래 마을의 식수원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 한다.



한우물 터

● 한우물산

한우물 서쪽에 있다. 한우물에서 산명이 유래되었으며 큰말에 속한 산이다.

● 햄박고개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배가 정박하던 곳이다. 대암 아랫말과 정왕동 봉우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果林洞

제9장 과림동

제1절 과림동

제2절 무지내동



제1절 과림동(果林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황등천면 일리·이리·삼리였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가 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소래읍의 시흥군 편입으로 인해 시흥군 소래면 과림리가 되었다가, 1980년 1월 1일자로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소래읍 과림리가 되었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면서 시흥시 과림동이 되었다. 행정동은 과림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과림동의 인구는 1,881명으로 남자가 1,053명, 여자가 828명이며 867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 인천부 황등천면에 속하는 두곡(杜谷, 두무저리)·모과동(木果洞, 모가울)·불아위(佛阿尉)·중림(重林)·탄평(炭坪, 숯두루지) 등이 과림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과림'은 목과동의 '과'와 중림의 '림'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1912년 | 1989년 |
|----------|-------|-------|
| 一里·二里·三里 | 果林里 | 果林洞 |

● 두무절이[杜谷洞]

모갈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 후손이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이곳 서쪽 산골짜기에 조선시대 '두무절'이라는 사찰이 있었다. 그 후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절 이름을 따서 '두무절'이라 칭했다고 한다. 민가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두무절'이라 했다고도 한다. 과거에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모갈[木果洞]

부라위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산이 험하고 나무가 많아 호랑이·늑대 등 금수가 득실거리며 '못갈 동네'라고 하여 '모갈'이 되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곳 웃말 서쪽 큰나무골에 포도와 복숭아 등의 과일나무가 많아 '모과울'이라 불렀고, 그 한자 표기인 '목과(木果)'가 현재 '모갈'이라 불리고 있다는 유래가 설득력 있다.

의령 남씨의 오랜 세거지인 모갈은 마을 동쪽 지역을 '아랫말', 서쪽 지역을 '웃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 부라위[角岩]

모갈과 중림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소의 밥통 형국이고, 마을 뒤에 있는 산은 소의 혈이며, 산 중턱에 있는 바위는 소의 빨처럼 생겼다 하여 '빨바위' 혹은 '각암동(角岩洞)'이라 불렀는데, 후대로 오면서 '부라위'가 되었다. 일제 때는 '불아위'라 불렀는데, 마을의 북쪽 지역은 '대각암(大角岩, 또는 건너부라위)', 남쪽 지역은 '소각암'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 중엽에 전주 이씨 온령군(태종의 아들) 후손인 이증길이 낙향하여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부라위 입구

빨바위는 본래 2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중림동 안골의 전주 이씨 선대의 묘와 마주하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여 없앴다고 한다. 바위를 그대로 두면 동네 여자들이 바람나서 마을을 떠나게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 사택(社宅)

숫두루지 서남쪽 과림저수지 옆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1910년대 초 마을 뒤쪽(서쪽) 산(오류광산)에 회사와 광부를 위한 사택을 신축하면서 형성되었다.

오류광산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문을 닫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에 의해 다시 채광을 시작했다. 해방 후에는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폐광되었다. 또한 사택은 산 아래 지역이라 겨울이면 몹시 춥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소련땅'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 숯두루지[炭坪洞]

중림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흑연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탄평' 또는 '숯두루지'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성균관생원을 지낸 송정설이 낙향한 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현재도 그의 후손인 진천 송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어 '송촌'이라 칭하기도 한다. 금오도로를 따라 동쪽 지역을 '아랫마을', 서쪽 지역을 '웃마을', 북쪽 지역을 '셋터마을(일명 공동묘지촌)'이라 부르고 있다.

● 중림(重林)

숯두루지와 부라위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신안 주씨와 청주 한씨 및 여흥 민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숲이 우거지고 나무와 산이 많았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서쪽 지역을 '안말', 동쪽 지역을 '아랫말', 중앙을 '가운뎃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는데, 특히 안말은 조선시대 중림역이 있었던 곳이다. 중림역은 그 후 달성 서씨가 경기감사로 재직할 때 그의 선대 묘를 이곳에 쓰기 위해 역사를 시흥 발시(지금의 서울 금천구 시흥동)로 옮겼는데, 그 후부터 마을이 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가능갈논

숯두루지 긴갈논 북쪽에 있는 논으로 모양이 가늘며, 1984년 경지를 정리하였다.

● 가락지배미

예전에 어떤 사람이 먹을 양식을 장만하느라고 논과 가락지를 바꾸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아리구비 옆(북쪽)에 있는 논으로 1984년에 경지를 정리하였다.

● 갈고개

금오선에 있는 고개로 부라위와 중림 사이에 있다.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87년에 고개를 깎고 포장하였다.

● 거북마루

노찢미에서 동남간으로, 중림에서 계수동 안골로 넘어가는 언덕이다.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다하여 '거북마루'라 부르고 있다.

● 고래우물

숯두루지 북쪽 끝에 있다. 절골에 있던 스님들이 이 우물물을 길어다 마셨을 만큼 예전부터 있던 우물이다. 마을의 대동우물이었고 물맛이 좋고 깨끗하였다.

● 골밭

두무절이 소마차밭 옆(북쪽)에 있는 밭으로 토질이 좋아 작물이 잘 된다.

● 공산

중림·숫두루지와 계수동 안골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일명 '노절미'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 노씨가 지은 사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과림저수지

계수동과 과림동에 걸쳐 있는 저수지이다. 물리면적 130ha에 계획저수량 43만 5,000t이며, 제방은 길이가 302m, 높이가 8.1m, 폭은 3.6m이다.

● 구래(龜來)들

중림 앞에 있는 들로, 거북마루에 있는 거북이 이곳에 내려올 듯한 형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논이 좋아 '구래들'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 구용배미

두무절이 앞(동남쪽) 방죽배미 위에 있는 논으로, 소의 밥통인 구용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국구실들

모갈들 옆으로 금오선 아래 (동쪽)에 있는 들이다.

● 군(軍)마루

금오도로변에 중림과 가운데마을 사이를 말한다. 중림역이 있었을 때 군인들이 진을 쳤고 군창이 있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비각이 있는 곳이다.

● 괴굴곡·기굴곡

사당재 서남간에 있는 골짜기로 좁고 길다.

● 기룡·기룡나무밭

대리밭 서남쪽에 위치한 밭으로, 기룡(기룡)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긴갈논

숫두루지에 속한 논으로 금오선 아래(동쪽)에 있다. 논이 길며 수답이다.

● 깃대박이

범조산 서북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일제 때 깃대를 박고 세부 측량을 하였다고 한다.

● 넓저배미

숫두루지 우물배미 아래에 있다. 둥글고 넓은 논인데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당밭

도당고개 남쪽에 있는 밭으로 조선시대 당집이 있었다. 1987년 금오선 확장 공사로 밭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 **대래밭**

두무절이 말뚥밭 위로 금오선 위에 있는 밭이며 토질이 좋아 곡식이 잘 여문다.

● **대장간논**

중림 군마루 서쪽에 있는 논으로 조선 말엽까지 대장간이 있었다.

● **도당고개**

숫두루지와 광명시 옥길동 식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갯길이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계가 된다. 고개에 있는 도당나무는 옥길동 식골에서 나무제(당제)를 지낼 만큼 신성시하는 나무이다.

● **동살미**

중림 창박골 옆(남쪽)의 산줄기 끝인데, 산 아래는 밭이다.

● **두무절이골**

범조산 밑(동쪽)에 있는 산골이다. 이곳에 '두무절'이란 절이 있었다가 빈대가 들끓어 폐사되었다고 한다. 일명 '섬독'이라 부르기도 한다.



두무절이골

● **들고지**

만수산 서쪽의 산골로 골짜기가 좁고 작다.

● **들고지고개**

성심산과 만수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이곳을 지나면 계수동 덕석골에 이른다. 1988년에 상수도 공사로 인해 고갯길이 관통되었다.

● **만수산**

숫두루지와 광명시 옥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본래는 호랑이가 많이 있는 산이라 하여 '범재산'이라 불렀다. 숫두루지 서북쪽에 있으며 구전에 따르면 산세가 좋아 이곳에 살면 만수(萬壽)를 누린다고 한다.

● **말뚥밭**

금오선 아래로 골밭 북쪽에 있다. 두무절이에 속한 밭이다.

● **망골**

중림 서북쪽 산중턱에 조선 말엽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망했다는 전설에 따라 이곳을 '망골'이라 부른다.

● **모갈고개**

모갈과 부라위 사이에 있는, 과림동사무소 앞길을 포함한 언



모갈고개

덕이다. 고개가 높고 험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처럼 넘지 못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1986년에 고갯길을 낮추었고 1987년에 포장되었다.

● 모갈들

국구실들 북쪽에 있는 들로 금오선 아래에 위치한다.

● 모래배미

두무절이 장구배미 서쪽에 있는 논으로 개울 둑이 터져 모래가 많이 쌓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무태논

진밭 동북쪽에 있는 논인데 수답이다. 두무절이에 속해 있다.

● 방죽배미

두무절이 구용배미와 금오선 사이에 있으며, 예전에는 '무재비논'이라 불렀다.

● 뱀밭

숫두루지 임가묘뿌리 아래(동남쪽)에 있는 뱀처럼 긴 밭인데, 1987년 금오선 확장 공사로 길이가 짧아졌다.

● 벌밭

무태논 남쪽에 있다. 허허벌판에 있는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범조산

두무절이와 대화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본래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의 종산이었다.

● 보모통이

중림과 숫두루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임가묘뿌리 남쪽 모퉁이에 과림동 사람들이 보를 막아 모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 보모통이다리

중림 북쪽, 보모통이에 있는 다리이다.

● 부라위들

금오선 아래 부라위 앞(남동쪽)에 있는 들로 주로 논이며 천수답이다.

● 비석거리

군마루에서 중림 안말 입구에 조선시대 역대 찰방의 선정비가 있었다. 비석들은 1950년대 이후 없어졌다.

● 사구자리는

숫두루지 새독박 아래(동쪽)에 있는 논이다. 모래가 쌓여 있었으므로 '사구자리논'이라 칭한다.

● 사당재

모갈 옷말 산 아래를 가리키는 말로, 조선시대 모갈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을 짓고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사들다리

부라위와 광명시 학운동 사들 사이에 놓인 다리로, 1960년대 어느 부인의 적선으로 가설되었다가 목감천 정비를 하면서 1980년에 초에 개축하였다.

● 사랑채고개

옆 마을을 가기 위해 걸어다니던 길로 괴골곡과 안현동 장낙골 사이를 말한다. 현재는 도로가 생기고 차가 다녀서 길을 사용하지 않아 풀로 뒤덮여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사래전논

모갈 사당재 아래(동쪽)에 있는 논이다. 수답으로 2,000여 평 가량 된다.

● 산모우물

모갈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샘물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떠다가 먹일 정도였다. 우물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자주 떠먹는 샘물이라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새능안

금오선 위(서쪽)로 두무절리와 모갈 사이이다. 조선시대 이곳에 능을 쓰려다가 모갈 쪽이 허(虛)하다고 하여 쓰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풍덕 이씨 선대의 묘가 있다.



새능안

● 새독박

숫두루지 앞(남쪽) 개울둑에, 조선 말엽 이 마을 출신인 송규식이 생일 기념으로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 박을 '새독박'이라 불렀다. 현재는 농경지이다.

● 새소개 · 새고개

중림 끝(서쪽) 산줄기로 그 모양이 새의 보금자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새소개에는 예전부터 큰 바위가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다.

● 서낭당터

중림과 안현동 양지편 사이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광복 직후 자취를 감추었다.

● **섬배미**

숯두루지 양계논 북쪽에 있는 논으로 섬처럼 생겼다.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성심산**

만수산 서남쪽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 중턱에 절이 있어 부처님의 마음같이 안온한 산이라 하여 '성심산'이라 칭했다고 전해진다.

● **성주산**

모갈과 안현동 양지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과림동에서 제일 큰 산이며, 마을의 터줏산에 해당한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산중턱에 큰 바위와 묘가 있었다. 국사지관이 보니 이곳이 역적 자리이므로 묘를 파냈는데 그 후에 벼락이 떨어져 돌이 산산조각나 사방에 흩어졌다고 한다.

● **새싹바위**

중림 새소개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본래는 '새싹바위'라 불렀다. 새가 교미를 했던 바위라고 한다.

● **소마차고개**

금오선에 있는 고개로 두무절리와 모갈 사이를 왕래한다. 고개가 높았으나 1986년 낮추었고, 이어 1987년도에 포장하였다. 소와 마차가 다니던 고개로 모갈에서는 '두무절리고개'라고 부른다.



소마차고개

● **소마차밭**

두무절리 소마차고개 아래(동쪽)에 있는 밭으로 이 밭 북쪽으로 골밭이 있다.

● **숯두루지들**

숯두루지 앞(동남쪽)에 있는 들로 제일 큰 들이다.

● **숲을박**

중림 안말 중림역사 자리 아래로, 현재는 농경지이나 예전에는 숲이 울창했다.

● **신안주씨3세적선비(시흥시 향토유적 제17호)**

중림 금오도로 옆에 있는 비로, 과림동 출신의 주석범(1815~1880), 주순원(1836~1895), 주인식(1862~1952)·주영식(1867~1952) 등 3세가 자선을 베풀자 은혜를 입은 과림동 중림·부라리와 계수동 안골 등의 주민들이 세운 비이다. 이들 신안 주씨가 3대에 걸쳐 춘궁기 때 구휼하고 세찬(歲饑)을 나누어



신안주씨3세적선비

주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자, 은혜를 입은 해당 주민 한궁열 등 유지 38명이 발기하고 주민 전원이 협동하여 1916년 4월에 3세적선비를 건립하고, 6년 후인 1922년 비각을 세웠다. 비각 안의 현판에는 적선비의 연혁과 축사 등을 기록해 두었다. 현재 비각 주변은 시에서 지원하여 '적선비 쉼터'를 만들어 마을 주민의 작은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 안골고개

옛날 중림역에서 계수동 안골로 넘어가던 고개였다.

● 앞우물

두무절이에 있는 우물이다. 대동우물로 물이 순해 빨래터로도 이용되었다.

● 양계논

숫두루지 섬배미 남쪽에 있는 논으로 2,000평 정도 된다. 양가의 논이므로 '양계논'이라 불렀는데,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양지산

과림동과 안현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깃대박이 북쪽으로 산 아래에 안현동 양지편이 위치해 있다. 예전에 절이 있어 '절터산'이라고도 불렀다.

● 양지편고개

중림과 안현동 양지편과 사이에 있는 고개로 양지편에서는 '중림고개'라 부른다.

● 연모정논

연시는 아래(동쪽)에 있는 작은 논을 말한다. 조선시대 이곳에 연못이 있었다고 전한다.

● 연시논

사래전논 아래(동쪽)로, 모갈에서 과림동사무소 가는 방향으로 동사무소 가기 직전에 위치한 곳으로 돌우물이 있던 논을 말한다. 논이 길며 논 초입에 돌우물이 있다. 현재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성주산 근처에 있어 그 일대를 '성주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 웅아리구비

목감천에 속한 개울로 숫두루지와 광명시 옥길동의 경계가 되는 하천이다. 1980년대 초에 하천변이 정리되었다.

● 옷나무골

모갈 노인정에서 보이는 양지산 건너편 지역으로 옷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건축재로 사용하기 위해 베어서 현재 옷나무는 남아 있지 않다.

● 옷우물

부라위 서쪽으로 군부대 아래(동쪽) 논에 있는 우물로, 옷이 올랐을 때 이 우물물로 씻으

면 낫는다고 하였다. 논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배미우물' 이라고도 불렀다.

● 왕기논

모갈 큰 길 건너편에 있는 논이다. 흙이 무릎에 묻으면 아이 셋은 낳아야 떨어질 정도로 차진 진흙논이었다고 한다.

● 왜밀논

작은 논이라 '왜밀논' 이라 부른다. 숯두루지 우물배미 북쪽에 있는데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우물배미

숯두루지 긴갈논 동쪽으로 금오도로 아래, 중앙에 우물이 있던 논이다. 1984년에 경지 정리하면서 우물을 없앴다.

● 웅덩배미

숯두루지 옹아리구비 옆(남쪽)에 있는 논으로, 논이 깊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 임가묘뿌리

성심산 줄기 아래로 새독박 남쪽을 말한다. 예전에는 임씨의 묘를 이곳에 썼다. 현재 묘는 없고 묘터만 있다.

● 장구배미

두무절이 구용배미 위(서쪽)에 있으며 장구처럼 생긴 논이다. 옥답으로 수답이다.

● 장터골고개

깃대박이 옆(북쪽)에 있는 고개로 일제 때 과림동 사람들이 뱀내장을 보러 다녔던 고개라 한다. 이곳을 넘으면 안현동 장낙골에 이르는데, 현재는 길이 없다.

● 제레미밭

왕기논 오른쪽에 있는 밭이다.

● 절골

성심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도 깨진 기왓장과 주춧돌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중림역사터

중림 안말 성주산에 있다. 조선시대 중림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조선 말엽에 서씨가 경기감사로 있을 때 선천 묘를 쓰기 위해 역사를 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조선 고종 때 발간된 『경기읍지』 인천부읍지편 역원조에 보면 중림역에는 찰방(察訪) 한

사람에 경신·반유·석곡·금륜·종생·남산 등 6개의 속역이 있었다.

● **진밭**

두무절이에 있는 밭으로, 말뚥밭 아래(동쪽)에 위치해 있다.

● **쪽다리들**

중림 앞(남쪽)에 있다. 1984년에 농지가 정리되었다.

● **창박골①**

중림 햇골 옆(남쪽)으로, 조선시대 군인들의 군사 훈련 때 이곳에 창을 박았다고 한다.

● **창박골②**

부라위에서 서북쪽으로 성주산 아래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 **큰나무골**

모갈 옷말 서남쪽의 큰 나무가 있는 일대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절이 있었다고 하며, 주춧돌 등이 출토된다.

● **큰우물**

두무절이 위의 논 가운데에 있다. 일제 말까지는 마을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물이 세어 때가 잘 빠지질 않았다고 한다.

● **한다리**

중림과 광명시 학온동 아방리 사이에 있던 외다리이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이 나무로 다리를 놓았다.

● **한배미**

모갈 연모정논 아래(동쪽)에 있는 큰 논이다. 이 논 안에 있는 우물이 예전에는 대동우물로, 구전에 따르면 이 물을 마시고 장수가 나왔다고 한다.

● **햇골**

새소개 앞(서남쪽)의, 나무가 많아 해가 보이지 않는 골짜기라 하여 '햇골'이라 불렀다는 설과 이 골짜기에 병해가 많아 '햇골'이라고 불렀다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병문(病文)이 있어 '햇골 병문안'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 **행길밭**

금오도로 아래(동쪽)에 있는 밭이다. 두무절이에 속한 밭으로 모양이 길게 생겼다.

● **황사지들·황사리들**

중림 앞(동쪽), 구래들 옆에 있는 들로 1984년에 경지가 정리되었다. 모래가 많고 걸해서 '황사리'라고 하였으며 논이 좋지 않아 농사가 잘 안되었다.



제2절 무지내동(茂芝内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칠리 능내동(陵内洞)·은행동(銀杏洞)·중동(中洞)·신흥동(新興洞)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흥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무지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시흥군이 해체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면·군자면·소래읍이 합쳐져 시흥시가 신설되면서 시흥시 무지동이 되었다. 1995년 시 조례 제423호에 의해 무지내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동은 과림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는 693명으로 남자 409명, 여자 284명이며 324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칠리 능내동·신흥동·은행동·중동 등을 모두 '못지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을 초입인 은행동에서 능내동까지의 거리가 7리가 되므로 마을 이름을 '칠리'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못[池]과 내[川]가 없는[無] 마을이라 하여 '못지내[無地川]'라 했는데, 1914년 부·군통폐합 때 읍이 같은 '무지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조선 말기 | 1912년 | 1989년 | 1995년 |
|-------------|-------|-------|-------|
| 七里 | 茂芝里 | 茂芝洞 | 茂芝内洞 |

● 능안말[陵內洞]

신흥동과 과림동 두무절이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칠리 능안말이었다. 이 마을은 금오도로 서쪽으로 이병문씨 덕 옆에 큰 묘가 있어 마치 능같다고 하여 '능안말'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현재는 무지내 2통에 속한다.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서쪽을 '웃말', 동쪽을 '아랫말', 남쪽을 '토란'이라 부르고 있다.



능안말

● 신흥동(新興洞)

은행동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칠리 신흥동이었다.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가시덤불이었는데, 조선 말엽에 수암면 논곡리의 달성 서씨가 처음으로 세거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앞(남쪽)에 있는 우물에서 우물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신흥동

● 은행동(銀杏洞)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칠리 은행동이었다. 이 마을의 문씨 집 마당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에서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인고등학교 동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경주 김씨가 처음으로 세거한 마을이다.

● 중동(中洞)

은행동과 신흥동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 칠리 중동이었다. 전주 이씨가 처음 세거한 이후 경주 김씨 등이 살아 왔다. 광복 직후까지 금오도로에서 중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상나무박이에서 해마다 음력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당제를 지냈다.

● 감조개

수인산업도로의 무지내동 입구에서 한인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개에 이르러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 개찌논

도리는 동쪽에 있는데 토질이 나빠 벼가 잘 안되던 논이다.

● 고사리들

신흥동 동북쪽에 있는 들로 고사리가 많이 난다.

● 구개벌

예전에 중동에 큰 내가 있었는데 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매립되어 지금은 논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땅을 파보면 아직도 나무 썩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나무가 많은 내가 있던 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개벌

● 긴건담

도리논 밑(동쪽)에 있는 긴 논으로 본래 건담이었으나 지하수 개발로 수답이 되었다.

● 느티나무

신흥동 북쪽에 있는 나무로 조선시대 수암면 논곡리 출신 서 모씨가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후 심은 것이라고 한다.

● 대장밀밭

능안말에 속한 밭으로 금오도로 아래(동쪽)에 있다.

● 도리논

쪽박산 북쪽에 있으며 토질이 좋은 수답이다.

● 돌고개

신흥동과 매화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돌이 많다. 무지내동과 매화동의 경계가 된다. 예전에는 이 고개를 넘어서 도창초등학교에 다녔다.

● 동산모퉁이논

통배미 아래(동쪽)에 있다. 쪽박산 모퉁이에 있으므로 '동산모퉁이논'이라 부르고 있다.

● 독너머벌판

토란이와 금오도로 사이에 있는 벌판으로 '토란이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 봉재산

능안말 서쪽에 있다.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렸다고 하며,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인천과 서해가 보인다.

● 불당(佛堂)골

은행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지명에 대해서는,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는 이야기와 어떤 이가 혼자 사는 집이 있어 그 집을 '절집'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사정터

한인고등학교 앞(동쪽)에 있는 동산으로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한량들이 활을 쏘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의 단합을 이유로 일본 경찰에 의해 중단되었다.

● 상나무고개

금오도로에서 중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로 향나무가 일제 말엽까지 있었다. 1987년에 고개가 낮추어지며 포장되었다.

● 상나무박이

무지내동 정미소 마루에 큰 향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향나무는 일제 말엽 마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팔았다.



상나무고개

● 안장사(安長祠)

무지내동 부흥산에 있는, 구종직(丘從直, 1400~1477)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 사당이다. 그의 시호는 안장공(安長公)으로 세종 갑자년에 문과에 오르고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하였다. 이후 옥당(玉堂)과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신도비는 1936년에 세워졌으며, 사당과 사적비는 1994년 11월 3일에 만들어졌다.



안장사

● 어령골

신흥동 앞(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에 어씨가 처음 살았다고 한다. 현재도 어씨 선대의 묘가 있으며, 깨진 기왓장·주춧돌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옷나무들

쪽박산 서쪽으로 금오도로 밑(동쪽)에 있는 들이다. 이곳에 옷나무가 많았다고 하나 현재는 개울둑만 있다.

● 용왕웅덩이

1965년에 중동마을에서 만든 저수지이다. 물이 많이 나와서 무지내동 전체가 다 쓸 수 있었는데 일대가 개발이 되고 논을 매우면서 없어졌다.

● 애망신(愛望信)우물

은행동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로 믿음·소망·사랑의 한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뚜껑을 덮어 두었다. 신흥동과 중동에도 우물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유골[柳谷]

신흥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 은행나무

은행동 문씨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이다. 은행동의 지명이 유래된 나무로 높이 20m, 둘레 2m 정도이다. 시흥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가 고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되었다.



은행나무

● 중애골

태봉 남쪽에 있는 좁고 작은 골짜기이다.

● 쪽박산

쪽박처럼 생긴 작은 산으로 능안말에서 동쪽으로 금오도로 아래에 있다.

● 태봉(胎峰)

능안말 토란이 앞(남쪽)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 77.5m이다. 이곳에 왕자의 태를 묻었다고 전해 왔는데 실제로 태를 넣은 석함(石函)이 발굴되었다. 석함은 직경이 1.05m이며, 부장품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석함 앞에 비석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없어졌다고 한다.

● 통배미

웃나무들 밑(동쪽)에 있는 논으로 통처럼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황토재고개

신흥동과 능안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이곳의 흙이 황토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1987년에 고갯길을 낮추었다.



태봉

蓮城洞

제10장 연성동

- 제1절 화정동
- 제2절 능곡동
- 제3절 하중동
- 제4절 하상동
- 제5절 광석동
- 제6절 장현동
- 제7절 장곡동



제1절 화정동(花井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인화면의 화정리(花井里)와 광곡리(廣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화정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화정동 주변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화정동이 되었다가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제정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고 일부만이 시흥시 화정동으로 남게 되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63명으로 남자가 33명, 여자가 30명이며, 26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화정리'와 '광곡리'에 비정되는 지명이 없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인화면조에는 화정리를 '꽃쥬물'로, 광곡리의 광곡을 '너빌'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 | 꽃쥬물[花井里] | 花井里 | 花井洞 |
| | 너빌[廣谷里] | | |

● 가래울

고주물과 능곡동 능골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고주물과 능곡동을 왕래하는 분기점이 되는 마을이다. 가래울은 남쪽 지역을 '웃말', 동북쪽 지역은 '외탄말', 서쪽 지역을 '양지말', 외탄말 북쪽 지역을 '아랫말', 아랫말 서쪽 지역은 '양지말', 동부쪽 지역은 '외탄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가래울

● 고주물[花井]

밀양 박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다. 화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우물이 풍수로 보아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으로 아주 오랜 옛날 이곳에서 매화꽃이 피었다 하여 '꽃우물'이라 했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꽃우물→꽃주물→고주물'로 발음이 바뀌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꽃우물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 중앙에 있는 도당나무 앞에서 해마다 음력 12월 30일 경에 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고주물

● 너빌[廣谷]

조선 세조 2년(1456)에 김충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죽자, 도성을 탈출하여 이곳 마하산에 이르러 숲을 구워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면서 일생을 보냈는데, 그 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마을은 마하산 아래(남쪽) 넓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넓은골'이라 했는데, 이후 '너빌 → 너빌'로 변해온 것으로 보인다.



너빌

마을 중앙에서 보아 동남쪽 지역을 '건너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 동쪽 지역을 '웃말', 서북쪽 지역은 '뒷말' 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 가재골

짧고 좁은 골짜기로 물이 많고 가재가 많으므로 '가재골' 이라 부르고 있다. 가래울 서남쪽에 있다.

● 갈매골

골월고개 밑으로 방아다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서해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때 갈매기들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본래의 이름은 '갈매기골' 이다.



갈매골

● 골월고개

고주물과 산현동 골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골월에서는 '고주물고개' 라 부르고 있으며 농로로 포장되었다.

● 기령재골

골월고개 마루턱과 마하산 사이에 있으며 골짜기가 길어 '기령재골' 이라 부르고 있다.

● 김성골

마하산과 고송정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 초기에 김문기의 손자 김충주가 이곳에서 숲을 굽고 살았다 하며, 그의 성을 따서 '김성골' 이라 부른다.

● 나비골

안양시 공원묘지 및 옛 수암면 공동묘지 일대의 산세가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나비골' 이라 부른다.

● 노리골

가래울에서 능곡동 능골로 넘어가기 전 고개에 못 미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뒷골' 이라고도 한다.

● 딱지봉

오리나무골 동쪽의 제일 높은 산이다.

● 대장골

고주물 서쪽의 큰 골짜기로 고주물 최초의 주거지인데, 지금 민가는 없고 모두 농경지이다.

● 돌고개

고주물과 가래울 사이에 있다. 암석지에서 잘 자라는 개암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 뒷밭

가래울 아랫말 뒤에 있는 밭으로 토질이 좋다고 한다.

● 막은절골

이전에 '막은절' 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가래울의 서쪽으로서 산뒤로 가는 길목에서 남쪽에 있다.

● 망월암

고송정 뒤 마하산 산록에 있다. 이 바위는 조선 세조 2년(1456) 김문기와 그 아들 김현석이 단종복위에 연루되어 죽자, 김문기의 손자인 김충주가 이곳에서 숲을 구우며 일생을 보내면서 영월에 있는 단종을 잊지 못해 이 바위에 손수 암각해 놓았는데, 이 바위를 '망월암' 이라 부른다.

● 모청고개

조선시대에 고주물 주민들이 너빌 주민들에게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이곳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여 '모청고개' 라 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은 '목청고개' 로서 고주물과 너빌을 왕래하는 고개이다.



모청고개

● 방아다리

고주물과 너빌을 왕래하는 삼거리에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 현대식 다리로 축조되었다.

● 봉바위

너빌 범바위산에 있으며 부엉이의 서식처이므로 '봉바위' 라 부른다.

● 봉바위산

너빌 아랫말 앞(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산에 있는 봉바위 이름을 따서 '봉바위산' 이라 부르고 있다.

● 새자리둑

외판말 앞(남쪽)으로 저수답을 설치했던 곳이다.

● 서모고개

고주물 뒤로 고주물과 능곡동 사이에 있다. 이 고개가 얇아서 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해 전염병 등이 발생하면 막힘이 없이 곧바로 이 마을에 전염되어 주민이 몰살되었으므로 '수몰고개' 라 했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서모고개' 로 되었다고 한다.



서모고개

● 성지골[姓支谷]

너빌 북쪽으로 임진왜란 때 너빌에 사는 주민들이(대부분이 금녕 김씨) 이곳으로 피난해서 김씨의 혈통을 지탱했다 하여 '성지골'이라 부르고 있다.

● 속자리논

가래울과 능곡동 능골 사이에 있다. 가래울에서 제일 좋은 논으로, '속자리들'이라고도 한다.

● 송우골[松牛谷]

고주물과 쑥계 사이에 노송 한 그루가 있었는데,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스무고개

오리나무골에서 안산시 화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쑥계

안산시와 화정동의 경계로 고주물 초입이다. 이곳에 쑥이 많았다 하여 '쑥계'라 부르고 있다.

● 안산(顏山)

고주물 앞(남쪽)에 있다. 산중에 밀양 박씨 선대의 묘가 있는데, 이곳에서 앞을 바라보면 마을(고주물)이 한눈에 보인다 하여 '안산'이라 한다.

● 오리나무골

가래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이 습지이기 때문에 오리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오리나무골'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웃나무골'이라는 말도 있어 정확치 않다.

● 오봉산

가래골 서남쪽의 제일 높은 산으로 '큰삼봉'이라고도 한다.

● 장밭들

가래울 북쪽에 있는 밭으로 넓고 크므로 '장밭들'이라 부른다.

● 지봉재산

화정초등학교 뒤에 있으며 조선시대에 고주물 주민들이 산정에서 봉화를 올렸다는 전설이 있는 산이다.

● 쪽지밭

가래울 아랫밭 서남쪽에 있으며 700평 정도의 토질이 좋은 밭이다.

● **큰우물**

가래울 웃말에 있으며 약 200년 된 우물로 물이 잘 나오고 물 맛이 좋아 안산과 수암에서 길어다 마시기까지 했다. 마을의 대동우물이었으나 1985년 간이상수도 설치로 우물 근처 민가만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큰우물

● **통배미(소죽통배미)**

가래울 중앙에 있는 논으로 마을 뒤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소의 혈이고, 이곳 논은 소의 밥통에 해당되므로 '통배미' 라고 부른다.

제2절 능곡동(陵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인화면의 북곡리(北谷里)와 능곡리(陵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능곡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능곡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연성동이다.



1910년대의 능곡동 주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449명으로 남자가 230명, 여자가 219명이며, 205세대이다. 구역의 대부분이 2002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83호에 따라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인화면(仍火面)' 소속으로 '북곡리'는 나오는데 능곡리는 없다. 대신에 '인화곡리(仍火谷里)'가 있다. 이로 보아 '능곡리'는 '인화곡리'가 변한 이름으로 생각된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인화면조에는 북곡을 '뒤일'로, 능곡을 '능골'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仍火谷里 | 능곡[陵谷里] | 陵谷里 | 陵谷洞 |
| 北谷里 | 뒤일[北谷里] | | |



능골



뒤일



목실

● 능골[陵谷]

조선 제 5대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묘를 이 마을에 쓰러다가 현 안산시 목내동 능안에 예장을 치렀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능터를 잡았던 곳이라 하여 '능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능터에는 후에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이 묻혔다.

문화 류씨와 연안 차씨 등이 세거해 온 능골은 마을 북쪽 지역을 '웃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목실과 화정동 가래울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 뒤일[北谷, 두일]

삼거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군자봉 북쪽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일'이라 부른다. 이곳은 본래 장현동 뒤일과 같은 마을로 장현동 뒤일을 '안뒤일'이라 부르고, 능곡동 뒤일을 '밖뒤일'이라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북곡을 '뒤일'로 부른다 기록하여 '북(北)'이 '뒤'에 '곡(谷)'이 '일'과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뒤일은 의령 남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남양 홍씨와 안동 권씨가 세거해 온 마을로 마을 서쪽 지역을 '웃말', 동쪽 지역을 '아랫말', 마을 중앙을 '가운데말'이라 각기 부르고 있다. 흔히 이 마을을 '두일(杜日)'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뒤일을 한자로 표기할 때 사용한 것이라 한다.

● 목실(木實)

능골과 삼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경주 이씨의 오랜 세

거지로 능곡동의 자연마을 중 제일 먼저 생긴 마을이다. 이곳은 과목(果木)이 많아 '목실'이라 부르고 있다. 일설에는 마을의 지세가 나무 '목(木)'자 형국이므로 '목실(木室)'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목실(木實)로 되었다고도 한다.

● 삼거리

부천·군자·안양을 잇는 삼거리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삼거리'라 부르고 있다. 삼거리는 일제 중엽까지만 해도 주막과 민가라고는 5가구 밖에 안 되었는데, 1938년에 이 마을 유지였던 박경선씨가 땅을 희사해 우시장이 개장되자 점차 민가가 늘기 시작하였다.



삼거리

● 가래울고개

능골과 화정동 가래울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일명 '순응재고개'라 부른다. 농로로 1986년에 포장되었다.

● 가재물동지

류자신 묘의 오른쪽 골짜기를 가리킨다.

● 가운데우물

뒤일 중간말 논에 위치하고 있다. 우물이 2개 있으며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물 지붕은 1964년 철도청 서울공작청에서 자매 기념으로 만든 것이다.

● 갈미고개

뒤일 아랫말에서 남쪽으로 이곳을 지나면 군자동 새텃말에 이른다.

● 개논들

능골 서남쪽에 있는 들로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라 토질이 개흙이다. 본래 천수답이었으나 근래에는 지하수 개발로 수답이 되었다.

● 계산모퉁이

뒤일 아랫말 남쪽 산모퉁이로 풍수로 보아 계 형국이므로 '계산모퉁이'라 부른다.

● 구웁배미.

뒤일 가운데말 앞에 있는 논이 흡사 구웁처럼 생겨 '구웁배미'라 부른다.

● 나븐들고개

삼거리와 광석동 나븐들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농로로 비포장이다.

● 남성배미

뒤일 가운데우물과 아랫말우물 사이에 있는 논으로 수답이며 남성혈이라고 한다.

● **낭떨어지기모퉁이**

뒤일 아랫말과 두일교 사이의 산모퉁이를 말한다. 모범산 낙맥이다.

● **능곡교**

삼거리와 군자동 사이의 산뒤에 있는 다리로 1965년 6월 준공되었다.

● **다래우물**

뒤일 웃말과 도당골 사이의 논에 있는 우물로 마을 식수원이었으며 물맛이 달다고 한다.

● **도당골**

뒤일 웃말과 가운데말 사이의 앞(남쪽) 산 중턱으로 조선시대에 뒤일 주민들이 마을제를 지내던 도당이 일제 말엽까지 있었다고 한다. '소터골' 이라고도 부른다.

● **돌새논**

뒤일 가운데말 앞에 있는 논으로, 논 가운데 큰 돌이 있었는데 197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없어졌다.

● **두일교**

삼거리에서 뒤일 진입에 있는 다리로 1964년 7월 8일에 준공되었다. 이 다리는 철도청 서울공작장과 뒤일 마을 간에 자매결연 기념으로 가설되었다.



두일교

● **뒤일재고개**

뒤일과 장현동 뒤일 사이에 있는 고개로 장현동에서는 '넘은 들고개' 라 부르며, '돌재고개' 라 부르기도 한다.

● **뒷밭들**

류자신 묘 왼쪽 골짜기로, 이 골짜기를 통해 사티골로 넘어간다.

● **막은절들**

군자동 새텃말과 화정동 가래울들 사이에 있는 들로 이곳 부근에 절(진덕사)이 있어 '막은절들' 이라 부른다.

● **먹우물**

삼거리 주민들의 공동우물이다.

● **모범산(模範山, 멀봉 · 멀리봉)**

삼거리 앞(서쪽)에 있는 산으로 장현동과 능곡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멀리봉' 이라 불렀는데, 일제 때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하면서부터 '모범산' 이라 부르고 있다.



모범산

● 모릉고지

목실 입구의 산 구릉지를 가리킨다.

● 문경들

뒤일 가운데말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1,000여 평에 이른다.



문경들

● 버드나무들

뒤일 아랫말 앞(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조선 말엽에 경작지로 변모되면서 없어졌다.

● 사티골고개

능골과 산현동 사티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사티골에서는 '능골고개'라 부른다. 비포장 소로이다.

● 삼거리시장터

삼거리시장은 마을 정미소 뒤(동쪽)에 있었는데, 39번 국도 안산 방향에서 시흥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 시장은 1920년대에 개시되었다가 일시 폐시되었으나 이 마을 유지였던 박경선 씨가 1938년 9월 30일에 토지를 희사해 다시 개시해 성시를 이루다가 1959년 당시 군자면 거모리에 군자시장(일명 도일시장)이 개설되자 급격한 쇠퇴를 보였으며, 1962년에 폐시되었다. 삼거리시장은 우시장으로 5일과 10일에 장이 섰다.



삼거리시장터

● 삼막골

목실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 새재골

뒤일 이터(웃터) 남쪽에 있다. 참새가 많았던 곳으로 골짜기가 좁다.

● 수압봉

능골 뒷산으로 능골과 목실 사이에 있는 산이다.

● 섬밭

뒤일 아랫말 남쪽으로 버드나무들과 계산모퉁이 사이에 있는 밭이다.

● 수풀매기

버드나무들에, 밖에서 마을 안쪽이 보이지 않게 길을 따라 나무를 심어 놓았던 곳이다.

● 승지골

삼거리 동쪽으로 수압봉과 삼거리 사이에 있는 농경지이다. 조선시대 승지 벼슬을 한 분의 묘가 있었다 하여 '승지골'이라 칭하고 있다고 하나, 일명 '성주골'이라 불리기도 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승지골

● 시금물

뒤일과 모범산 사이의 산 중턱에 있는 우물로 본래의 이름은 '말씨우물'이다. 바위 속에서 나오는 샘물로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바다와 맞닿아 사리 때는 물이 늘고 조금 때는 물이 줄었던 우물이다. 귀달린 뱀과 이무기가 있었다는 속설이 있다.

● 아랫말우물

뒤일 아랫말 논에 있다. 마을의 식수로 지붕을 설치하였다.

● 웃말우물

뒤일 웃말 논에 있는 우물로 물맛 좋기로 유명했던 우물인데 근래에 돈사·목장이 생기면서 수질 오염으로 물맛이 나빠졌다.

● 이터[李址]

뒤일 웃말 산등성이를 말한다. 조선 말엽 이씨가 큰 부자로 살던 곳이라고 하는데, 일명 '웃터'라 부르기도 한다.

● 장밭들

능골 개논들 남쪽에 있는 긴 들로 일명 '별밭'이라 부르기도 한다.

● 장배미

뒤일 좌상배미 아래에 있는 논이다. 두 마지기 정도의 긴 논으로 수답이다.

● 장자터

뒤일이터 서북간으로 조선시대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깨진 기와장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좌상배미

뒤일 웃말에 있는 논으로 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좌상배미'라 부른다.

● 지애논

뒤일 아랫말 우물 위(서쪽)에 있는 논으로 세 마지기 가량 된다.

● 풀무골

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풍수로 보아 풀무 형국이다.

제3절 하중동(下中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의 하중리(下中里)였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지사적(蓮池事蹟)』이다. 『연지사적』은 1846년 당시 안산군수였던 권용정(權用正)이 관곡지(官谷池)를 수리한 후 그간의 경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돌아가신 진산군 강희맹 공이 일찍이 사신으로 남경에 가서 전당홍이라 하는 전당의 연꽃씨를 얻었습니다. 돌아와서 하중리의 작은 못에 심은 까닭으로 읍을 연성이라 불렀습니다(故贊成 晉山君姜公希孟嘗奉使至南京得 錢塘蓮子曰錢塘紅 歸而種之 下中里小池)”로 시작한다. 따라서 관곡지가 있는 곳이 안산군 하중리였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910년대의 하중동 주변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하중동(법정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연성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1만 405명으로 남자가 5,262명, 여자가 5,143명이며, 3,461세대이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하중리를 ‘베실고지’로 부른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下職串中里 | 베실고지[下中里] | 하중리(下中里) | 하중동(下中洞) |

● 돌장재

베실구지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광복 직후 실항민들이 정착한 후 취락이 형성되었다. 이곳 고개마루에 백석이 많아 '돌장재'라고 부른다.



돌장재

● 베실구지[官谷]

이 마을은 서해 바다에 연한 마을로 지세가 바다 쪽으로 뽀족하게 내민 곳이라 하여 '베실구지'라 부른다는 설명이 있는데, '관곡(官谷)'을 우리말로 풀면 '벼슬골'이 되어 '베실구지'와 비슷해지므로 '관곡'에서 비롯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각종 지리지 및 이곳에 선영이 있는 안동 권씨 화천군파의 족보에는 모두 이 지역을 '직곶(職串)'으로 기록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베실구지' 또는 '벼슬고지'로 부르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벼슬(베실)'에 해당하는 한자를 '직(職)'에서 '관(官)'으로, '구지(고지)'에 해당하는 한자는 '곶(串)'에서 '곡(谷)'으로 바꾸어 표기함에 따라 '관곡'이란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실구지

샌말 북쪽에 자리잡은 베실구지는 고성 이씨를 비롯하여 안동 권씨·경주 이씨·경주 김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39번 국도를 따라 서쪽 지역을 '아랫말', 동쪽 지역을 '윗말', 향나무 북쪽 지역을 '넘말', 넘말 북쪽 지역을 '고잔'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과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웃말' 과 '넘말' 사이에 있는 도당나무(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냈다고 한다.

● **샌말**

성마루와 베실구지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샌말' 이라 부른다. 경주 최씨와 고성 이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일제 때 이곳 일대에 간척 공사를 실시하자 호수가 급격히 늘어 광복 이전에는 호당 경지 면적이 시흥군 관내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마을 뒷산에 있는 측백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내 오다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이곳에서 사람이 죽자 나무제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 **셋터말 · 새터말**

이 마을은 전주 이씨 익녕군파 12대 후손 중에 이시호라는 이가 포동에 살다가 결혼하여 이곳에 새로 터를 잡고 산 후 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 **성마루**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배가 떠나가는 형국이므로 우물을 파면 빠진다 하여 마을 주민들이 우물 파기를 꺼려하기까지 했었다. 마을 중앙에서 보아 남쪽으로 과수원과 소나무가 있는 곳에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진을 쳤는데, 마치 성을 쌓은 것같다 하여 '성마루' 라 칭하였다. 인동 장씨와 전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였으며, 샌말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 **감나무골**

베실구지 큰밭 옆(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감나무가 많았다 하여 '감나무골' 이라 부르고 있다.

● **공동묘지**

일제 때 하중리 · 하상리 · 광석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묘지로 안산 남쪽에 있다.

● **공동묘지고개**



새터말



성마루



공동묘지고개



관곡서당터



관곡지

성마루와 광석동 둔터골 사이에 있으며 일명 '바르모재고개'라 칭한다. 공동묘지는 고개마루 서쪽에 있다.

● 관곡서당터

셋터말 법륜사가 있는 자리로, 일제 때 하중리·하상리 주민들을 위해 설치되었던 서당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 관곡지

베실구지 고잔에 있다. 이 연못은 『금양잡록(衿陽雜錄)』의 저자 강희맹이 조선 세조 9년(1463) 명나라로 사신을 갔다 오는 길에 연꽃 씨를 채취해 가지고 이곳 연못에 처음 재배하여 연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곳이다.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선 후기에 관곡지를 관리한 방식을 보여주는 고문서가 남아 있어 의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관곡지 관련 자료 현황〉

| 연도 | 제목 | 내용 | 발급자 | 수급자 |
|-------|---------|-----------------------|------|---------|
| 1845년 | 安山郡守 書目 | 연지를 수축하고 연지기를 둘 것을 보고 | 안산군수 | 경기도 관찰사 |
| 1846년 | 蓮池事蹟 | 연지의 유래 및 수축 관련 사항을 기록 | 권용정 | - |
| 1883년 | 安山郡 完文 | 연지기의 잡역 부과 금지를 재확인 | 안산군 | 해당 동 |
| 1900년 | 蓮池浚池記 | 연지 준설의 경과를 기록 | 권태선 | - |

위의 자료가 포괄하는 시간적 범위는 55년간(1845~1900)이다. 『연지사적』에 따르면,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관곡지가 안산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 이유는 강희맹의 사위인 권만형의 직계 후손 권용정(權用正)이 안산군수로 부임한 것이다.

권용정은 기왕에 1801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정도로 소개되었으나, 『안동권씨화천군파세보(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에 따르면 순조 1년(1801)에 태어나 철종 12년(1861)에 졸(卒)한 인물이며, 『안산군읍지』 선생안(先生案)에는 1844년 11월 6일 안산군수로 발령받아 이듬해 2월 22일 부임하였다가 1848년 6월 25일에 이천부사로 승진해 간 인물이다.

권용정은 “나의 선조 감찰공(권만형)이 강(희맹)공의 사위가 되어 이 연못 근처에서 살았

기에 전당홍이 마침내 우리 집안의 소유가 되었다”고 밝혔듯이 자기 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으로서 주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폐해진 관곡지를 살리기 위해 권용정이 처음 취한 것은 민정(民丁)을 뽑아 연못을 정비하여 연꽃을 살린 것이고, 이어서 연지기 6명을 뽑고 이들에게는 일체의 역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안산군수서목」을 1845년 8월 13일 경기도 관찰사에게 보낸 것이다. 당일 관찰사 이계조(李啓朝)는 이 문서를 받고 그 위에 초서(草書)로 “일찍이 (연지에 대한) 전설을 들은 바 있는데, 오늘 진적을 얻고 보니 일이 우연스럽지가 않거니와 또한 하나의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보고한 바가 매우 마땅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의당 영구히 준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써서 권용정의 보고를 수락하였다.

경기도관찰사의 허락을 얻은 권용정은 계획대로 이도문(李道文)·황차돌(黃次堧)·김춘복(金春卜)·황해금(黃海金)·김만돌(金萬堧)·김삼손(金三孫) 등 6명을 연지기로 뽑아 연못 관리를 맡겼으며, 이상의 경과를 모두 정리하여 1846년 2월 하순에 「연지사적」을 저술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연지기에 부과하지 말도록 조치한 각종 잡역을 부과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연못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에 대해 재확인하기 위하여 안산군에서 발행한 것이 「안산군완문」이다. 이 완문은 계미년 8월에 발급한 것인데, 연지기가 배치된 1845년 이후의 계미년은 1883년 밖에 없다.

따라서 관곡지의 수축과 관리가 처음에는 권용정이 자기 집안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시작하였을 개연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산군 차원의 관심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전 문서의 유효성을 상기시키면서 질책을 가하는 것은 안산군에서 관곡지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한편 이 완문에는 “전당의 홍연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미년에 영문(營門)에서 완문을 성급한 바 있으므로 다시금 그 사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錢塘紅蓮池既有丁未年分營門完文不必更爲絀)”라고 하여 정미년인 1847년에 영문, 즉 경기도 감영에서 완문을 발급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곡지는 안산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연지준지기(蓮池浚池記)」는 1900년 5월 상순에 권태선이 종종 선산의 나무를 팔아 500냥을 마련하여 연못의 진흙을 치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권태선은 「연지사적」의 저자 권용정과는 권만형의 현손(玄孫)인 권주(權柱)에서 갈린 먼 친척으로서 자신은 물론 6대

조인 권준(權雋)부터 관곡지에다가 묘를 썼다는 기록¹⁾으로 보아 대대로 관곡지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

따라서 연지기를 두며 일체의 다른 역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조선 후기 면역(免役) 사례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50여 년에 걸친 장기간이었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 **넌다리**

관곡지 뒤편에 있는 산 너머의, 매화동과 도창동으로 가는 다리의 이름이다.

● **넘말고개**

베실구지에 있는 고개로 고잔과 넘말 사이를 왕래하는 포장소로이다.

● **능내**

베실구지 안산 동쪽을 말하며 이곳에 안동 권씨 선대의 묘가 있다.

● **대배미**

베실구지 새터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논으로 그 옆에 있는 밭은 '대밭'이라 부른다.

● **도두막재고개**

성마루와 베실구지 사이로 39번 국도상에 있는 고개이며 샌말에 속해 있다.

● **돌장재고개**

베실구지와 포동 걸뚝 사이로 39번 국도상에 있다.

● **바리지들**

새방죽 서쪽에 있으며 넓은 들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 **벼락바위**

베실구지 서쪽 산모퉁이에 있다. 본래 큰 바위였는데, 벼락을 맞아 산산조각이 나 작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삼형제배미**

구석골모퉁이 아래(서쪽)에 있는 논으로 300평 규모의 논이다. 수령이 3개 있어 '삼형제배미'라 부르고 있는데, 1970년대 경지정리로 수령이 5개가 되었다.

● **새방죽**

베실구지 앞(서쪽)의 수리안전담으로 베실구지에서는 제일 좋은 논이다.

1)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上卷(安東權氏花川君派 宗中, 1984), 26쪽, 195쪽.

2) 현재 관곡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도 바로 권태선의 증손이다.

● 성마루고개

39번 국도상에 있으며 성마루와 새말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이다.

● 성안

돌장재고개 서쪽의 얇은 산으로 흡사 성을 쌓은 것 같으므로 이곳 일대를 '성안'이라 칭한다.

● 소내비

수문모래이 남쪽의 들이다.

● 수남담

넌다리에 이르기 전의 산 아래를 가리키는데,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 수문모래고개

도두막재고개 서쪽의 소로로서, '수문모래이'라고도 한다.

● 안산(案山)①

베실구지와 하상동 하직골에 걸쳐 있는 산으로 베실구지의 수호산이다.

● 안산(案山)②

성마루와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산으로 성마루 앞(남쪽)에 있는 산이라 하여 '안산'이라 부른다.

● 앞방죽들

성마루 앞(서쪽)에 있다. 대부분이 논이며 토질이 좋은 편이다.

● 연가시골

관곡지가 있는 골짜기이다.

● 장바골

현재 하중초등학교가 있는 골짜기이다.

● 종합울

돌장재 동쪽, 새터 북쪽의 산이다.

● 큰밭

베실구지 남쪽에 있는 과수원(복숭아 밭)을 말한다.

● 한개

호조벌이 경지정리 되기 전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던 큰 갯고랑이다. 말 그대로 '큰 갯고랑'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 향나무

베실구지에 처음 민가가 생길 때 주민들이 기념으로 심은 나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에 길일을 택해서 이 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향나무

구전에 따르면, 일제 중엽 많은 사람들이 열병(장질부사)으로 목숨을 잃어가자 베실구지 출신 권모 씨가 하루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을 향해 몰려오자 권모 씨가 이 나무에 걸터앉아 지팡이를 흔들며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열병이 멈춰지고 마을이 평온했다고 한다.

● 흔들바위

매봉(또는 매봉재) 상봉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 위에 또 바위가 있어 '흔들바위'라 한다.

제4절 하상동(下上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의 하상리(下上里)와 중직리(中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하상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하상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구가 적은 관계로 연성동에 속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9,248명으로 남자가 4,681명, 여자가 4,567명이며, 2,829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초산면 소속으로 '하직곶리(下職串里)'와 '중직곶리(中職串里)'가 나온다. 『조선지리지』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하상리를 '하직곶'으로, 중직리를 '요꼰'로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하상동 주변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下職串里 | 하직곶[下上里] | 下上里 | 下上洞 |
| 中職串里 | 요꼰[中職里] | | |

● 요골[요골, 龍谷·中職]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중직리라 칭했던 마을로 풍수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되므로 용혈 즉 '용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요골'로 되었다. 또 상직(물왕동 얼미)과 하직(하직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골

충주 지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로 현재는 인동 장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서 보아 서쪽 지역을 '웃말', 동쪽 지역을 '아랫골'이라 각각 부른다. 연성초등학교 서북쪽에 위치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 모골 앞산(남쪽)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 하지골

요골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로 조선 성종 때 좌찬성을 역임한 강희맹(1424~1483)이 세조 9년(1463) 중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그곳 전당에서 연꽃씨를 가지고 와 이 마을에다 처음 심었다 하여 연꽃 '하'자와 못 '지'자를 따서 '하지골'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조선 초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이 뾰족하게 내민 땅인 데다가 강희맹의 묘를 쓴 곳이라 하여 '직곶'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대에 '하직'으로 되었고 요골은 이곳보다 위에 있는 마을이라 '중직'이라 했으며 물왕동 얼미는 제일 높은 지대에 있고 또 그곳에 높은 관직을 역임했던 분의 묘가 있어 '상직'이라 했다는 것이다.

하지골은 성종 때 강희맹의 묘를 쓴 후 그의 후손과 사위인 안동 권씨·안동 김씨·창령 성씨 등이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강희맹 묘를 비롯하여 우의정 강귀손·감찰 강순덕·부사 강태수·부사 강극성·감찰 권만형·삼절 강희안 등의 묘가 있다. 예로부터 '하지팔경(또는 연성팔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곧 관무·와룡단하·벼루은정·응봉복치·장천어 등이며 두 곳은 알려지지 않는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아랫말 뒤(북쪽)에 있는 도당나무(느티나무) 앞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 가나골

넘말과 요골 사이의 골짜기로, 수넘어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가느래비들

● 가느래비들

광석동 나븐들과 하상동 사이에 있는 들로 연성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m 쯤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도깨비가 놀아 '가느래비들' 이라 불렀다. 공동묘지는 일제 중엽에 없어졌다.

● 개미

너픈들 서쪽의 들이다.

● 개흙구덩이

하상동 들(호조방죽) 중앙이다.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이 진흙으로 뒤덮이자 이 흙으로 벽과 부뚜막 등을 칠하기도 하였다 한다.

● 거추방죽

동자방죽의 북쪽에 있는 방죽으로 '건너방죽' 이라고도 한다.

● 군량논

연성초등학교 동쪽 큰길 옆에 있는 논으로, 이 논에서 수확한 쌀을 예전에 군대의 식량으로 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공개산

도당나무 동쪽 50m 지점의 조그만 산이다.

● 너픈들

하상동과 도창동 사이에 있으며 들이 높아 '높은들' 이라 했다 가 그 후에 '너픈들' 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호조방죽에 속한다.



너픈들

● 네가바지

금이동과 물왕동에서 흘러오는 하천이 두가바지 밑(북쪽)에서 합류되는 지점을 '네가바지' 라 칭하는데, 이들 하천은 호조방죽을 거쳐 서해로 유입된다.

● 동자박이

조선시대에는 하직골 앞(동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성종 때 강희맹의 묘를 아랫말 서편 산중턱에 쓴 후 묘 앞에 세워 놓을 동자석을 배에 싣고 오다가 아랫말 앞(동쪽)을 지날 무렵 풍랑으로 배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동자석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동자박이' 라 부른다. 현재는 논이다.

● 동자방죽

동자박이에 있는 방죽이다.

● 두가바지

금이동 운흥산에서 발원하여 도리재를 경유하는 하천과 물왕동 얼미 뒷산에서 발원하여

얼미를 경유하는 하천이 하지골과 금이동 진말에서 합류되는 지점을 일컬어 '두카바지'라 부른다.

● **독맥이**

하상동 방죽과 하중동 방죽 사이에 저수하기 위하여 이곳 주민들이 독을 쌓았는데 이를 '독맥이'이라 불렀다.

● **땅고지**

가느래비들 동쪽이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바다에서 빼죽이 나간 지형이었는데, 서해안 간척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 **매봉**

하지골과 하중동 베실구지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봉이 매처럼 생겼다. 이곳에 강희맹·강귀손의 묘가 있다.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 불가사리

연성중학교 동쪽의 들 이름이다.

● 사마전(賜馬田)

조선 초기 강희맹이 큰 공을 세우자 임금이 그에게 말을 하사했는데, 그 후 이 말을 팔아 하상동 244번지 외 6필지의 밭을 샀다고 한다. 1980년 대 초에 진주 강씨 속헌공파 종중에서 하지골과 요골 경계 지점에 '사마전' 이라 쓴 비석을 세웠다.

● 장승박이①

하지골 밑(동쪽)을 말한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었다가 일제 중엽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아래장승박이' 라고 한다.

● 장승박이②

사마전에서 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장승이 있었다가 일제 말엽에 없어졌는데, '웃장승박이' 라고 한다.

● 줄우물터

요골과 광석동 나븐들 사이에 여러 개의 우물이 마치 줄을 선 것 같아 '줄우물' 이라 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 모두 없어졌다.

제5절 광석동(廣石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광석리(廣石里)와 하하리(下下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광석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광석동 주변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광석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연성동이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46명으로 남자가 186명, 여자가 160명이며, 14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광석리’와 ‘하직곶하리(下職串下里)’가 나오고 있다. 이로 보아 나중에 나오는 ‘하하리’는 ‘하직곶하리’를 줄여 부른 이름으로 생각된다.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는 광석리를 ‘나분들’로, 하하리를 ‘두터골’이라 부른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廣石里 | 나분들[廣石里] | 廣石里 | 廣石洞 |
| 下職串下里 | 두터골[下下里] | | |

● 나븐들



나븐들(농경지)



나븐들(마을)

물왕저수지 서편으로 연성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의 들판이 넓으므로 '넓은들'이라는 의미로 '나븐들'이라 부른다. 이것은 『조선지지자료』에서 광석리의 한글 발음이 '나븐들'이라 기록한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인 광석리는 '나븐들'의 한자식 차자 표기인 것이다.

나븐들은 조선 성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정승조(1442~?, 정인지의 둘째 아들)의 묘를 서낭당고개 동남쪽 약 300m 지점인 취곡(현재는 축실이라 칭함)에 예장한 후 그의 8세손인 정홍(1677~?)이 마을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후 창녕 성씨·안동 권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위는 남서쪽을 '남서골', 동북쪽은

'아랫말', 연성초등학교 인근은 '넘어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한편 '나븐들'이란 지명은 전국 곳곳에 산재한다. 가깝게는 의왕시 오전동과 양주군 광적면, 멀리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군업2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 등에도 있는데, 모두 넓은 들을 뜻하는 말이다.

● 너븐들장[廣石場]

『경기읍지』(1871) 안산군조에 "초산면에 광석장이 있는데 읍치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라고 기록되었고, 『조선지지자료』에는 "광석리의 앞에 있는데 지금은 폐장되었다"고 하였다.

● 둔터골

나븐들 서쪽으로 능곡동 삼거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높은 둔덕에 터를 잡고 살아 '둔터골'이라 불렸다. 또 일설에는 어느 전란 때 군인이 주둔했는데, 그 후 집들이 들어서자 '둔터골'이라 했다고 한다.



둔터골

정선 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둔터골은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하하리라 불렸으며, 마을 중앙에서 보아 북쪽 지역을 '웃말', 남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둔터골'이란 지명도 전국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렇게 불리는 이유도 모두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라는 전설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군포시 궁내동, 충청북도 충주

시 산척면 영덕리·소태면 주치리,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등이 있다.

● 가재골

비석거리 남쪽 골짜기로, 가재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하지만 '가쟁골'·'가재울' 등이 '가장자리의 골짜기나 그러한 마을' 일 가능성을 볼 때, 가재골 역시 가재와는 관계없는 가장자리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거모동에도 가재골이 있다.

● 감사들

39번 국도에서 물왕저수지 가는 길에 있는 들로서 일명 '금바모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의 지대가 높아 큰 비가 와야 모를 내므로 가물 때 감자라도 심어야 양식을 장만했다고 한다. 1987년에 경지정리가 되었다.



감사들

● 고래실들

둔터골에서 제일 좋은 논으로 39번 국도 위(동쪽) 마을 앞(동남쪽)에 있다. 고래실이란 말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이란 뜻의 순 우리말이다.



고래실들

● 고래우물

둔터골 아래에 있으며 고래실 안에 있는 우물이므로 '고래우물'이라 부른다.



고래우물

● 돌다리우물

'한탄강매운탕' 뒤편에 있는 우물로서, 무지개가 뜨곤 했다고 한다.

● 둔터골고개

나븐들과 둔터골 사이에 있다. 둔터골에서는 '나븐들고개'라 부르고 있으며 비포장 소로이다.

● 범배바위

범배산 정상에 있으며 바위가 흡사 호랑이처럼 생겼다 하여 '범배바위'라 부른다.

● 범배산

둔터골과 나븐들에 걸쳐 있는 산이다. 풍수로 보아 호랑이혈이므로 '범배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일명 '개나리봉'이라 부르기도 하며, '뒷뿔'·'광석산'·'큰삼봉' 등으로도 불린다.

1)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토담, 1994), 13-24쪽 참조.

● 불로초우물

둔티골 위에 있다. 우물 옆에 수백 년 수령의 회나무가 있어 이 우물을 마시면 장수한다고 하여 '불로초우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원래는 대동우물이었는데, 1970년대에 상수도 설치로 이웃 주민들만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서낭당고개

나븐들 서남쪽으로 나븐들과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고개마루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나븐들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서낭당고개

● 성주골

나븐들에서 물왕저수지로 가는 도로 오른쪽의 골짜기이다.

● 절골

둔티골과 하중동 성마루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공동묘지고개)의 동쪽 산골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한다.

● 축실

서낭당고개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은 풍수로 보아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어 '취곡'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축실'로 되었다.

축실에는 조선 초기의 학자인 정인지의 둘째 아들 정승조(성종 때 호조판서 역임)의 묘가 있는데, 이 묘는 풍수로 보아 양유혈에 속한다. 1985년에 하동 정씨 문중에서 신도비를 세웠다.

● 축실고개

나븐들과 축실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이곳 골짜기의 모습이 흡사 독수리와 같으므로 '취곡'이라 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축실'로 되었으며, 고개 또한 '축실고개'로 되었다. 이 고개 부근에 검은 구름이 뜨면 정승조가 위에서 내려다보므로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다.

● 큰삼봉

나븐들 뒤에 큰 봉우리 세 개가 있어 '큰삼봉'이라 부르고 있다. 하상동과 하중동 경계 능선에 '광덕정(廣德亭)'이란 사정(射亭)이 있었다가 일제 말엽에 폐정되었다.

● 통배미

39번 국도에서 둔티골 초입에 있는 논이다. 이곳에 큰 돌을 놓고 주민들이 왕래하였는데,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돌을 치웠다. 이를 일명 '통배미다리'라 부르기도 했다.

통배미란 지명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도 있는데, 두 곳 모두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안동의 경우는 말죽통을 버렸기 때문에 통배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영광의 경우는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시흥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쁜들이란 지명과 통배미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흥에서 나쁜들을 넓은 들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영광에서는 남쪽 들이라 해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에는 '도구통배미'란 지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배미'는 '논'을 가리키는 고유어이고, '통'은 배미의 모양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보이는데, 구체적 의미는 알 수 없다.

● 황사지골

남서골 남쪽의 연성정수장 옆 골짜기로서, 황토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제6절 장현동(長峴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의 장상리(長上里)와 조현리(鳥峴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장현리(長峴里)로 합쳐졌다. 두 마을을 합치면서 장상리에서 '장(長)'을 조현리에서 '현(峴)'을 따서 장현리라 한 것이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장현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연성동이다.

장현동에는 1997년 시흥시청이 이전해 와 시흥시 행정의 중심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5,936명으로 남자가 3,020명, 여자가 2,916명이며, 세대수는 2,041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장종리(長宗里)'와 '마현리(馬峴里)'는 나오는데, 일제강점 직후에 조사된 『조선지리지자료』의 기록과 대비해 보면 현재의 장현동에 속하는 장상리와 장곡동에 속하는 장하리를 합친 곳이 장종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마현리가 조현리를 잘못 쓴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조선지리지자료』에서는 장상리를 장하리와 같이 '진말우'로, 조현리를 '새재'로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장현동 주변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長宗里 | 진말우[長上里] | 長峴里 | 長峴洞 |
| - | 새재[鳥峴里] | | |

● 뒤일 · 두일



뒤일

조선시대에 안산군 마유면 장상리라 칭한 뒤일은 군자봉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흔히 '두일'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장곡동 진말 동남쪽에 있는 뒤일은 본래 능곡동의 뒤일과 같은 마을로, 능곡동 뒤일을 '밖뒤일' 이라 부르고, 장현동 뒤일을 '안뒤일' 이라 부른다.

『조선지지자료』에 따르면 안산군 인화면조에 '북곡(北谷)' 을 '뒤일' 이라 부른다고 기록했고, 앞의 지도에는 현재 '뒤일' 에 해당하는 곳의 지명이 '북곡리' 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보아 '뒤일' 또는 '두일' 이란 말은 (산의) 북쪽 골짜기를 뜻하는 고유어로 생각되며, 이것은 장현동과 능곡동의 뒤일이 모두 군자봉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새재[鳥峴]

뒤일 북쪽에 자리잡은 새재는 '조현리' 란 지명에서 보듯 조선 후기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 예전에 새가 많았다는 연유로 하여 '새재' 라 했다고도 하고 고개의 지세가 새의 형국이므로 새재가 되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새재마을 대동·청구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아래쪽에 시흥시청이 있어 행정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새재

● 가물치들

줄방죽들 서쪽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가물치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 가운데말고개

새재 가운데말과 흥축들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운데말고개' 라 부른다.

● 가재물골

샘이 잘 나고 가재가 많아 '가재물골' 이라 부르고 있는데, 뒤일 동북쪽에 있다.

● 개섬

흥축안을 부르는 이름이다.

● 고색골

이곳은 지대가 높고 토질이 좋지 않아 곡식이 잘 안되고 고사되기가 일쑤이다. 뒤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주물골

뒤일 남쪽으로 긴등 밑에 있다. 현재는 농경지이다.

● 골밭들

뒤일 장자터 앞(동쪽)에 있으며 토질이 좋아 곡식이 잘 되고 잘 여문다. 고색들과 대칭되는 들이다.

● 긴등

뒤일 동남쪽으로 산등성이가 길어 '긴등' 이라 부르고 있다.

● 너문들고개 · 너븐들고개

능곡동 뒤일과 장현동 뒤일 사이에 있는 고개로 능곡동 뒤일 너머에 있다.



너문들고개

● 뚝매산

절골 동쪽의 산 이름이다.

● 모롱지우물

새재 동쪽 논(장현동 274) 가운데에 있는 우물로 조선 중엽 9년간의 한발에도 마르질 않아 인근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본래 산모퉁이였다가 조선 말엽에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 모범산

본래의 산명은 알 수 없으나 일제 때 이 산에 식수를 한 후부터는 '모범산' 이라 부른다. 옥녀봉 남쪽에 있는 산이다.

● 바라지

장현천이 홍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수문이 있어 바닷물이 육지로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였다.

● 박매골

월곶~장현간 도로에서 안뒤일로 진입하면서 길을 따라 있는 골짜기이다.

● 보리뫼

긴등 아래에 있는 산등성이로 뒤일 동쪽이다.

● 사당뫼

뒤일 북동쪽으로 조선시대 사당이 있었다. 현재는 밭이다.

● 삼신우물

조선시대 수태를 못하는 장현동 부인들이 이 우물물을 길어다 마시며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삼신할머니에게 빌었던 우물이다. 새재 마을의 대동우물이었는데, 1970년대 초에 시흥군 간이상수도 제1호로 설치되었다. 옥녀봉 밑에 있는 웅달샘 우물이었다.

● 새재고개

뒤일과 새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새재에서는 '뒤일고개'라 부르고 있다.

● 수내고개

새재 옷말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로 여기를 넘으면 장곡동과 월곶동에 이른다. 고개 앞 냇가에 물이 많아 '수내고개'라 부른다.

● 아랫말고개

새재 아랫말에서 줄방죽들로 가는 고개를 '아랫말고개'라 칭한다.

● 안골

새재 남쪽으로 옥녀봉과 모범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삼태기처럼 숙 들어가 있다.

● 어리고개

새재 서쪽으로, 이 고개를 넘으면 장곡동 진말에 이른다. 서낭이 있었으나 1970년대 중엽 도로 확장 공사로 없었다고 한다.

● 여루비밭들

뒤일 동쪽으로 골밭들 동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옥녀봉·큰산

새재 앞(남쪽)에 있는 산으로 구전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산

밑에 있는 우물(삼신우물)에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 **인재이골**

뒤일 서남쪽으로 큰봉재산 옆(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개논**

장자물넷둑 아래의 논을 가리킨다.

● **장밭들**

장자터 앞의 들판이다.

● **장자우물**

뒤일 북쪽 논 가운데에 있는 우물로 조선시대 큰 부자가 마셨다고 한다.

● **정문골(정문이골)**

뒤일 장자터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시대 고씨의 정문(旌門)이 있었으므로 '정문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은 고상화(증 공조참판)의 정문이 아니면 그의 후손이거나 선대의 정문으로 추정된다. 정문이 있던 주변에서 깨진 기와장 등이 출토되고 있다. 서쪽 골짜기를 '큰골', '작은골'로 부른다.

● **줄방죽들**

새재 너머(북쪽)에 있는 들로 논이 비옥해서 벼가 줄같이 된다고 한다.

● **차돌바위**

새재 수내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로 차돌이 많아 '차돌바위'라 칭하고 있다.

● **큰봉재산**

뒤일 서남쪽에 위치하고,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통배미**

장자물넷둑 안에 있는 논이다.

● **홍축들**

이곳은 지대가 높고 건해서 홍수가 나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가물치들 동쪽으로 줄방죽들과 가물치들 사이에 있다.



욕녀봉



정자우물



정문골



줄방죽들



큰봉재산

제7절 장곡동(長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의 장하리(長下里)·도촌리(島村里)·응곡리(鷹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장곡리(長谷里)로 합쳐졌다. 세 마을을 합치면서 장하리에서 '장(長)'을 응곡리에서 '곡(谷)'을 따서 장곡리라 한 것이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이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합쳐 군자면을 설치함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대의 장곡동 주변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이 폐지되고,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장곡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연성동이다.

연성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였으며, 1997년 인근 장현동에 시흥시청이 이전해 오고, 1999년 12월 30일 시흥경찰서가 장곡동 340번지에서 개서하는 등 명실상부한 시흥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2만 53명으로 남자가 9,934명, 여자가 1만 119명이며, 세대수는 5,985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장종리(長宗里)'와 '응곡리'가 나오는데, 일제강점 직후에 조사된 『조선지지자료』의 기록과 대비해 보면 현재의 장현동에 속하는 장상리와 장곡동에 속하는 장하리가 장종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도촌리는 조선 말기에 새로 신설된 동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장하리를 장상리와 같이 '진말우'로, 도촌을 '섬말'로, 응곡리를 '매꿀'로 기록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 | 대한제국기 | 1912년 | 1989년 |
|-------|----------|-------|-------|
| 長宗里 | 진말우[長下里] | 長谷里 | 長谷洞 |
| - | 섬말[島村里] | | |
| 鷹谷里 | 매골[鷹谷里] | | |

● 긴마루

매골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의 형세가 길게 뻗어 있어 '긴마루'라 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마을을 '영흥부락'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붙인 것이라 한다. 긴마루에 처음 세거한 성씨는 임씨로 알려졌으며, 전주 이씨 영웅대군파가 대성을 이루었다가 현재는 연성2지구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긴마루

● 매골

안골 앞(동북쪽)에 있는 산이 매가 꿩사냥을 하는 복치형이라 하여 '매골'이라 칭하고 있다. 긴마루 서편에 위치해 있으며, 상양산 밑(동쪽)은 '웃말', 동남쪽 지역은 '노루우물', 중앙을 '가운데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덕수 장씨와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었던 이 마을은 3년마다 10월이나 2월 중에 길일을 택해서 상양산 당터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1970년대에 당집이 원인 모를 불로 소실되자 중단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삼성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

● 섬말

매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섬처럼 생긴 마을이다. 전주 이씨·청주 한씨·김해 김씨 등



섬말

이 세거하였던 섬말은 말 그대로 갯벌 가운데 떠 있는 섬처럼 생겼고, 지금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뒷(북쪽) 산에서 당제를 지냈는데, 정월에 마을에 부정이 있으면 그 해에는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 **신촌**

조선시대 때에 배가 닿았다고 하여 '뱃말뿌리' 또는 '개다리벌' 이라 불려오다가, 1936년 소래염전을 만들 때 평안도 인부들이 새로 터를 잡고 살면서 촌락이 형성되자 '신촌' 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안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안골**

매골 북쪽으로 장곡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해 있다. 상양산 밑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안골' 이라 칭한다. 덕수 장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조선 제17대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탄생한 마을이기도 하다. 덕수 장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안골에는 장수산(또는 장순환, 독립운동가) 등의 묘소가 있다.

● **가인봉 · 안짜산**

매골 노루우물과 긴마루 사이에 있는 산으로 이 산의 윗봉은 중이 승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가인봉' 이라 칭하고 있는데, 일명 '상봉' 이라 부르기도 한다.

● **구수골**

가인봉 동쪽으로 시흥경찰서와 황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일명 '구수동' 이라 부르기도 한다.

● **국계들**

섬말 동쪽에 있는 들로 조선시대 이곳의 농경지가 왕실 소유였으므로 '국계들' 이라 부른다. 일명 '구박죽들' 또는 '국계방죽' 이라 칭하기도 한다.



국계들

● **노루바위**

노루우물 가운데 있는 바위로 노루의 목이 잘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물물을 다 떠내야 보인다고 한다.



노루우물

● **노루우물**

매골 가인봉 아래에 있는 우물로 조선시대에는 남대문 이남에서 물맛이 제일 좋았다고 평판이 높았다고 한다. 현재 삼익아파

트의 동쪽이다.

구전에 따르면 18세기 말에 이르러 이 우물 옆에 덕수 장씨가 부자로 살았는데, 손님이 들끓자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오겠느냐 물으니, 우물 속에 있는 바위의 목을 자르면 된다고 일러주자 하인을 시켜 우물물을 퍼낸 후 바위(노루바위)의 목을 쳤더니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한다. 그 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장씨 일가는 망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 당터

상양산 중턱으로 옛 장곡리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키 위해 산신제를 지내던 당이 있었다. 1970년대 원인 모를 불로 인해 소실되어 현재는 그 터만 있다.

● 두께우물

매골 서쪽으로 상양산 밑에 있다. 우물 위에 천연적인 바위가 뚜껑을 덮고 있어 '두께우물'이라 칭하고 있는데, 마을의 대동우물이었으며 근래에 이르러 시멘트로 우물 뚜껑을 했다.

● 뒷방죽들

안골 뒤에 있는 들이라서 '뒷방죽들'이라 부르고 있다. 안골과 월곶동 별말 사이가 된다.

● 마루고개

안골 서쪽에 있는, 월곶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마리터[馬里址]

안골 서쪽으로 월곶동(월동 별말) 초입이다. 장현동·장곡동과 월곶동 일대를 포함한 지역을 조선시대에는 '마유면'이라 불렀는데, 이 지명과 '마리터'를 연관시키는 견해도 있고, 안골 끝에 있는 터란 뜻으로 보는 추정도 있다. 다만 마리터의 한자 '馬里'가 음을 새긴 것인지 뜻을 새긴 것인지 불분명하여 마유면의 유래와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강화도에 있는 마리산의 경우처럼 인근에서 가장 높은 지대란 의미의 '머리'가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명당터

긴마루 남쪽 야산으로 현재 시흥경찰서가 자리잡은 곳이다. 이곳이 풍수로 보아 명당이라고 한다. 일부는 밭이다.

● 박산(博山)

진말 뒤(동쪽)에 있는 산으로 전주 이씨의 종산(宗山)이며, 전주 이씨 선영과 장곡동측백 나무가 있다.

● 병풍바위

노루우물 남쪽으로 가인봉 밑에 있는 바위이며 병풍처럼 생겼다.

● 봉바위

진말 마을 가운데 있던 바위이다.

● 빗검골

황고개 동쪽에 있다. 이곳에 큰 비석이 있었으므로 '빗검골'이라 칭한다.

● 사당재

매골 뒤(서쪽) 상양산 중턱으로 산신당이 있었다. 장곡동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 없어졌다.

● 상양산

매골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산으로 일명 '사냥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안골 뒤에 있는 산이다.

● 새방죽들

매골과 소래염전 사이에 있는 들로 조선 말엽 이곳에 방죽을 설치했으며, 일제 때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 섬산

섬말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 산이 마치 섬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섬산'이라 칭했다.

● 옥련들

긴마루 앞(북쪽)에 있는 들로 이곳의 농경지가 문전옥답이기 때문에 '옥련들'이라 부른다. 1970년대에 경지정리가 되었다.

● 왜골

안골 북쪽으로 뒷방죽들과 새방죽들 사이에 있다. 이곳이 풍수로 보아 왜가리 형국이라 하여 '왜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일명 '왜골뿌리'라 칭하기도 한다.

● 인선왕후 생가터

인선왕후(1618~1674)는 신흥부원군 장유의 딸로 조선 제17대 효종의 비이다. 인선왕후가 태어났다는 곳은 안골로 현재 동양텍스빌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근이다. 1999년 5월 시흥문화원에서 인선왕후가 살던 마을유래비를 원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매골마을 삼성아파트 안에 세웠다.



인선왕후 생가 관련 매골마을 유래비

● 장승거리

뒷방죽들과 새방죽들 사이에 있는 왜골 안에 조선시대 장승이 있었으므로 이곳을 '장승거리'라 부르고 있다.

● 재넘애

안골과 매골을 왕래하던 고개로, 말 그대로 넘어다니는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진설미

안골 앞(동쪽)들 이름이다.

● 쪽제비골

황고개에서 장곡동 방향으로 오는 도로 오른쪽 골짜기이다.

● 측백나무

진말 어귀(동북쪽)에 있는 소나무로 조선시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두 전란을 겪은 나무라고 한다.



측백나무

● 한적골

장곡동에서 월곶 방향으로 가는 월곶선의 서쪽 골짜기이다.

● 활터거리

긴마루 동남쪽으로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 한다. 현재는 농경지이다.

● 흥뿌리 · 흙뿌리

진말 맨끝(북쪽)으로 옥련들과 만나는 지점이다.

● 황고개약수

황고개에서 동쪽으로 약 70m 지점에 있다. 습진 ·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황고개약수

시흥시 각 동의 한자·영문표기

| 경기도 | 京畿道 | Gyeonggi-Do | 시흥시 | 始興市 | Siheung City |
|-----|-----|---------------|------|------|-------------------|
| 동명 | 한자 | 영문 | 동명 | 한자 | 영문 |
| 대야동 | 大世洞 | Daeya-dong | 거모동 | 去毛洞 | Geomo-dong |
| 계수동 | 桂壽洞 | Gyesu-dong | 월곶동 | 月串洞 | Wolgot-dong |
| 신천동 | 新川洞 | Sincheon-dong | 정왕본동 | 正往本洞 | JeongwangBon-dong |
| 신현동 | 新峴洞 | Sinhyeon-dong | 죽율동 | 竹栗洞 | Jugyul-dong |
| 방산동 | 芳山洞 | Bangsan-dong | 정왕1동 | 正往1洞 | Jeongwang1-dong |
| 포 동 | 浦 洞 | Po-dong | 정왕2동 | 正往2洞 | Jeongwang2-dong |
| 미산동 | 米山洞 | Misan-dong | 정왕3동 | 正往3洞 | Jeongwang3-dong |
| 은행동 | 銀杏洞 | Eunhaeng-dong | 정왕4동 | 正往4洞 | Jeongwang4-dong |
| 안현동 | 鞍峴洞 | Anhyeon-dong | 과림동 | 果林洞 | Gwarim-dong |
| 매화동 | 梅花洞 | Maehwa-dong | 무지내동 | 茂芝內洞 | Mujinae-dong |
| 도창동 | 道倉洞 | Dochang-dong | 연성동 | 蓮城洞 | Yeonseong-dong |
| 금이동 | 錦李洞 | Geumi-dong | 하중동 | 下中洞 | Hajung-dong |
| 목감동 | 牧甘洞 | Mokgam-dong | 하상동 | 下上洞 | Hasang-dong |
| 물왕동 | 物旺洞 | Murwang-dong | 능곡동 | 陵谷洞 | Neunggok-dong |
| 산현동 | 山峴洞 | Sanhyeon-dong | 광석동 | 廣石洞 | Gwangseok-dong |
| 조남동 | 鳥南洞 | Jonam-dong | 화정동 | 花井洞 | Hwajeong-dong |
| 논곡동 | 論谷洞 | Nongok-dong | 장현동 | 長峴洞 | Janghyeon-dong |
| 군자동 | 君子洞 | Gunja-dong | 장곡동 | 長谷洞 | Janggok-dong |

※ 진한 글씨는 행정동입니다.

시흥 九景



제1경 오이도낙조(烏耳島落照)

오이도 앞의 넓은 바다에 땅거미가 깔리면서 하늘과 바다가 다같이 붉게 타오르는 정경을 보는 것.



제2경 소래산망주(蘇萊山望周)

사방이 막힘없이 우뚝 솟은 소래산 정상에서 주위의 경관을 둘러보는 것.



제3경 염전허사계(鹽田墟四季)

옛염전에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광을 느껴 보는 것.



제4경 옥구정망월(玉鉤亭望月)

옥구도 정상에 정자에서 하늘과 바다에 같이 떠 있는 달을 바라보는 것.



제5경 물왕수주영(物旺垂周影)

물왕저수지 물 속에 비친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는 것.



제6경 호조추야수(戶曹秋野穗)

호조벌 가을 들판에 고개속인 벼이삭이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모습과 그 소리를 보고 듣는 것.



제7경 관곡지연향(官谷池蓮香)

관곡지와 주변 연꽃단지에서 재배하는 연꽃의 은은한 향기를 맡는 것.



제8경 군자봉선풍(君子峰仙風)

천여 년 이어 내려온 군자봉 성황신의 영험함을 상징하는 정상의 느티나무를 감돌아 부는 시원한 바람.



제9경 월곶귀항선(月串歸港船)

만선의 기쁨을 안고 월곶항에 줄지어 돌아오는 어선의 장관을 보는 것.

始興市 地名由來

발 행 일 2006년 2월

발 행 행 시흥시청

발 행 처 경기도 시흥시 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번지
TEL : 031-317-0827, FAX : 031-317-0828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EL : 031-404-3110

이 책의 저작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인 시흥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